대한불교 조계종 대원정사 대작불사
지장 대불 불사 1000일기도 동참 1인1일 1,000원
인연있는 불자님들의 화주 시주 공덕 바랍니다.
(031)855-5501, 5503
매주 토요일 철야 정진기도(오후 11시~오전 4시)

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www.buddhanews.com ☎ 구독신청 02)737-0090 · 대표 02) 737-8881

불기 2548년(서기 2004년·음력12월 16일) 1월 7일 수요일(주간) 제455호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제주도 · 중국전문 성지순례 여행사
(주)행복만선
Tel. 02)720-8489

포교 마당이 넓어진다

조계종 포교사 고시 **공무원 · 장군 · 교사 출신 등 대거 '합격'**

지역 · 계층 분포 다양 … "전방위 활동 기대"

지역별 · 분야별 포교가 보다 넓고, 깊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말 조계종 포교원이 발표한 제9회 포교사 고시 최종 합격자 발표 결과 합격자들의 지역별 · 계층별 다양화가 두드러져 향후 포교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406명이 응시해 349명이 최종 합격한 국내 합격자 현황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31명이 합격한 강원지역의 약진이다.

'31명 합격'은 전통적으로 많은 합격자를 배출해온 서울(87명) 부산(75명) 대구(38명)에 이어 네 번째에 해당하며, 현재 포교사단에 소속돼 있는 강원지역 포교사 숫자 33명과 맞먹는 숫자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만성적인 포교인력 부족에 시달려온 강원지역 포교 담당자들은 지역 포교 활성화는 물론 서울 · 경기지역 포교사단에 속해 있는 강원지역 포교사단의 독립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고 있다.

원주불교대학(학장 원행) 부학장 최상순 법사는 "군부대가 밀집돼 있는 강원지역에서는 군 포교가 어느 지역보다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조직적인 군 포교는 엄두를 못내고 있다"며 "팀을 조직해 활동할 수 있게 되면 보다 넓은 분야에서 깊이 있는 포교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행 현장의 최전방을 지킨다고 할 수 있는 사찰 종무원들의 합격도 특기할 만한 일이다. 서울 강남 봉은사에서는 김지홍(34)씨를 비롯해 남자 종무원 4명과 여자 종무원 2명 등 모두 6명이 합격했고, 전북불교회관 버스기사인 김귀경(35)씨도 이번에 합격했다. 김병우(46)씨 역시 지금까지 합격자 명단에서 쉽게 이름을 볼 수 없었던 속초 신흥사 사무장 소임을 맡고 있다.

김 사무장은 "종무원 일이란 게 신도들과 직접 맞닥뜨려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먼저 체계적인 공부가 있어야 포교를 잘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 포교사고시에 응시했다"며 "가급적이면 종무원들뿐 아니라 산하 복지시설 등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체계적인 공부를 통해 스스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소위 사회적 여론 주도층이라 할 수 있는 전 · 현직 고위 공직자나 은퇴한 우수 인력, 현직 교직자의 강세도 두드러진 특징이다. 군 법당 시주와 관련해 불명예 전역한 뒤 명예회복을 위해 법정 투쟁을 해왔던 김태복 육군 소장(58)이 최종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볼리비아 대사를 역임했던 김상철(65)씨도 보인다. 1차 필기시험 최고득점의 영예를 안았던 김성래(53)씨는 현재 서울 광진구청 지역경제과장으로 재임하고 있고, 동서울집중국에 근무하는 문희영(51)씨는 서울체신청에서 올해의 우편소통유공자로 뽑혔던 인물. 경북농업기술원에서 농업연구관으로 있는 정상환(62)씨와 국방부 국방정신교육원 교수를 역임한 통일부 통일교육전문요원 박철원(59)씨도 합격자 명단에 보이는 이름이다.

포교원 포교사고시 담당자 최영씨는 "예전과 달리 포교사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지역과 사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단순 지식 측정보다 실제 신행 현장에서 체득할 수 있고, 필요로 하는 문제 위주로 출제한 것도 다양한 계층과 연령에서, 실제 활동할 수 있는 포교인력이 대거 합격한 원인인 것 같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새해 큰 뜻 이뤄지소서

서울 조계사(주지 지홍) 신도들이 1월 1일 2004년 갑신년을 맞아 대웅전 앞마당에서 자신의 발원을 담은 서원지를 달며 더 열심히 신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 박재완 기자

태고종 '종로시대' 연다

3월 사간동 법륜사에 새 청사 기공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이 올해 서울 종로구 사간동 법륜사에 새 터전을 마련해 '새 청사 시대'를 열어간다. 불교조계종으로 있던 60년대 태고사(현 조계사)에 총무원을 둔 이후 40여년 만에 종로에 다시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태고종은 총무원이 들어설 전통불교문화지원센터 건립불사의 정부지원금이 30억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올 3월 착공해 연내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한다.

전통불교문화센터가 완공되면 태고종은 제2종단의 위상에 걸맞는 종합적인 신행문화공간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조계종 총무원과의 거리가 1km에 불과해 새 이웃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미 양 종단이 분규 마무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 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현재 지하 4층, 지상 4층 규모로 설계가 진행 중인 전통불교문화지원센터에는 태고종 총무원, 중앙종회, 중앙호법위원회 등 중앙종무기관과 신행단체 등이 입주하게 된다. 이 외에도 대법당, 대회의실, 전시실, 공양간, 주차장, 설비실 등 주 · 부대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전통불교문화센터 건립불사를 통해 종단 발전을 견인하고 한국불교의 위상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현대불교 지면 새로워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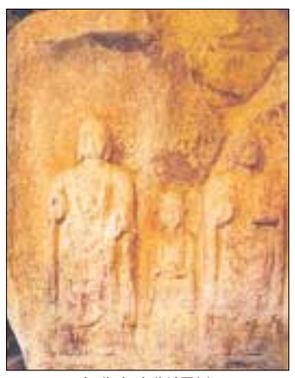
■**지상백고좌 업그레이드** 1면에 '할' 신설, 25면에 평생 수행법 소개
■**지상 캠페인** '한국불교 달라져야 한다' 2면에 매주 1개 주제씩 제안
■**비구니 스님 활동 집중 보도** 4면에 한국의 비구니 연재.
■**더 크게 뜨는 불자의 눈** 독자 참여 확대, 논설위원 기명 사설 – 15면
■**네티즌 교리문답** 붓다뉴스와 연동한 교리문답 코너 –20면
■**더 진한 감동, 부처님 감사합니다** 신행 수기 연중 공모 및 소개 –23면
■**주말이 즐겁다** 주말정보 페이지 대폭 확대 – 26면

〈새연재〉

■ 조태호 선만화 '주장자 따라' –20면
■ 안양규교수의 경전이야기 –24면
■ 자재만현 스님의 염불선 이야기 –18면
■ 이제열 법사의 '경전속의 수행 법'
■ 최윤근 교수의 '아유르베다 읽기' –31면



◇대흥사 북미륵암 마애여래좌상.



◇태안 마애삼존불.

보물서 국보로 '승격' 예고

북미륵암 마애여래좌상 · 태안 마애삼존불

영국사 후불탱 등 보물지정도

'대흥사 북미륵암 마애여래좌상'(보물 제48호)과 '태안 마애삼존불'(보물 제432호)이 국보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노태섭)은 지난해 12월 30일 현재 보물로 지정돼 있는 '대흥사 북미륵암 마애여래좌상'과 '태안 마애삼존불' 등 2건을 국보로 지정 예고하고, '영국사 영산회상 후불탱'과 '중원봉황리마애불상군'도 보물로 지정예고 했다.

문화재청은 지정예고 사유에서 "대흥사 북미륵암 마애여래좌상은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 · 악마를 굴복시키는 상징으로 결가부좌 자세에서 오른손을 땅에 댄 손 모양)을 하고 법의를 걸친 모습이 기본적으로 통일신라 불상의 전통을 잇고 있으며, 통일 신라에서 고려시대로 이행해가는 변화과정을 잘 보여주는 고려 전기의 대표적 작품"이라고 밝혔다. '태안마애삼존불'에 대해서는 "불신의 하반부가 노출돼 백제 연화대좌가 확인됨으로써 도상적 가치가 더욱 돋보인다"며 "6세기 중반 경 중국 북제양식 불상과의 영향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라고 지정예고 사유를 밝혔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12일 종무기관 입주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조계종 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차 공사가 1월10일 마무리된다.

현 조계종 총무원 바로 옆 자리에 위치한 불교역사문화기념관은 연건평 5천 평에 지상 4층, 지하 4층 규모로 불교중앙박물관, 불교예술공연장, 불교문화정보센터, 멀티미디어 라이브러리, 불교음악실, 행정업무 공간이 들어서게 된다.

총무원을 비롯한 중앙 종무기관들은 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차 완공과 함께 12일 이곳에 입주할 예정이다.

현 총무원 청사는 종무기관들이 입주한 뒤 곧바로 헐리면서 별관 공사가 시작되며, 이 자리에는 국제회의장과 전통문화예술 공간이 들어서게 된다.

한명우 기자

'할'



그림 · 조태호

– 수산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





계율, 안지키나 못지키나?

한국불교는 계율에 한정해서 말하는 한 자기 정체성이 없다고 말해야 한다. 종단만 그러한 것이 아니다. 신도들도 마찬가지다. 수계는 하지만 계율은 지키지 않는다. 사실 수계를 하지 않으면 불교도라 말할 수 없다. 아무리 불교에 관한 지식이 해박하고, 불교에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유사불교 신도는 가능하지만 불교도는 아닌 것이다. 바로, 계율에 입각한 불교적 가치를 실현하고 사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불교의 핵심을 한마디로 계정혜 3학이라 정의한다. 진실하게 계율을 지키는데서 선정과 지혜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초기불교에서 계율을 지키는 것은 언어를 바르게 하고, 행위를 바르게 하며, 생활을 올곧게 하고, 정진을 올바르게 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 여기서 언어와 행위, 생활, 정진은 의식의 발로라는 점에서 계율은 몸과 언어와 의식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안내자임을 시사한다.

전통은 존중 실천엔 '뒷짐'
합리적 대안 나와야 할 때
법답게 살려는 노력 필요

불교의 역사가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지역과 민족에 따라 약간의 변화는 있었지만 계율을 지키는 것이 불교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 이유는 분명하다. 계율을 지키는가 아닌가에 따라 불교도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하는 잣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의 불교계는 많은 종단이 난립하고 있다. 각 종단마다 각자의 주의주장 속에서 각각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크게 세 가지 성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비구 종단, 대처종단, 법사종단이 그것이다. 여기서 각 종단의 구분에 따라 우열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종단의 성격에 따라 지켜야 하는 계율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조계종단만 해도 그렇다. 250계를 수지하지만 그것을 받음과 동시에 저버리지 않을 수 없다. 처음부터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대처종단이나 법사종단은 250계가 그들에게 맞지 않다. 그럼에도 특별한 대안이 없다. 한국불교는 당나라 시대에 도선율사에 의해 수립된 남산율종의 전통을 암묵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에 국한된 문제만이 아니다. 중국, 일본, 베트남 등 한문불교의 영향권에 있는 불교국가들의 공통된 현상이다. 그리고 이들이 의지하는 것은 바로 <사불율>이다.

전통은 있지만 지킬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러할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다. 각 종단의 형편에 따라 합리적인 계율조항을 신설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불교의 근본정신을 벗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살생, 투도, 사음, 망어를 금지하는 4바라이만이라도 철저하게 지키려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재가자들 역시 마찬가지다. 불교적 신행의 출발점은 계율을 지키는 데 있다. 살생하지 않고, 주지 않는 것은 가지지 않으며, 삿된 음행에서 벗어나며,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상황논리에 어쩔 수 없이 파계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내 참회하고 계율의 근본정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재가자들의 변화된 모습 속에서 한국불교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다.

<차차석(본지 상임논설위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채수삼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문광부 올 불교관련 예산 139억6천만원

불교문화 활성 기반 다진다

신규사업 70여억원 '지원'

정부의 내년도 문화 예산 중 불교관련 예산이 139억6천여만원으로 책정됐다. 이 가운데 불교문화와 관련, 5개의 신규사업에 69억7천만원이 편성됨으로써 내년도 불교문화 활성화 작업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어 불교관련 예산을 포함한 1조1천8백39억원의 2004년도 문화관광부 예산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문광부 예산에 따르면, 불교 관련 신규사업의 예산 규모는 △세계여성불자대회 지원 2억원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운영 3억원 △조계종 전통불교문화산업지원센터 건립지원 31억7천1백만원 △한일 공동 초조대장경 DB 구축 3억원 △태고종 전통불교문화지원센터 건립지원 30억원 등 모두 69억7천1백만원이다.

이처럼 불교문화와 관련한 신규사업에 적지 않은 예산이 편성된 것은 불교문화의 가치가 인정되고 따라서 이와 관련한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특히, 올 1차년도에 31억7천만원이 지원되는 전통불교문화산업지원센터는 2006년까지 3년 동안 모두 122억원의 국고가 지원돼 공연 · 연구 · 교육 · 체험 · 산업육성 시설 등을 갖춤으로써 불교문화를 아우르는 불교문화종합센터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사업의 예산 규모는 △전통사찰보존정비 지원 56억3천1백만원 △전통사찰종합정보시스템 구축 5억6천2백만원 △문화재 일제조사 5억원 △각종 행사 지원금 3억여원 등 69억9천3백만원이다.

문화재청의 2004년 예산은 총 3천5백억3천2백만원으로 지난해 예산(3천3백8십3억 1천8백만원)에 비해 3.5% 증액됐다. 이 가운데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지난해보다 1백억 증가한 1천8백5십억원이 책정됐다. 내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남북한문화재 종합학술연구와 석조문화재 기록보존 사업, 동산문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난 경보기 설치비에 각각 3억, 4억, 2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한편 해외소장 전적문화재 조사연구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2002년부터 실시해온 국외유출문화재 일제조사와 통합 운영된다.

한명우 · 오유진 기자

"새해의 포교 원력 세워요"

조계종 10일 경주서 포교전진대회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은 1월 10~11일 경주교육문화회관과 석굴암, 불국사 등지에서 신년포교전진대회를 개최한다. 각 교구본사 포교 소임 스님, 조계종 산하 포교 · 신도 · 직장직능 단체 대표자 등 200여 명이 모여 단체간 유대를 강화하고 새해 포교의 원력을 다지게 된다.

10일 오후 6시 경주문화회관에서 입재식을 시작으로 진행되는 이번 포교전진대회는 신년 하례식과 단체 소개 위주에서 벗어나 단체 간 단합과 화합의 분위기를 돋우는 데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11일에는 석굴암 본존불 앞에서 고불식을 치르고, 이어 해맞이, 통일대종 타종 등으로 새해 결의를 다질 계획이다.

권형진 기자

조계종 총무원 인사 단행

■기획실장 여연 스님
■재무부장 보정 스님
■사서실장 현담 스님


◇여연 스님


◇보정 스님


◇현담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지난해 12월 29일 총무원 기획실장에 여연 스님(대흥사 일지암 암주), 재무부장에 보정 스님(선본사 주지), 사서실장에 현담 스님(전 능인포교당 주지)을 새로 임명하는 등의 부 · 국장급 인사를 발표하고 이날 임명장을 수여했다.

국장급 인사에서는 기획국장에 정범 스님, 감사국장에 환적 스님, 재정국장에 각원 스님, 호법국장에 혜오 스님, 조사국장에 태진 스님, 상임감찰에 노굉, 대원, 정호 스님이 각각 신규 임명 또는 전보 발령됐다.

기획실장이었던 현고 스님은 총무원장 종책특별보좌관, 사서실장이었던 청학 스님은 전통문화산업지원센터 준비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각각 임명됐고, 보정 스님이 재무부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석이 된 선본사 주지에는 정묵 스님이 임명됐다. 한명우 기자



"이라크 파병 동의안 부결을"

불교대책위, 구랍 29일 연등시위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불교계 18개 단체로 구성된 '반전평화불교대책위원회(이하 불교대책위)'는 지난해 12월 29일 조계사 일주문 등지에서 '파병반대 불교평화연등시위'를 개최하고, 국회에 파병동의안 부결을 요청했다.

불교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국익론을 앞세워 국회에서 '이라크파병동의안'을 비준할 경우, 우리는 이라크 민중들로부터 거센 저항을 받을 것"이라며 "우리 천만 불자들은 대한민국 국회에 '이라크파병동의안' 부결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시위는 불교대책위 관계자 30여명이 가슴에 파병반대 스티커를 부착하고 연등을 든 채로 조계사 일주문을 시작, 인사동을 지나 조계사 해탈문으로 걸어가는 시위 형태로 진행됐다.

남동우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조계종 특위 "사설사암 6월까지 조사"

조계종 중앙종회 사설사암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2004년 안으로 사설사암 현황 파악 및 이에 대한 종단 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하는 등의 세부 활동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내년 6월까지는 등록 및 미등록 사설사암 현황 조사를 벌이며, 7~12월에는 사찰관리에 관한 종단법령 정비 및 사설사암 활성화를 위한 종단 지원 방안 마련 차원에서 사설사암 운영현황 및 관리시스템 현황을 파악하고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모색한다. 한명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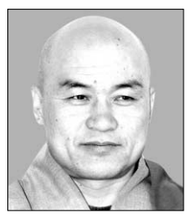
본사사령

▶경영총괄본부 본부장 **서정만** ▶편집국 취재부장 **이경숙** ▶관리부장 직무대리 **서춘건** ▶광고영업부 부장 직무대리 **김학표** ▶편집국 취재부 기자 **김두식** ▶대구 주재 기자 **배지선** ▶관리부 차장 **이승철** ▶광고영업부 차장 **이동격** ▶출판사업국 사업부 과장 **하동규** ▶고객부 과장 **김승범**
이상 2004년 1월 1일부

▶편집부 기자 **정임숙**
2003년 12월 29일부

송광사 신임주지

영조 스님 임명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지난해 12월 30일 영조 스님<사진>에게 제21교구 조계총림 송광사 주지 임명장을 수여했다.

영조 스님은 현 주지인 현봉 스님의 임기가 오는 1월 10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난 11월 새 주지로 선임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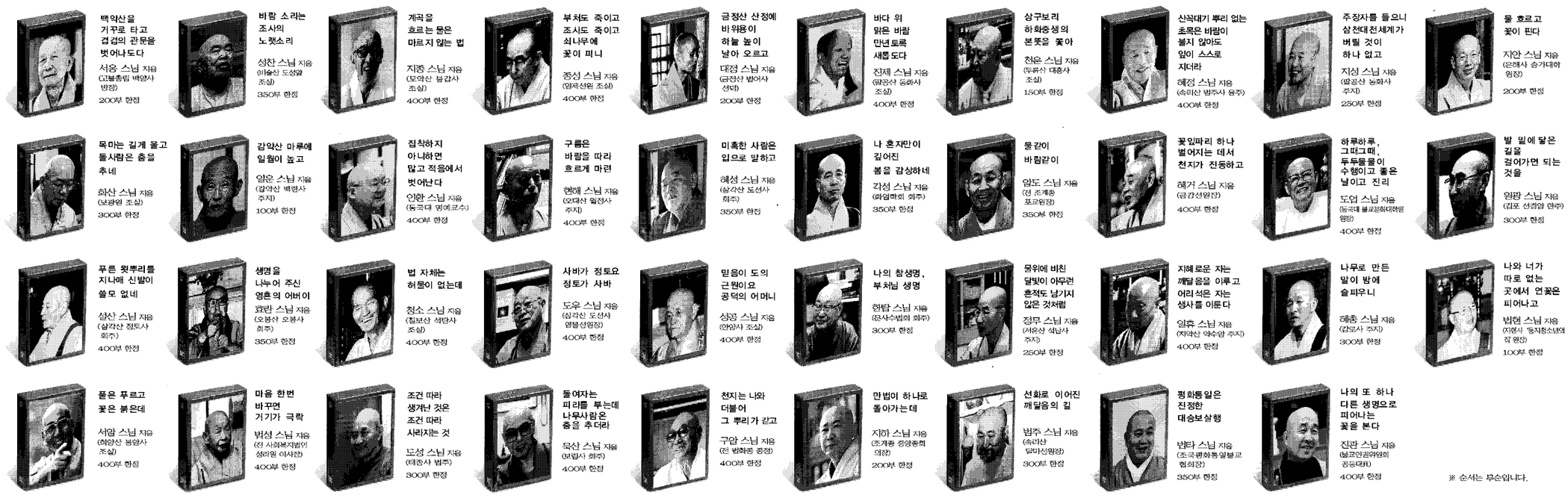
보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영조 스님은 1968년 송광사에서 구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73년 범어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71년 해인사 승가대학을 졸업했다. 제11대 중앙종회의원을 지냈으며, 84년 · 89년 · 97~2001년까지 광주 증심사 주지를 역임했다.

한명우 기자

고침 · 사과의 말씀

454호 31면에 게재된 정여 스님의 얼굴사진 자리에 정관 스님의 사진이 바뀌어 나갔습니다. 두 스님께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몸과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큰스님들의 수행을 돌아보고
가슴에 녹아내리는 법문을 들으면서 새로운 시작으로 당신을 인도합니다.



※ 순서는 무순입니다.


1세트 (책 1권 + CD 1장)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 불자님들이 다 함께 큰스님들을 모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각 스님 별로 한정 판매를 실시합니다. 더불어 각 권을 저렴한 가격으로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큰스님들을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책(양장) + CD = 정가 ~~50,000~~원 ➡ 특별공급가 25,000원 (발송비 포함) *10권 구입시 20만 원 (발송비 포함) 구입문의 : 02-446-0393

황룡사지 9층 목탑지 금동팔각 사리소탑

보존처리로 제 모습 찾아



황룡사지 9층 목탑지 금동팔각 사리소탑이 보존처리를 통해 복원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실 박학수 연구원이 지난해 12월 29일 발간된 <박물관 보존과학> 제4집에 기고한 '황룡사 9층목탑지 사리기 출토 금동팔각사리소탑의 보존처리' 논문을 통해 알려졌다. 국립중앙박물관이 보관하고 있던 이 사리소탑은 황룡사지 9층 목탑지에서 출토된 편과 압수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러 개로 분리되어 있었다.

또한 보존처리 과정에서사리소탑을 분석한 결과 옥개에 방사상으로 문양이 존재하고 있음이 새롭게 밝혀졌다.



◇황룡사지 9층 목탑지 금동팔각 사리소탑의 보존처리 전(사진 아래)와 후(위) 모습.

오유진 기자

익산 미륵사지서 출토된 납유리

7세기 일본에서 유통

7세기 익산 미륵사 근방에서 생산됐던 납유리가 일본에서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녹색의 판상 유리 30여점을 분석한 결과 7세기 일본 후꾸오카 미야지다케 고분에서 가공된 유리 팔찌, 유리구슬, 유리판의 성분과 납 동위원소가 일치해 이 같은 해석이 가능한 것.

강형태(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실 실장), 김성배(문화재청 매장문화재과), 허우영(호암미술관 문화재보존연구소), 김규호(공주대학교 문화재보존과학과) 씨 등의 공동연구결과 미륵사지 출토 유리는 납이 70~79%, 실리카가 20~28%의 범위로 분석됐으며, 납 원료는 부평지역 광산에서 조달해 일정한 배합비로 유리를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대부분 납유리가 완성품이 아닌 판상과 덩어리 형태라는 점은 언제든지 가공, 외부유통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통영환경련, 조계종에 공개 질의

미륵산 케이블카 설치 관련

통영환경운동연합측이 최근 미륵산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해 통영 용화사(주지 선곡) 입장 선회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용화사와 본사인 쌍계사, 조계종 총무원에 보냈다.

통영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12월 29일 보낸 질의서에서 "최근 선곡 스님은 통영시의회에 용화사 경내지에 불교조형물을 설치해 주고 경내 각종 문화재의 보수 및 요사채, 대웅전을 건립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했다"며 이것은 "불교조형물의 설립을 조건으로 케이블카 설치를 찬성하겠다는 뜻이 분명히 내포돼 있다"고 지적했다.

선곡 스님은 "종단이나 쌍계사와는 협의 없이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지진 피해 이란에 자비 손길

한국 JTS, 아프간 활동가 3명 현지 급파

최근 발생한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이란에 불자들의 손길이 전해진다.

한국JTS(이사장 법륜)는 이란의 케르만주 밤시로 아프가니스탄에서 구호활동을 하고 있던 이덕아(선주법사) 씨 외 2명(한지영, 김동진)을 지난해 12월 30일 현지에 급파했다. 31일 현지를 둘러본 이덕아 씨는 "도시 80%가 완전히 무너졌고 심한 지역은 구조대가 작업한 흔적만 남아있다"며 "영화 세트장처럼 사람이 살지 않는 듯한 느낌"이라고 전했다.

또한 "밤시에서는 아무것도 구할 수 없고 적월사(Ren Cracent)에서 구호품을 분배 및 관리하고 있다"며 "남아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빠른 시일내 복귀할수 있게 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밝혔다.

JTS는 31일 현지에서 NGO 등록을 마친 뒤, 필요한 것을 조사해 물품을 지원하는 활동을 할 계획이다. 우선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컨테이너 1대 분량의 생활필수품을 현지로 직접 들여갈 예정.

이지현 한국JTS 사무국장은 "피해를 입은 밤시는 인구 9만 중 반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해 돌봐줄 사람도 시설도 부족하다"며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추위로부터 보호받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 484201-01-000585(예금주 : 한국JTS)

한편 조계종 총무원의 직원모임인 '조계종 원우회'도 피해자들을 위한 모금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라크 난민, 태풍 매미, 대구지하철 참사, 스리랑카 수재 등에 대한 지원 활동을 계속해왔던 원우회는 12월 29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이란 지진 피해자 구호사업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천키로 결의했다. 구체적인 모금활동 방향은 추후 결정키로 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기획실 감사국의 윤승환 주임이 제10대 원우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한명우 · 남동우 기자



◇이덕아 씨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한국JTS

외국인 노동자 신행요람으로

조계사, 올해 정기법회 · 무료법률상담 추진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신행요람으로 자리매김한다.

조계사(주지 지홍)는 2004년 중점사업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정기법회 봉행, 무료법률 상담활동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외국인 노동자 법회 활성화 사업'을 지난해 12월 29일 밝혔다.

사업안에 따르면, 조계사는 우선 올 3월부터 태국인 노동자 법회를 봉행하고 그간 벌여온 몽골인 법회를 한달에 두 차례씩 정례화 하기로 했다. 또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안산이나 김포 지역에 상담사무실을 개소하거나 기존 불교계 시설을 후원할 계획이다.

특히 조계사는 한국불교 의식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신행활동을 돕기 위해, 해당 국가의 스님을 직접 초빙해 법회 집전과 신행상담을 전담케 할 방침이다.

조계사는 이를 위해 2004년 사업예산안에 5천여만 원을 반영했으며, 부설 외국인안내소를 중심으로 실무진 구성을 마쳤다. 또 봉사활동 중인 사법연수원 다르마법우회, 불자 노무사 등과 연계해 지원계획안도 마련했다.

조계사 종무실 유지호 실장은 "외국인 노동자 대부분이 불교권이지만, 정작 불교계에서는 이들 노동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서옹 스님 사리 친견법회 이달 30일까지 백양사서

지난해 12월 13일 좌탈입적에 든 서옹 스님의 사리가 공개됐다.

고불총림 백양사는 1월 1일 서옹 스님 사리친견 법회장을 '참사람 수행관'에 마련하고 오는 30일까지 일반에 공개한다. 이날 공개된 서옹 스님 사리는 명당수에서 수습한 참사리 4과와 습골과정에서 나온 사리 1백여과이다. 사리친견 법회장에는 명당수를 담았던 항아리가 함께 전시되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수행관에는 서옹 스님의 생전 수행모습과 열반, 다비장면을 담은 사진 2백여장도 함께 전시돼 스님의 추모열기를 높였다. 백양사는 친견법회기간동안 매일 오전 10시 30분 특별정진을 갖는다.

한편 사리는 지난해 12월 20일 백양사 전통다비양식으로 수습됐다.

이준엽 기자

인 터 뷰

문화재 도난예방 최우선

공주경찰서 박상윤 형사계장



"도난문화재 회수율이 10%가 채 안 된다고 하는데 국보를 보름여 만에 찾아 경찰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앞으로는 도난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5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국립공주박물관 국보 도난 사건. 다행히 도난당한 국보 제247호 공주 의당 금동보살은 사건 발생 보름여 만에 제자리를 찾았다. 공주경찰서 형사계 박상윤 계장을 비롯한 12명의 경찰들이 힘을 모아 수사한 결과였다. 이들은 지난 7월에 문화재청장 표창장을 받고, 12월 말에는 보상금도 받았다. 이들에게 지급된 1천만 원은 지금까지 문화재 절취사범 체포 공로 보상금으로는 최대 금액이다.

국보 절취사범 체포 공로로 받은 1000만원 기념탑 건립에 쓰기로

국보를 찾은 것은 처음이라는 박상윤 계장은 "'국립 박물관' 하면 방범이 당연히 철저히 돼 있을 꺼라 믿었지요. 당시 사건이 발생하고, 사건을 담당하면서 문화유산 관리가 너무 허술하다는 것만큼은 뼈져리게 느꼈습니다"라며 안타까움을 숨기지 못했다. 그래도 공주박물관 사건 후 박물관에 CCTV와 경보기 등 방범시설 설치가 확대돼 다행스럽다며 안도하는 박 계장. 혼자 한 일이 아니라 공로자를 대표하기 민망하다며 소감 밝히기를 꺼린다.

박 계장 등은 이번에 받은 보상금 1천만 원을 경찰서 앞에 기념탑을 세우는데 전액 희사했다. 국보를 회수한 큰 사건이었던 만큼 문화재 도난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 동료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서다.

오유진 기자

목탁소리

'북한산'과 조계종

고건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 24일 발표한 북한산 관련 담화문을 통해 "국립공원 환경피해 최소화와 노원 · 도봉지역 등 서울 북부지역의 대기오염 피해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수행환경 피해 최소화 대책 강구"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계획단계에서부터 역사 · 문화 · 환경적 요인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법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국립공원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시민환경단체 및 종교단체등과 협의 하여 개선해 나갈 것" 등을 약속했다.

조계종은 지난 2년 여간 자연과 수행 환경 보전을 위해 북한산 관통 저지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노선재검토위원회 구성 합의 등 대정부 교섭창구 역할을 해왔다. 조계종은 공식적으로 관통에 '합의'한 바 없다고 하지만 이와 관련해 수많은 시민 · 사회 · 환경 단체들에게 비판을 당한 것도 사실이다.

북한산은 북한산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또 다른 북한산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문제의 당사자이자 책임자인 조계종이 법과 제도적 뒷받침이 뒤따르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조계종도 살고 불교도 산다.

남동우(취재 1부 기자)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우리절 정기기도 ·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일요법회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자녀 및 입시기도 목련사랑법회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특별대비주기도회

◎ 매월셋째 화요일 오후 2시
~ 4시 부 산 동 선 회 법 회

● 곤지암터미널 – 우리절 셔틀버스 운행

◆ 교통편
1. 강변역 → 광주 → 곤지암 1113-1
2. 잠실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1
3. 양재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2

곤지암 우리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갑신년(2004) 새해 새아침에
불자님과 함께 조용히 기도드립니다
새해에는 보다고운 맵씨이게 하소서
새해에는 보다고운 말씨이게 하소서
새해에는 보다고운 솜씨이게 하소서
새해에는 보다고운 맘씨이게 하소서
새해에는 보다많이 여유롭게 하소서
새해에는 보다많이 봉사하게 하소서
새해에는 보다많이 행복하게 하소서
새해에는 보다많이 사랑하게 하소서

[Ⅲ-1030]기도봉행
<제3차 1030일 지장천도기도>
◎ 입재 : 2003년 11월 2일 ◎ 회향 : 2006년 8월 27일

정초신장기도
◎ 일시 : 1월 25일 ~ 2월 1일까지 오전 10시

입춘기도
◎ 일시 : 2월 1일 ~ 2월 4일까지 오전 10시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http://www.urijeol.com / 우리절.com /우리절.net 우)464-881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상림리178 전화 031)763-4674-5 / 팩스 031)763-2150

“함께 부처님 세상 만들어요”

복지 현장 누비는 비구니스님들의 ‘새해 서원’

‘불교 복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비구니 스님’이다.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는 어김없이 비구니 스님들의 손길이 닿아 있다. 각박한 세상 속 고통과 슬픔을 잿빛가사로 감싸 안으며 넉넉한 웃음을 짓는 이들. “한쪽이 외롭고 소외된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비구니 스님들의 외침이 소박한 행복으로 내려앉는다. 새해에는 또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일곱 스님의 소망은 이랬다.

놀이치료로 마음의 상처 보듬어요


◇상덕 스님


◇선재 스님

부처님의 자비를 말이 아닌 실천으로, 느낌과 감동으로 전하고 싶은 마음에 복지사업에 뛰어 들었다는 상덕 스님. 6년 전 옥수종합사회복지관을 맡았을 때만해도 다른 복지관을 쫓아 하기에 바빴다. 그렇게 1~2년이 흘렀을까? 상덕 스님은 고민에 빠졌다. 지역민들이 무엇을 원할까. 꼭 필요한데 지원되지 않는 프로그램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러던 중 아이들을 만났다. 팔짝 뛰어다니며 장난치기에도 시간이 모자랄 아이들이 급속도로 변하는 사회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정신지체와 언어발달 장애 등을 겪는 것을 보았다.

가슴이 아팠다. 그래서 놀이치료실을 열었다. 전문상담사들을 초빙해 어린이치료교육을 시키기를 3~4년, 얼마 전 치료상담실과 언어치료실, 놀이치료실 등으로 세분화시켰다.

요즘은 참 기쁘다. 아들, 딸 없는 어르신들이 복지관을 찾아 아이들을 보살피고 정을 나누는 모습이 훈훈하게 다가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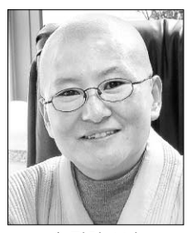
올해에는 학교 내의 사회사무실의 역할을 강화해 금연교실과 왕따방지 등 아이들의 인성교육에 더욱 관심을 가질 계획이다.

삼전종합사회복지관의 선재 스님은 ‘자비복지’를 실천덕목으로 삼고 있다. 복지관의 특성화 사업으로 인근 지역 중 · 고등학교와 대학들과 연계해 학교사회사업을 펼치면서 ‘성 안내는 얼굴, 웃는 얼굴이 곧 공양이다’는 말을 실감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소년소녀 가장들 그리고 결식아동들에게는 물리적인 지원보다 세심한 관심과 사랑이 더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린이 도서관을 열고 장애아동들을 위한 언어 · 심리 · 놀이 · 미술 교육 등을 진행했다. 필요하면 학교에 사회복지사를 보내기로 한다. 이유는 단 하나.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이들을 많이 보듬고 싶기 때문이다. ‘내가 먼저 다가가면 된다’는 생각에 선재 스님은 오늘도 먼저 씨익~ 웃으며 아이들에게 다가간다. 아이들은 실망을 안겨주지 않는다. 다소 시간이 걸린 뿐 언제나 그 천연의 순수함으로 화답해 온다.

어르신들에겐 사회참여가 ‘보약’


◇지완 스님


◇탄하 스님

지완 스님은 항상 강조한다. 몸이 늙었다고 마음까지 늙는 것은 아니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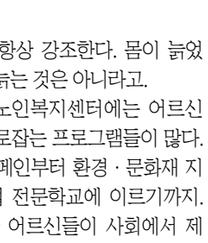
그래서 서울노인복지센터에는 어르신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프로그램들이 많다. 노인 성문화 캠페인부터 환경 · 문화재 지킴이, 노인 직업 전문학교에 이르기까지. 지완 스님은 늘 어르신들이 사회에서 제 위치와 본연의 역할을 되찾고 풍부한 경험과 지식자원들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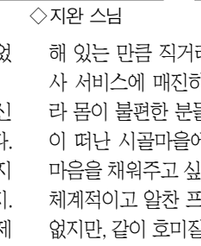
복지관이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은 한정적이지만, 어르신들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것만으로도 삶의 큰 희망을 안겨드리는 것이라 믿는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사회참여를 위해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뵐 때마다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걸 잊지 않는다. “어르신들, 힘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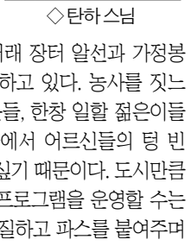
탄하 스님은 복지관이 농촌지역에 위치해 있는 만큼 직거래 장터 알선과 가정봉사 서비스에 매진하고 있다. 농사를 짓느라 몸이 불편한 분들, 한창 일할 젊은이들이 떠난 시골마을에서 어르신들의 텅 빈 마음을 채워주고 싶기 때문이다. 도시만큼 체계적이고 알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는 없지만, 같이 호미질하고 파스를 붙여주며 나누는 정도 크다고 믿는다. 소박하다고 소홀한 것은 아니다.

지완, 탄하 스님들뿐만 아니라 복지불사에 앞장서고 있는 비구니 스님들은 척박한 복지환경과 재정지원 부족을 어려움으로 토로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의 무관심이다. 너와 내가 하나이고 생이라는 굴레 속에 함께 돌아간다는 생각. 한번 더 이웃을 돌아 볼 수 있는 마음. 그게 봉사의 시작이며, 복지 즉 정토의 시발점이다.

“장애는 단지 결점일 뿐입니다”


◇능행 스님


◇성언 스님


◇지웅 스님

능행 스님과 지웅 스님, 성언 스님에게는 쏟아지는 질문이 많다. 복지 중에서도 가장 손이 많이 가고 힘들다는 중증환자와 장애인들을 돌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그냥 가난하고 고통 받는 이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입니다.”

암 말기환자를 비롯한 중증노인환자들을 10여년째 보살피고 있는 정토마을의 능행 스님에게 특별한 이유는 없다. 인간은 죽음 직전에 놓일 때 가장 고통스럽다. 당사자뿐 아니라 그걸 지켜보는 가족들의 고통 또한 말로 헤아릴 수 없다. 그들이 죽음 앞에 허겁지겁 내몰리지 않고 영원히 고통스럽지 않게 살 수 있는 극락세계로 인도하고 싶다. 이것이 사람의 도리이자, 이유라면 이유란다.

간혹 시신 앞에서 기뻐할 때도 있다. 고통 없이 편안히 잠든 모습이 감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모습에서 잠시 그간의 고달픔을 위로받는다.

아침에 한 노인이 능행 스님에게 다가와 한 마디 건넸다. 칠십 평생을 살면서 처음 이곳에서 사람사는 맛을 느꼈노라고. 눈물이 많은 곳은 그만큼 기쁨이 찾아 올 수 있는 공간을 열어 준다. 여건만 허락된다면 더 많은 분들을 모시고 싶다.

제천장애인복지관의 성언 스님은 요즘 콧노래가 절로 나온다. 새해에 복지관을 이전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컴퓨터실, 목욕탕, 무료급식소, 치료실 등 기본시설도 확충하고 조금 더 다양한 서비스 들을 제공하고…. 벌써부터 머릿속에 장애인들의 웃는 얼굴이 가득하다. 성언 스님은 일반인들이 장애인들을 평범하게 봐주기를 바란다. 장애는 누구나 갖고 있는 결점 같은 것에 불과할 뿐이다. 그래서 스님은 장애인 고용문제에 민감하다. 의무 고용 조항 때문이 아니라 장애인들의 삶을 진정 생각하고 열어줄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고 싶다.

상락원의 지웅 스님은 아이들 뒷바라지에 바쁘다. 봄이 되면 6명의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4명의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진학하기 때문이다. 장애가 있는 만큼 신경 쓸 곳도 챙겨야 할 것들도 많다. 게다가 날이 따뜻해지면 아이들 집 방수공사와 담장 공사 등도 시작할 계획이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항상 믿고 따라주는 아이들이 있기에 힘이 솟는다. 지웅 스님은 간혹 보살님들이 아이들을 찾아와 “아이구. 업이야 업.”하고 한탄할 때마다 속상하다. 특별한 사람은 없다. 장애아들도 마찬가지다. 부처님의 자식인건 장애아들도 똑같다.

김은경 · 오유진 기자

한국의 비구니 스님 <1> 광우 스님

대사회 활동 ‘본격화’ 주역



“알려지진 않았지만 평생을 수행에 몸 바쳐 오신 어른 스님들도 많으신데…. 수행 이야기를 꺼내기엔 내가 많이 부족한거 같구만.”

지난 해 비구니회관의 건립 및 개관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고 서울 삼선교 정각사로 돌아가 수행에 전념하고 있는 전 전국비구니회장 광우 스님. “그동안 너무 말이 많았다”며 한사코 사양하는 스님을 조르다시피 수행담을 청하자 자신을 낮추는 대답으로 말문을 열었다.

광우 스님은 14세에 대구사범학교 입학을 준비하기 위해 상주 남장사를 찾았다. 당시 남장사 조실은 스님의 아버지인 혜봉 스님이었다. 스님이 처음으로 본 선방 스님들의 참선 모습은 스님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스님은 수행하는 스님들을 몰래 훔쳐보다 혜봉 스님께 꾸중을 듣게 됐다.

71년 우담바라회 발족…기반 다져
“포교는 타인에게 배우고 깨닫는 과정”

“꾸중하러 오신 조실 스님께 여쭸지요, 왜 그렇게 스님들이 앉아계신가 하고요. 그랬더니 스님께서 ‘광우야’ 부르시길래 ‘예’ 대답했지요. 그러니 스님께서 ‘대답하는 그 놈이 무어냐’고 되물으시데요. 한참을 고민 끝에 모르겠다고 말씀 드렸더니 ‘바로 그걸 찾고 있는 거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스님이 첫 번째로 받은 화두이자 스님을 참선으로 이끈 길이었다. 15세에 출가한 이후로 스님은 참선을 놓지 않았고 혜봉 스님, 청담 스님 등으로부터 “참선할 근기”로 인정받아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 <아미타경>, <법화경>을 비롯한 경전공부도 시작했다.

해방 후 스님은 선산 문수사의 작은 토굴에서 <선문촬요>를 사경하고 참선하는 동안 마을 청년들에게 <초발심자경문>을 가르치기도 했다. 때마침 최근 신문(현대불교 1월1일자)에 나온 문수사 기사를 발견한 스님이 반가운 미소를 짓는다.

문수사에서의 인연을 계기로 스님은 포교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현대인들에게 전법을 하려면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 이상을 알아야겠구나’라는 생각에 1952년 동국대 입학을 결심했다. 스님은 대학에 입학한 최초의 비구니가 됐다.

졸업 후에는 대전 복전암, 서울 보문사 서별당, 대전 세등선원 등에서 수행을 계속해오다 1958년 정각사를 설립했다.

스님은 또 1971년 뜻 맞는 비구니 스님들의 원력을 모아 전국비구니회의 전신인 ‘우담바라회’도 발족했다. 이후 지금까지 스님은 포교 뿐 아니라 비구니 위상과 총림을 발전시키는데 매진해왔다. 스님은 스트레스와 화를 안고 사는 현대인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건넸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관세음보살의 힘, 즉 자비의 힘을 생각하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답니다. 자비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세요. 마음속에 성냄을 담지 말고 기꺼운 마음으로 상대를 ‘상(相)’ 없이 대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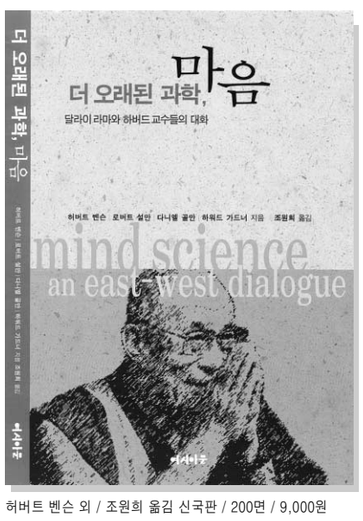
한상희 기자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 : (02)737-8881(代) Fax : (02)737-0697 http://www.yosiamun.com

명상은 몸과 마음 건강에 큰 도움... 미국인 천만명 ‘명상 붐’
- <타임>지 보도

마음
더 오래된 과학,

달라이 라마와 하버드 석학들 ‘마음과학(Mind Science)’에 대해 말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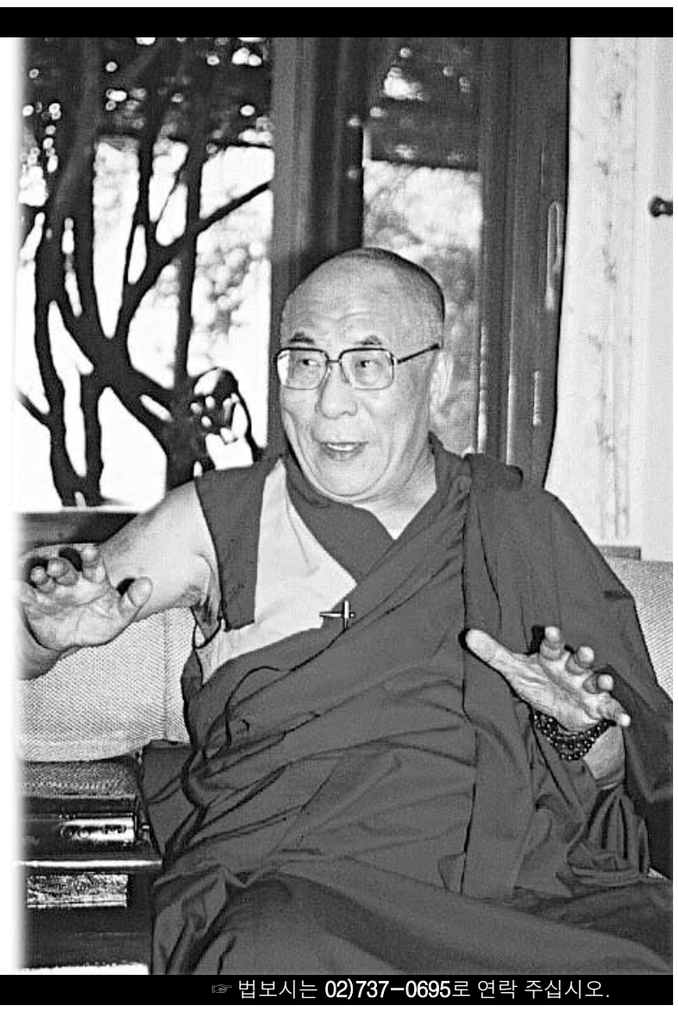
허버트 벤슨 외 / 조원희 옮김 신국판 / 200면 / 9,000원

<타임>지 최근호는 미국 하버드 의과대 행동의학과 허버트 벤슨 박사등이 연구한 명상할 때의 뇌상태 결과를 소개하는 등, 명상이 심장병, 암등의 만성적인 난치성 질병의 고통을 예방하거나 완화한다고 소개했다. 또 우울증, 주의력 결핍증 등 심적 불균형을 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명상요법이 널리 활용된다는연구결과도 소개하고 있다.

하버드 의대를 대표하는 허버트 벤슨 박사등 하버드 석학들이 달라이 라마를 초청, 마음과학에 대한 심도깊은 토론을 통해 마음과 몸 연결 작용에 관한 중요하고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는 책이 『더 오래된 과학, 마음』이다.

마음과 몸의 섬세한 관계란 무엇인가?
오늘날의 과학자들이 이 관계에 대해 불교 사상의 대가들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서양과 동양의 접근법을 통합하여 마음의 본성, 인간성장 잠재력, 정신적 · 육체적 건강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이르는 것이 가능한가?
『더 오래된 과학, 마음』은 현대 과학과 불교 간의 역사적 대화의 시작을 기록함으로써 이들 문제를 탐구한다.

달라이 라마
“ 마음은 정신적 사상들이 상호 연관된 대단히 복잡한 네트워크입니다. 마음은 몸의 생리학적 상태와 밀접하게 연결되 어 있는 역동적이고 항상 존재하는 과정(process)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mind science

☞ 법보시는 02)737-0695로 연락 주십시오.

도롱뇽소송 "100만인 힘 모읍시다"

소송 홍보 위한 전국투어



7일 부산서 발대식 후 전국 순회
간담회 등 통해 공감대 형성 주력
지율 스님, 꾸준한 홍보 계획 밝혀

도롱뇽 소송 3차 심리가 1월 16일로 연기된 가운데, 지율 스님과 '도롱뇽의 친구들'은 1월 7일부터 17일까지 열흘간 도롱뇽 100만 소송인단 모집을 위한 전국투어를 떠난다.

'도롱뇽이 원고 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초미의 관심 속에, 역사적인 법원 판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전국 투어는 1월 7일 부산에서 발대식을 갖고 도롱뇽 소송 홍보를 위해 전국을 순회한다. 익산(8일), 대구(9일), 마산 · 창원(10일), 남원 실상사(11일), 광주(12일), 대전(14일), 인천(15일) 서울 · 경기(16일,17일) 등 전국의 주요도시를 돌며 천성산과 도롱뇽을 통해 본 자연의 권리와 생명 존중 사상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다.

고속철도천성산 관통저지 전국비상대책위가 주최하고 각 지역별로 환경을 생각하는 교사 모임, 마 · 창환경운동연합, 인천녹색연합, 불교환경연대, 풀꽃세상 등이 주관하는 이번 전국 투어에서는 사진전, 도롱뇽 퍼포먼스, 소송인단 서명을 비롯 지역민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환경과 생명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하게 된다.

특히 지역민과의 대화에서 풀어놓게 될 '지율 스님의 천성산 생명이야기'에서는 천성산의 문화 · 종교 · 환경적 가치 등을 충분히 알리고 도롱뇽 소송 경과 보고와 의미 등을 지역민과 함께 나눌 예정이다.

전국 투어를 앞둔 준비로 분주한 가운데 지율 스님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 1월 1일까지 사흘 동안 천성산에 들어가 사진자료를 수집했다. 단식을 끝 낸지 불과 40여일. 정족산, 법수계곡, 화엄벌을 걷는 사흘 동안의 강행군을 자청했다. 도롱뇽 소송에 필요한 단층대 사진과 홈페이지에 올릴 천성산 일출 사진을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지율 스님은 도롱뇽 소송 100만 소송인단 모집을 위한 전국 투어가 끝나는 대로 다시 천성산에 돌아가 터널이 뚫릴 공사 현장 부근을 지키는 한편, 천성산에 머물며 천성산 생태와 문화 이야기들을 홈페이지(www.cheonsung.com)를 통해 꾸준히 홍보할 계획이다.

"한 발짝 나가는 것이 두렵다"고 심경을 밝힌 스님은 "그러나 원효 스님께서 천인의 성인을 길렀던 성지였고, 자연 생태적 가치가 무궁한 천성산을 잃을 수는 없다"며 천성산 수호 의지를 분명히 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부산에 실비 노인요양시설
정관 스님 부지 희사…3월 착공



◇상락정 배산 실버빌 조감도.

사회복지법인 불국토(대표이사 혜총)는 실비 노인요양원 '상락정(常樂精) 배산 실버빌'을 2월경 착공한다.

2003년 요양원 사업자로 선정돼 현재 설계가 완료된 상락정 배산 실버빌은 영주암 원통보전 바로 뒤 1천평 부지에 연면적 445평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뛰어난 전망과 울창산 숲으로 최상의 환경조건을 갖춘 부지는 전 대표이사인 정관 스님이 희사해 의미를 더한다.

상락정 배산 실버빌은 부산불교계 노인요양사업의 시발점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한 불교사회복지시설이 이용시설에 머물러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요양원, 양로원 같은 생활시설로 사업의 범위를 넓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올 하반기 시설 개원을 앞두고 있는 상락정 배산 실버빌은 사회복지법인 불국토가 10년 동안 지역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청소년수련관 등의 운영으로 쌓아온 경험을 노인요양사업에 반영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사장 혜총 스님은 "노인들이 자신의 마지막 생을 부처님 품에서 보낼 수 있도록 어르신 중심의 서비스를 펼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배낭 메고 지식 쌓고 자긍심 높이고

부산불교어린이지도자회 석굴암 · 남산 일대 답사



◇2003년 봄 부불어가 실시한 통도사 문화기행에서 설명을 듣고 있는 어린이들.

배낭 메고 세계문화유산을 찾아 떠나는 특별한 여행이 어린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부산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지현 스님. 이하 부불어)는 1월 29일부터 30일까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석굴암과 경주 남산을 찾아 문화답사를 떠난다. 불국사, 석굴암을 비롯 경주 일원의 문화 유적에 대한 답사로 진행될 이번 여행은 초등학생 3~6학년까지 100명에 한해 참가 신청을 받는다.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가 주최하고, 부불어가 주관하는 이번 답사는 경주국립박물관, 신라역사과학관, 불국사, 석굴암 탐방, 남산일원 유적 답사, 촛불발원 등 유익한 프로그램과 함께 즐거운 부처님 노래, 눈썰매 타기 등 재미도 빼놓지 않았다. 특히 경주 문화유적 안내 전문가들인 '신라사람들'의 안내로 진행돼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일깨우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사찰 구조, 불상, 탑 , 탱화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게 될 이번 답사에는 또 한가지 빼놓을 수 없는 특별한 재미가 있다. 어린이들이 직접 만드는 역사 신문과 동영상이 그것이다. 어린이들이 직접 촬영을 하고 영상물을 제작하는 과정과, 사진 촬영과 함께 기사문을 작성해 조별로 역사 신문을 제작하는 과정이 마련돼 있다. 기사문 작성 요령에 대한 이론 교육과 사진 촬영 요령 등을 교육받고 유적에 대한 기사를 작성해 조별로 역사 신문을 직접 제작함으로써, 문화 유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유적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다.

이수안 대불어 사무국장은 "방학 때마다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전국의 유적지를 답사할 예정이며 향후 어린이들의 관심이 높아지면 해외 문화 답사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051)864-4569

천미희 기자

관음사 대불회 결식아동 돕기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대학생 불자회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최한 '제1회 결식아동돕기 바자회' 수익금 34,370,410원을 42개 학교 결식아동에게 29일 전달했다.

이에 앞서 관음사 대학생 불자회는 24일 바자회에서 남은 어린이용품과 빵, 쌀, 과일 등을 고아원인 호동원에 전달하고, 성인용품은 영남불교대학병원 의료팀으로 구성된 네팔의료봉사단에게 전달했다.

김은경 기자 ilpck@buddhapia.com

백성 스님 〈불교작법연구〉 발간

사찰학춤 연구가 백성 스님이 불교 작법(作法)에 대한 연구서 〈불교작법연구〉(한림원 간)를 내놓았다.

이 책은 불교문화의 시작으로 간주되는 '제(祭)'와 '재(齋)'의 개념을 밝힌 1장과 작(作) · 법(法) · 작법(作法)의 어원적 의미와 개념을 정리한 2장, 불교작법 가운데 바라작법과 나비작법 등을 소개한 3장, 불교적 장례의식을 설명한 4장, 훼불훼승의 각 시대별 사례와 불교문화 전반을 개론한 5장으로 구성돼 있다.

이밖에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제10호 〈범패〉와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제173호 〈영산재〉 등 6편의 불교문화 자료를 수록한 부록을 권미에 첨부했다.

백성 스님은 1981년 통도사로 출가, 월하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으며 현재 동국대 문화예술대 석사과정에서 수학하고 있다.

백성 스님은 "10년 넘게 모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 불교작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는 점이 이 책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통도사 성보박물관 정진기도

통도사성보박물관(관장 범하) 중앙괘불전에서 신년맞이 1천배 정진기도가 열린다.

통합사박물관대학 불교회화과에서 주관하는 이번 1천배 정진기도는 높이 12m의 대형괘불을 전시할 수 있는 중앙괘불전에서 1월 8일 오후 5시부터 시작된다. 현재 중앙괘불전에는 진주청곡사 대형괘불이 모셔져 있으며 1천배 정진기도는 올해로 네 번째다. (055)384-1131 천미희 기자

겨울 방학 청소년 수련회 풍성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위한 겨울 수련회가 풍성하다.

부산백련불교문화원은 1월 2일부터 13일까지 중고생을 중심으로 단기 출가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내달 2~5일은 고등학생, 6~9일은 중학생, 초등학생은 10~13일로 일정이 확정됐다. (051)253-0277.

경주 골굴사(www.golgulsa.com)는 2월까지 수시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무도 화랑 겨울 수련회를 개최한다. 호흡을 통해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는 선무도를 중심으로 꾸며지는 골굴사의 선무도는 특히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높다. 참선과 명상, 선체조 선기공 선무술 활쏘기 등 선무도 수련과 한국전통무용 다도 교육도 실시한다. (054)745-0246

또한 부산 혜원정사는 10일~14일 경기도 화성 신흥사에서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겨울불교학교를 연다. (051)866-7771

천미희 기자

한 의 과 대 학

1 남경중의약대학(한의과대학)

2004년 본과생(학사) ■석사 · 박사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약과(중의약)	5년	◇자 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대학재학 및 졸업자(만 40세이하)
일반학과 (사범대)	4년 (편입가능)	◇ 제출서류 :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증명서 1통(영문) 입학신청서 1통(소정양식) 건강진단서 1통(영문) 여권용사진 10매, 주민등록등본 1통

2 학교 소개

▶ 중국 최고 국립한의과대학 ▶ 한국한의사 시험 2005년 3월이후(국회법통과)
▶ WH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타 ▶ 중국 중의사 시험 2002년부터 개방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 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식당 등 완비 ▶ 군입대 연기가능(6년)
▶ 홈페이지 : www.njutcm.edu.cn

3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4년 1월 20일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접수처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삼화불교대

4 문의처

· 남경중의약대학 한국분교 : 삼화불교대
전화 : 02-511-2026~7, FAX : 02-511-2028
홈페이지 : www.samhwade.com
· 中國 南京市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전화: 25-632-2539, FAX : 25-532-0825

2004년 삼화불교대 학생 모집

■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기간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 30%
개호복지사과	2년	■통신 80명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5매	· 각 종단 승려 포교사 · 30세이상 이력서 전형 가능
불교학과 (교육학 학위가능)	2년	■주간 30명 ■야간 30명 ■통신 80명		
	4년	■통신 80명		
불교미술(문화재)과 (학위수여 가능)	2년	■주간 30명 ■야간 30명		
	4년	■주간 30명 ■야간 30명		
포교사과정	2년	■야간 30명		

1989. 7. 학원설립공고
1990. 삼화불교대 불교학부, 유아교육부 개설
조계종 포교사 137명 자격 취득
1991.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조계종 포교사 148명 자격 취득
1992. 제1회 졸업생배출(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 취득)
1993. 불교미술과 · 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조계종 포교사 142명 자격 취득
1994.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132명
조계종 포교사 183명 자격 취득
1995.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분교 체결 - 중국어과 개설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6.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7.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8.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9.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2000.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2001. 1. 개호복지사과 개설, 남경중의대학 30명 합격
2002. 2. 제 11회 졸업생 배출, 남경중의대학 37명 합격
2003. 9. 남경 중의대학 41명 합격

· 전과 중국학위 가능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포교사 자격취득
· 문화재수리 기술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과정 입학가능
· 개호복지사과 2급 자격취득
※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한의대), 효장 사범대학 입학 및 편입가능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4년 1월 20일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우편당일 소인 유효)

· 본교 교학과 : TEL 02)511-2026~7 FAX 02)511-2028
인터넷 홈페이지 : www.samhwade.com
E-mail : samhwadea@hanmail.net
· 일본동경분교 : TEL 047-376-1321, 132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바람.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한불교조계종 삼 화 불 교 **삼 화 불 교 대 학**

◈ 교육부 학력인정 ◈
고등학교과정 학생모집

여러 사정상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신 분·연령 관계 없음

■ 각 학년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 기간	모집과정
고등학교 과정 각학년 편입가능	3년	주간 · 야간
중학교 과정	3년	주간 · 야간

■ 졸업 후 각 대학에 입학 가능함.
정규 고등학교와 교육제도 같음

■ **특전** :
성적우수자 조기졸업 가능
남경한의대 입학가능, 남경사범대 입학가능

■ 문의처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TEL : 02) 511-1080
FAX : 02) 511-2028

대한불교조계종 삼 화 불 교 **성지고등불교학교**

무의탁 노인 돕기 '자비 물결'

김제 행림사, 108세대에 떡·김치 전달
밀양 용암사, 납골함 153기 시에 기증

김제와 밀양지역에서 무의탁 독거노인을 위한 떡과 김치, 납골함 제공 등의 자비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김제 행림사(주지 행림)는 12월 29일 무의탁 독거노인 108세대에 떡과 김치 160박스를 김제시청에 전달했다.<사진> 이날 전달한 떡과 김치는 신도들이 직접 논밭에서 가꾼 쌀과 배추를 모아 마련한 것이다.

김제평야 한가운데 있는 빈농가를 월세로 얻어 올해 초 행림사를 개원한 세수 64세의 행림 스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부처님의 뜻"이라며 "올해부터는 독거노인들에게 더덕 도라지 손질 등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마지막 귀의처가 되도록 독거노인을 위한 납골당도 건립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행림사는 2000년 지역사회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김제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을 결성,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들에게 쌀과 김 등 반찬을 제공하는 '사랑의 음식나누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밀양 용암사(주지 선행)도 최근 경내 납골당의 납골함 153기(사가 2억3천만원)를 무의탁 독거노인용으로 밀양시에 무상 기증하기로 했다. 용암사는 2월 11일 열리는 납골당 개원법회에서 납골함 기증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선행 스님은 "납골당의 분양수익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복지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라며 "납골당의 분양가도 1기당 150만원으로 책정해 저소득층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깨달음의 의미 '다시 한번'

부처님 깨달음의 의미를 되새기는 성도절 법회가 광주와 대구를 비롯 전국에서 봉행됐다.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현지)는 12월 26일 남도예술회관에서 '성도절 기념 특별법회'를 봉행했다.

암도 스님 초청강연을 겸한 이날 법회에는 천운 스님(대흥사 조실), 광민 스님(승보회장) 등 지역스님과 박광태 광주시장, 강운태 국회의원 등 관내기관장, 재가불자 등 6백여명이 동참했다.

이날 암도 스님은 특별강연에서 "부처님이 6년고행끝에 깨달은 진리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는 연기법이다"며 "무명이란 욕심을 버렸을때 부처님과 같은 참사람이 된다"고 강조했다.

성도절 법회 전국서 봉행

이어 광주불교 사암련은 지역불교 발전에 앞장서온 임희철(서부경찰서 불자회장), 이숙희(광주사암연합 합창단장), 김재덕(광주 운전불자회장) 불자에게 '제1회 광주불교 포교상'을 수여했다. 광주불교 포교상은 금년에 처음 제정된 상으로 10여년넘게 신행단체를 이끌어온 단체장에게 수여됐다. 또 반야, 향림, 연화, 선덕유치원 등 광주지역 4개 불교유치원생들이 출연해 1년동안 갈고 닦은 솜씨를 자랑했다.

대구사원주지연합회(회장 원명)는 12월 26일 보광원 조실 화산, 동화사 주지 지성, 천태종 대성사 주지 문덕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대구회관에서 성도절 법요식을 봉행했다.

이날 대구 사원주지 연합회 회장 원명 스님은 봉행사에서 "오늘 성도절을 계기로 성불이라는 목표를 성취할 때까지 올바른 믿음으로 바르게 정진해 불국토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이준엽 · 김원우 기자

생명나눔 치료비 900만원 지원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장)는 12월 30일 전남대병원 회의실에서 생명나눔 기금지원식을 갖고 900만원을 소아암 환아들에게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한 기금은 지난 11월부터 두달 동안 문빈정사 앞에서 '소아암환아돕기공연' 등을 통해 모금한 성금으로 소아암을 앓고있는 김용태(7살, 소아백혈병) 김한결(13살, 저성장증) 양동화(16살, 골육종) 등 3명의 환아에게 전달됐다.

생명나눔 실천본부는 장기기증운동, 혈소판 공여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투병지원사업일환으로 진료비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금년에도 7차에 걸쳐 14명의 소아암환자들의 치료비로 총 4천9백90여만원을 지원했다.

이준엽 기자



◇생명나눔 이사 진화스님(광주 증심사 주지)과 임직원 들이 소아암 환아와 병원 진료진에게 치료기금을 전달했다.

불광사, 제1회 흥사단 투명대상 수상

서울 석촌동 불광사(주지 지정)가 제 1회 흥사단 투명대상을 수상했다.<사진>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상임대표 구치모, 경성대 교수)는 12월 26일 흥사단 강당에서 제1회 투명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불광사에 제1회 투명대상을 시상한 이유로 △회계감사 의무가 없는 종교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회계감사 △외부 회계감사는 정치 경제 시민사회단체의 모범 △기업의 회계부정이 사회를 혼란케 하는 상황에서 불광사의 용기 있는 행동은 신선한 충격이라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우리 절 우리 신도

늘 부처님 곁에 있고 싶어요

서울 돈암동 해인사 박선희 총무

절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 이 말에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사람이라면 서울 성북구 돈암동에 위치한 해인사(주지 혜경) 박선희 총무(52, 법륜화)를 만나보라. 그러면 차차 의문이 풀릴 것이다.

박 총무는 잠자리에 들기 전 남편과 맞절을 한다.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반배 합장이라도 한다. 그러면서 서로 건네는 말 한마디.

"여보 오늘도 직장에서 수고 많으셨어요."

"그래 당신도 절일, 가정일 하느라 힘들었지?"

남편이 출근할 때도 서로 반배 합장을 한다.

"성불합시다."

남들이 보면 닭살 돋는(?) 모습일지라도 이 부부에게는 자연스런 일과다. 부부가 서로 절을 하며 '존중'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혜경 스님이 펼치고 있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 운동본부' 덕분이다.

박 총무는 혜경 스님과 인연 맺은 지 10년이 훌쩍 넘었다. 어릴 때부터 친정어머니의 손을 잡고 절을 찾았지만 '신심' 깊은 불자는 아니었다. 그러나 스님이 수원 달마사 주지 소임을 맡을 때부터 인연을 맺은 박 총무는, 이제 매일 절에 '출근'한다. 공양주 보살이 따로 없기 때문에 스님 공양 준비부터 도량 청소, 신도관리 등 박 총무는 해인사 원주, 재무, 총무 역할을 한다.

스님이 2년 전 해인사에 처음 왔을 때였다. 첫 초하루 법회 때 찾아온 신도는 한명도 없었다. 하지만 스님과 박 총무가 실망하지 않고 열심히 포교한 덕분에 이제 신도관리 카드에 기재된 신도만 100명이 넘었다.



2년간 열심히 포교·시봉 신도 100명으로 늘어나

이렇게 박 총무가 절일을 열심히 하게 된 데에는 스님의 영향과 남편의 도움이 크다. 전 불광사 회주 광덕 스님 밑에서 공부한 스님은 예순이 넘은 세수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수행자에게 자가용은 사치라고 가르쳤던 광덕 스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이다. 여기에 바쁜 때면 절에서 자는 것도 이해해주는 남편이 고마울 뿐이다.

신도들에게 늘 웃음으로 맞는 박 총무에게도 남모를 아픔이 있다. 서른다섯 살에 낳은 아들이 심장병으로 고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든든하다. 친구들과 함께 운동할 정도로 아들의 건강이 호전됐기도 하지만, 부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스님과의 인연으로 행복한 가정이 됐다는 박 총무. 향후 계획을 물었더니 '그저 부처님 곁에 있을 것'이라며 미소를 지을 뿐이다.

남동우 기자



추천의 말

혜경스님 해인사 주지

"수행하는 맘으로 봉사"

스님을 시봉하는 일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본인이 수행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박 총무는 절일을 하면서도 전국 각지의 기도처를 찾아다니며 열심히 불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정성을 기울이고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는 박 총무의 마음 덕분에 저도 포교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새해에도 박 총무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더해지길 기원합니다.

파동명상수련을 통하면 영통(靈通)을 이룰 수 있습니다.







◇ 지도교사 박봉순

◇ 2001년 10월 SBS 호기심천국
◇ 2002년 4월 KBS VJ특공대
◇ 2003년 3월 i-TV 위험한초대 출연

◈ 「파동명상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수련을 통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능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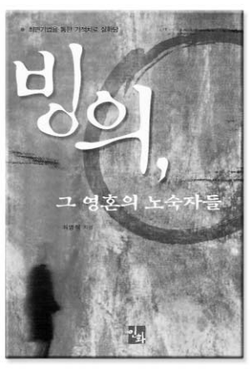
수련내용

◈ **파동명상제령 :** 제주(祭主)또는 신도가 몸속의 영가와 대화할 수 있으며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다.
◈ **원격명상제령 :** 제3자가 파동명상상태에서 원하는 사람의 몸속에 있는 영가를 불러내어 대화하거나 제령천도 할 수 있다.
◈ **영통靈通수련 :** 특별한 파동명상 기법을 통하여 영통을열 수 있게 하는 비법을 전수한다. (영통수련은 상담 후 결정)
◈ **수련대상 :** 스님, 법사, 기공사, 의사, 약사, 기타 상담사
◈ **수련교재 :** 기초교재, 비디오 테이프, CD 교재
◈ **수련일시 :** 12月 넷째주, 다섯째주 (월 ~ 금)
◈ **수련과정** (1대 1 개인지도 可, 전화문의 바람)
① 파동명상 전문반 : 파동명상 지도사 수련과정으로 5일간 수련으로 지도사 자격증 수여. (수련비 200만원)
② 영통수련반 : 상담 후 결정

'빙의, 그 영혼의 노숙자들'

최영식 지음 | 인화출판사 값 9,500원

빙의에 대한 영혼적 현상들을 **파동명상요법**으로 해결해 내는 빙의 현상에 대한 필독서 !



저자 법운 최영식은 세계 최초로 탁월한 수행 기법인 **파동명상요법**을 개발하여 2003년 12월 부산시 사하구에서 발생한 어린이 유괴살해암매장사건의 범인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그 외에는 전국에서 일어난 많은 강력사건의 수사에 협조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2003년 제 58회 경찰의 날을 맞아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 받았다. 그리고 영혼적 현상인 '빙의' 때문에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되찾게 해주는 오늘을 살아가는 상처 받은 영혼들의 진정한 안내자이다.

『 현재 저자는 많은 수행자들을 대상으로 파동명상 요법을 강의하고있다 』

동방파동명상연구소 ◈ 문의처 : 017-587-0777 · 051) 806-8500, 817-6156 Fax : 051)817-6157 ◈ 홈페이지 : www.dongbang21.co.kr

대구불교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제작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이웃 위할 수 있음이 살아가는 樂이죠"

■ 조계종 중앙신도회·불교환경연대의 특별한 새해맞이



◇ 지난해 12월 30일 의정부 통일안국사 선재동자원을 찾은 조계종 중앙신도회 · 불교환경연대 사무처 직원들이 아이들과 함께 환한 웃음을 짓고 있다. 이들은 "이제 먹고 마시는 것보다 이웃과 함께 하며 지난해를 돌아보고 새해 다짐을 하는 것은 어떠냐"고 제안한다.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불교환경연대 사무처 직원들은 지난 해 12월 30일 아주 특별한 '앨범' 하나씩을 만들었다. '새해맞이 해돋이를 구경할 수 있는 곳은 어디어디'라며 세상이 온통 들떠 있을 때였다. 이들 17명은 의정부시 호원동에 자리한 통일안국사(주지 지산) 부설 선재동자원을 찾아 새해 맞을 채비를 했다. 선재동자원은 갈 곳 없고, 의지할 데 없는 아이들 74명이 모여 사는 비인가 아동복지시설이다.

"그래도 아이들이 지낼 새 건물이라도 생겨서 다행이에요. 작년에 올 때는 조립식 가건물 4동밖에 없었는데, 아예 몰랐더라면 싶었을 정도로 마음이 아팠거든요." 주지 지산 스님의 안내로 20여 일 전 새로 입주한 3층짜리 콘크리트 숙소 건물을 둘러보며 일행이 동시에 가슴을 쓸어내린다.

"한 20일 됐나. 아직 안에는 손 볼 데가 많은데 날씨가 추워져서 먼저 옮겼어." 지산 스님은 은행 빚내서 건물 먼저 지었다고 했다. "그래도 마음은 놓인다"는 일행의 말에 스님은 "은행 이자며 운영비며 후원금으로 다 해결해야 되는데, 후원금도 갈수록 줄고…"라며 말꼬리를 흐렸다.

"자, 이제 일해야죠." 숙소를 둘러보자마자 이상근 총무부장(중앙신도회)이 서두른다. "작년에는 거의 놀다갔거든요. 애들이랑 공차다 보니…."

이 날은 마침 아이들이 머리 깎는 날이었다. 여자아이들 숙소였다 지금은 공부방으로 쓰고 있는 가건물에서는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서 미용실을 하는 김하매씨가 쉬는 날을 택해 딸과 함께 아이들 머리를 깎아주고 있었다. 그러나 "머리라도 감겨줘야지" 하는 일행들의 바람(?)은 뜻을 이루지 못했다. 역시 자원봉사로 나온 학생들이 이미 선점해 버렸기 때문이다. 아쉽지만 기다리는 아이들에게 준비해온 호떡과 초코파이 등 먹을 것을 나눠주고 같이 놀아주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수밖에 없었다.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던 박태훈(중앙신도회 정보화사업팀)씨는 "1년에 한 번 왔다가는 거라

3년째 아동복지시설서 송년회 대신 봉사로 한해 마무리
1년에 한번이라 늘 미안 · · · 보다 많은 사람들 관심갖길

솔직히 죄송하다"고 했다. "그래도 한 번 오고 나면 생각이 많이 나요. 텔레비전에 비슷한 처지의 애들 얘기가 나올 때 한 번이라도 더 관심이 가게 되고, 적게나마 성금도 내게 되거든요. 봉사를 자주 다니지는 못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도 해 주게 되고요."

이상근 부장은 "송년회 대신 어려운 아이들을 찾아 봉사 활동 한 게 올해로 3년째거든요. 첫해엔 둥지소년의 집에 갔었고 작년부터 여기 왔는데, 아이들 얼굴을 보고 나면 다짐이 많이 됩니다. 1년을 뒤돌아보고 반성도 하게 되고 새해엔 우리 이웃, 우리 사회를 위해 좀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도 새롭게 하게 되고…"라고 말했다. 한 아이가 다가와 "오줌 마려워요"라고 말하자 이 부장은 "가자"라며 얼른 자리를 떴다.

새 숙소로 발길을 옮기자 청소하는 일행들 틈 속에서 김희경(불교환경연대 자원봉사자)씨가 네 살배기 지훈이랑 한창 장난을 치고 있다. "처음 여기 올 때는 몸이 건강한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요 녀석 생각이 많이 났어요." 어느 새 졸고 있는 지훈이를 품에 안은 김 씨는 "작년에 올 때는 60명이 조금 넘었던 것 같은데 아이들이 많이 늘었다"며 "이제 연말연시에 먹고 마시는 것은 할 만큼 해봤잖아요. 말로만 이웃을 생각하자고 할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나라는 것을 마음으로, 몸으로 느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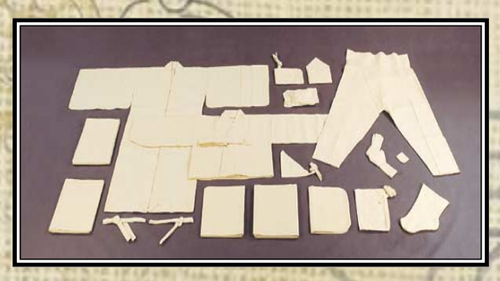
최경애 국장(불교환경연대)은 "한 달에 한번씩들 오자고 했는데, 큰 도움은 주지 못하는 것 같아 늘 미안하다"며 "어쩌면 우리가 위로받는 것인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이렇게 잠깐, 한 번 다녀가고 나서는 그래도 나는 할 만큼 했다는 자만심을 가지는 건 아닌지, 아이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지, 인사치레는 아닌지…. 많은 생각들이 스쳐간다"며 "4개월 된 어린 아이까지 내 자식인양 책임지려는 지산 스님처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정부 · 글=권형진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 통일안국사 부설 선재동자원은…?

의정부시 호원동에 위치한 비인가 아동복지시설. 90년 3월, 통일안국사 주지 지산 스님이 갈 데 없는 아이들을 위해 시작했다. 생후 4개월된 아이부터 대학생까지 모두 74명이 살고 있다. 박현규 사무장은 "올해만 10명 정도 새로 들어왔다"며 "경기가 안 좋으면 기하급수적으로 아이들 숫자가 늘어나지만 여기 있는 9년 동안 부모가 와서 다시 데려가는 경우는 3명밖에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은행 빚을 끌어다 3층 건물을 먼저 지은 건, 지난해 여름 화재로 가건물 4동 중 2동이 전소돼 아이들 잘 곳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정부 인가(2005년 7월까지 받아야 함)를 받기 위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비인가 시설이라 정부 보조금 한 푼 받지 못한다. 그러나 후원금만으로 살림을 꾸려가는 처지에 정부 인가를 받기 위한 시설, 인력 등을 맞추기 위한 재정을 마련하는 것 역시 캄캄하기만 하다. 지산 스님은 "인가시설에는 18세가 넘으면 나가야 되는데 여기 떠나면 또 어디로 가겠느냐"며 "제 인생 책임져서 나갈 때까지는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데, 그것도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031)855-2235

살아생전 부모님께 전통삼베 「가가 孝 수의」
좋은 수의를 장만하는 일이야 말로 진정한 효의 실천입니다.



▶가가수의의 특징
- 가가수의복은 만들어진 제품을 판매하는 도.소매업소가 아닌, 수의를 만드는 수의제조 공장에서 직접 제작합니다.
-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거의 없으므로 수의의 가격에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 20년 경력의 전문기술자가 직접 주문된 수의를 제작합니다.
- 미리 만들어 놓은 수의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주문을 받은 후에 수의를 제작합니다.
- 주문한 수의의 제작과정을 직접오셔서 보고 가져갈 수 있으므로 믿을 수 있습니다.
- 수의의 특이점(치수, 삼베의종류, 부분제작 등)들을 미리 주문해 주시면 아래제품에 없는 수의라도 문제없이 만들어 드립니다.
- 제봉에 사용하는 실은 100% 면사만을 사용합니다.
- 수도권은 24시간 내에 제작,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에 정확히 배송해 드립니다.

불자님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 - 놓치지 마십시오.
큰일을 당하고 나서 허둥지둥 장의사에 급하게 만든 수의(壽衣)가 어련하겠습니까?
부모님 살아 계실 때 꼼꼼하게 따져가며 제대로 된 수의(壽衣)를 장만하는 일이야말로
불효(不孝)가 아니라 최고(最高)의 효도(孝道)입니다. 수의(壽衣) 중에서도 윤년수의(閏年壽衣)는
탈이 없고 손이 없어 부모님의 무병장수(無病長壽)를 기원(起源)하는 최상(最上)의 수의(壽衣)로 손꼽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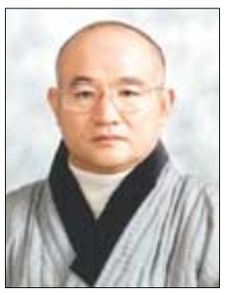
품 명	구 성	재 질	가 격
특 1호 대마 A급	남 21종, 여 20종	중국 기계직	550,000원
중 1품 안동포(중국)	남 21종, 여 20종	중국 수제직	1,700,000원
정 1품 안동포(국산)	남 21종, 여 20종	안동 수제직	4,200,000원

※ 멧베는 별도입니다.

가가수의 | www.OKhemp.com | 서울시 은평구 응암 4동 721-10 Tel : 02-375-6495 / H · P 011-9947-2750
고객센터(무료) 080-2002-4468

■ 일승종 올해사업 확정

"아량과 포용으로 불국정토 이루자"



일승종(총무원장 혜정·사진)은 12월 29일 신임 감찰부장에 대성 스님, 신임 재무부장에 정휴 스님을 임명하는 등 총무원 부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또 일승불교대학 부학장에 봉덕 스님, 비구니회 회장에 법륜 스님, 전남교구 종무원장에 효정 스님을 각각 임명했다. 궐석 중인 중앙종회의원직의 보궐선거도 실시해 자운 스님, 정오 스님, 정안 스님, 정지 스님 등을 선출했다.

총무원 등 대규모 인사
승가 노후 복지 확대

이어 일승종은 정기중앙종회를 열고, 2003년 결산안과 종단 소속 사찰의 분담금을 상향 조정한 분담금 인상안, 승가 노후복지 확대 등을 결의했다.

한편 일승종 총무원장 혜정 스님은 이날 '종도와 불자들에게 드리는 글(신년사)'을 발표했다.

혜정 스님은 이 글을 통해 "종단의 한해 계획이 아무리 멋지게 세워지더라도 종도들의 참여가 부족하면 실현되지 못하며, 종도들이 참여할 때 진정한 종단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면서 종도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또 스님은 "혼탁한 세상을 치유해야할 불교계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다"며 "불교지도자와 불자들은 자신의 이익에 앞서 이웃을 생각하는 넓은 마음을 갖고 매사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요즘의 경제적 · 사회적 불안에 대해서는 "대해와 같은 아량과 포용으로 모두가 잘 사는 불국정토를 만들어나가자"고 강조했다.

박봉영 기자

주요 종단 소개책자 발간

종단협, 올해 5천만원 들여 한글판 제작

불교 주요 종단을 소개하는 홍보용 책자가 발간될 전망이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법장)는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 25개 소속 종단의 종지종풍과 연혁, 주요 사찰, 특징, 언론보도 기사 등을 책으로 묶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책자에는 각 종단의 역사와 주요 활동을 보여주는 사진도 함께 실릴 예정이다.

종단협은 1월 중순경 열리는 불기 2548년 1차 임시 상임이사회에서 이 안건을 다루며, 확정 되는대로 책자 발간을 위한 자료수집에 나설 방침이다.

그동안 소개책자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정체성이 불분명한 종단이 난립하고, 국제 불교교류가 활발한 상황인데도 불교종단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종단협은 올해 5천여만원을 들여 한글판을 제작하고 이를 관공서, 국제공항, 언론사 등에 우선적으로 배포하고, 각종 국제회의 등 국제교류와 국내 홍보용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영문판과 일본어 · 중국어판도 2005년과 2006년 연차적으로 발행할 계획이다.

책자 발간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원종단으로부터 특별분담금을 받고, 정부 보조금과 후원금을 유치해 충당한다.

종단협 관계자는 "종단협의회 소속 종단을 일목요연하게 소개한 자료가 전무해 그동안 국내 · 외 행사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 발간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소개책자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종단들의 특징과 주요 활동을 알리는 중요자료가 될 수 있도록 각 종단의 협조를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태고종 이라크戰 희생자 천도재

태고종립 동방불교대학(학장 정태혁)은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성북동 태고사에서 이라크전쟁 희생자의 영가를 천도하고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영산재를 봉행했다. 범패과 학생들의 졸업시연회와 겸해 열린 이날 행사는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상주권공, 중단퇴공, 관음시식 순으로 진행됐으며,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이 '평화'를 주제로 법문했다. 한편 불교학과 학생들은 같은날 설법대회를 열었다.



진각종 수원 유가심인당 헌공불사

진각종은 지난해 12월 26일 경기지역 교화를 위해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한 수원 유가심인당 헌공불사(낙성식)를 봉행했다. 혜일 총인을 비롯해 종단 집행부, 신교도 등 5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효암 통리원장은 "지역 포교 활성화로 종단의 위상을 높여줄 것"을 당부했다. 유가심인당은 412평의 대지에 건축면적 174평의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심인당과 자성학교, 법담실 등을 갖췄다.

진각종, 종립校 회당사상 교육 강화

법당 설립 · 교직원 신행활동 장려
CIP 확정…교학·교법 상징물 건립

진각종이 종립학교에 대한 종단의 포교와 회당사상의 교육을 강화해 나간다. 진각종 회당학원(이사장 진당)은 이를 골자로 한 정교실 운영개선안을 최근 확정하고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회당학원은 경주 위덕대와 대구 심인중 · 고, 서울 진선여중 · 고에 각각 심인당(법당)을 설립하고 교직원의 신행활동을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 또 이사장과 정교실장은 모든 행사에서 법의를 착용하도록 했으며, 종단과 종립학교간 복잡한 관련규정도 대폭적인 정비를 통해 간소화하기로 했다.

심인중 · 고와 진선여중 · 고의 경우 정교실장의 직급을 교감 보다 높게 조정, 정교실의 위상을 한층 강화했다. 교화교사단과 교화부를 신설해 정교실과 교무실의 연계를 늘려 가는 방안도 마련했다. 위덕대는 유명무실한 교화위원회를 활성화시켜 정교실의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다.

진각종은 이와 함께 종단의 교학 · 교법을 상징화 한 CIP(이미지 통합 프로그램) 정책도 확정했다. 확정안은 모든 종립학교에 회당 대종사의 사상과 교육이념을 나타내는 상징물을 세우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내년 8월까지 교기 제작, 상징물 설치 등을 통해 종단과 회당학원의 교육이념 체계를 심어 나가기로 했다.

위덕대는 이달말까지 위덕지역혁신센터 외벽에 '육자대명왕진언'을 새기고, 앞쪽 정원에는 오불의 상징으로 오봉탑을 건립한다. 또 내년 8월까지 만다라를 상징화한 교문과 4면에 '옴'자를 새긴 건학이념탑, 상징동물인 무소상을 세운다.

심인중 · 고교는 정보관 4층 옥탑부분 화강석에 금강륜상과 육자진언을 새기며, 서울 진선여중 · 고는 자연석으로 교훈탑과 종조 법어탑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광동 회당학원 전략경영팀장은 "21세기를 선도하는 학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중장기 비전안과 세부 중점과제를 점진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JGO 스리랑카직업센터 수료생 180명 배출

진각복지재단(대표이사 효암)은 지난해 12월 20일 제3회 JGO 스리랑카 직업훈련센터 수료식〈사진〉을 열고 컴퓨터 기초, 컴퓨터 활용, 영어 과정을 이수한 180명을 배출했다. 이날 행사에는 혜인 진각복지재단 상임이사(진각종 총무부장), 무외 국제불교연구소장, 김병관 한국국제협력단 스리랑카 사무소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종단소식

北에 기와 7만장 전달

천태종은 개성 영통사 복원을 위한 통일기와 4차분 7만장을 1월 12~13일 경의선 육로를 통해 전달한다. 당초 지난해 12월 8일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북측의 사정으로 연기됐었다. 한편 지금까지 천태종은 세차례에 걸쳐 26만장을 북측에 제공했으며, 5차(7만장)와 6차(6만장) 전달은 3월경 이뤄질 예정이다.

자성학교 교사연수

진각종은 제28기 자성학교 교사연수를 1월 14일부터 16일까지 평택 무봉산 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한다. '넓고 크고 둥글고 차게'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수는 진각종 포교부장 무외 정사의 교리강좌를 시작으로 율동배우기(정유탁 풍경소리 실장), 판지공예(이수정 종이공예 강사), 아동 발달에 따른 상담(안영진 한양여대 유아교육과 교수), 레크리에이션 배우기(전미경 한남대 사회문화과학대학원 교수), 마술(고선희 총신대 사회교육원 강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비구니회장 취임법회

미륵종 비구니회 초대회장 동성 스님의 취임법회가 이달 16일 정오 대구 제이스호텔 별관에서 열린다. 미륵종 비구니회는 이번 회장 취임을 계기로 비구니회법의 제정을 통해 비구니 스님들의 활동근거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종무행정 참여, 건전한 종책 제안 등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총지종 새 통리원장 선출

총지종 중앙종의회(의장 의강)는 현 법공 통리원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1월 14일 오전 10시 서울 총지사에서 제86회 임시중앙종의회를 열고 새 통리원장을 인준한다.

총지종은 종령(종정에 해당)이 통리원장을 지목하고 이를 중앙종의회에서 인준하는 형식으로 통리원장을 선출하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총지종은 1월 13일 서울 총지사에서 신년하례 법회 및 스승퇴임식을 개최한다. 이번에 퇴임하는 스승은 법정 정사 등 5명이다.

박봉영 기자

진각종 5~11일 새해 불공

진각종은 1월 5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총인원을 비롯해 해외심인당, 전국 심인당에서 새해대서원불공을 올린다. 총지종도 같은 기간 서울 총지사를 비롯해 전국 사원에서 새해대서원불공을 봉행한다.

진각종과 총지종의 새해대서원불공은 국가 안정과 산업 발전, 경제 안정, 소원 성취, 재난 소멸 등을 발원하는 불사로 매년 1월 첫째주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열린다. 이는 "일년의 행복함이 새해불공에 있다"는 진각종조인 회당 대종사와 총지종조인 원성 대종사의 유훈에 따른 것이다.

박봉영 기자

인등 연등 전구의 혁신

귀의삼보하옵고 불자기업 기보전자산업에서는 기존의 인등전구와 연등전구의 단점(짧은수명, 고유지비, 화재위험, 낮은견고성)을 보완하여 사찰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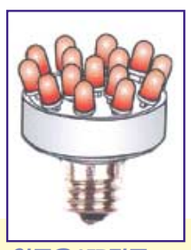
한번의 교체로 유지보수가 필요없는 반영구적인 인등 연등용 LED전구로 바꾸어보십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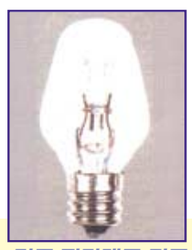

인등용 LED전구


기존 필라멘트 전구용 인등

특징
- 기존 설비에 전구만 교체 사용 가능하며 비용이 절감 됩니다.
- 필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수명이 반영구적 입니다.
- 발광 효율이 높고 소비전력이 낮아 유지 관리비가 감소 합니다.
- 반도체로 되어 있어 가열로 인한 화재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 전구 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습니다.


실용신안등록증


연등용 LED전구


기존 필라멘트 전구용 연등

특징
- 일반 소켓 220용에 다용도로 사용할수있습니다.
- 별도 전선 교체없이 전구 교체 가능합니다.
- 기존의 전구 소켓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 안정된 전원을 공급 할 수 있습니다.
- 다 방향으로 빛을 조명 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등록증

제품문의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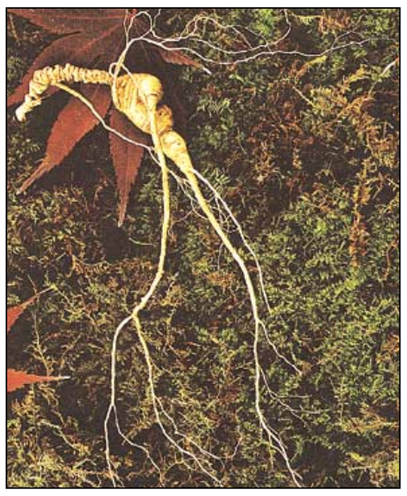
황금 LED 조명 – 기보전자산업 서울시 종로구 장사동 173(세운상가 가동 가열 특 3호)

TEL : 02)5566-9098,7550 FAX : 02)2266-7557 E-mail : kibosa@kornet.net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분석 51160-150)
심마당 長腦山蔘



◇일터불심이 새해 사업 구상에 지혜를 모으고 있다. 사진은 5개 직장 · 직능 연합회 실무국장이 본사 편집국 회의실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이충훈, 김진홍, 박창식, 안홍부, 김대원) 사진=박재완 기자

법회 중심 전방위 활동 "준비됐어요"

2004년 일터불심의 각오

좌담

참석자

- 김대원(전국산악인불자연합회 사무총장)
- 김진홍(대한민국경찰불교회 사무국장)
- 안홍부(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사무국장)
- 박창식(철도청불교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
- 이충훈(전국금융단불자연합회 총괄간사)

새해 일터불심은 신행의 방점을 어디에 둘까? 몸집은 훌쩍 커 버렸고, 체형에 맞는 옷도 갈아입어야 한다. 그렇다면 갑신년을 맞은 일터불자회는 1년간 몸만들기에 어떤 방안을 강구할까. 지난해 12월 29일, 직장 • 직능불자연합회 실무국장 5명에게 그 비책을 들어보았다. 좌담은 △신년사업 구상 △일터불자의 역할 △특성화된 신행 프로그램 개발 △회원 노령화 현상 극복 △연합회간 연대사업 및 내부반성 등 다섯 부분으로 나눠, 직장불자회 활성화를 위한 목소리를 들었다.

▼2004년 사업기조와 중점 사항은?

김대원= 조직 정비와 확대에 있다. 그간 활동이 부진했던 지역회를 활성화하고, 미결성된 지역에 산악회 출범을 독려할 생각이다. 불교발전을 위한 사업도 벌인다. 불자들만의 모임이 아닌 일반인까지도 포용하는 단체로 자리매김시킬 계획이다.

안홍부= 2004년은 공불련 집행부 2기 2년차다. 마지막 해다. 중앙부처 및 시도단위 불자회 조직 마무리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조직 확대차원의 사업은 올 한 해로 정리할 생각이다. 추진방향은 그간 미흡했던 정부 산하 투자기관 불자회 창립을 지원한다. 중앙부서별로 불자모임 결성을 유도하고, 불자회 운영 노하우를 전수한다.

박창식= 철불협은 4월 개통되는 고속철도 준공식에 맞춰 '철도 무사고 기원법회'를 범종단 차원에서 봉행할 계획이다. 개통역사에서 법회를 열어, 지역 회원과 사찰을 한데 묶는 계기로 활용할 방침이다. 정기 수련회도 짜임새 있게 진행한다. 우선 임원진 중심의 워크숍을 분기별로 개최해 철불협의 발전방향을 잡아나간다.

김진홍= 전국 101곳 경찰불자회의 내실화를 다지는 데 역점을 둔다. 2004년에는 조직 확대를 잠시 미루고, 신행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이런 차원에서 '참불자 되기 운동'을 전개해 경찰불자들의 신심을 북돋운다. 또 큰 호응을 얻은 변사자 영가천도법회를 각 관서별로 봉행토록 권장한다.

이충훈= 무엇보다도 회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자리를 마련하겠다. 이래야만 법회도 활성화될 수 있고, 미창립 금융기관 불자회 결성 유도가 가능하다.

▼지난해 일터불자회의 화두는 '내실화'였다. 금년에는 어떠한 방안들이 계획되고 있는가?

이충훈= 지속적인 법회 봉행이 내실화의 출발이다. 다른 것 필요 없다. 산업은행 불자회의 경우, 단 한 사람이 모여도 법회는 봉행한다. 이것이 중요하다.

김진홍= 맞다. 첫째도 둘째도 법회 활성화다. 지도법사가 없다고 법회가 안 되는 것이 아니다. 스님이 없어도 법회를 봉행할 수 있다. 이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자체 법요집 제작, 이동 가능한 불상 봉안 등의 방법이 뒤따라야 한다.

박창식= 철불협은 조직정비에서 내실을 기하겠다. 현재 재경, 동부권, 중부권, 남부권 등 4개 지역을 담당 운영위원장이 중심이 돼 합동법회를 정례화 할 생각이다. 또 최소한 분기별로 가을 성지순례를 지역 사찰과 연계해 권역별로 진행코자 한다.

안홍부= 회원들을 위한 교리강좌도 한 방법이다. 그간 일방적인 법문 전달 방식의 법회는 불교기초교리를 배우는 데 장애요소가 됐다. 체계적인 교리강좌를 마련, 지역별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봉사활동의 강화도 요구된다. 회원 간 협력심 제고, 불법의 실천에 이만한 방법은 없다. 그것이 바로 포교다. 이는 불자로서의 자부심을 높이고, 또 다른 신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김대원= 내실화에 성공한 모델을 찾아야 한다. 산악인불자련의 경우, 영 · 호남 화합을 위한 산행법회를 봉행해 큰 호응을 받았다. 이를 전국 6개 권역별로 확대하고, 산상법회를 상설화할 계획이다.

▼그간 직장불자들은 일터를 생활불교의 마당으로 넓혀왔다. '거사불교'의 신행바람을 일으켰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대원= 길게 보는 '거시불교'를 제창한다. 이제는 큰 불교, 멀리 보는 불교를 만들어야 한다. 직장불자의 역할이 이 때문에 크다.

안홍부= 앉아서 법문을 듣는 시대는 끝났다. 일터불교는 역동적인 신행을 보여왔다. 특히 그간 재가불자 신행이 기복신앙이었다는 편견을 없앴다.

박창식= 일터불교는 불교의 생활화에 큰 기여를 했다. 가족 중심의 신행문화를 조성했고, 치마불교를 '바지바람'으로 바꾸었다.

김진홍= 경찰불교의 경우, 입주업체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의 유대강화에 교량이 됐다. 또 경찰불자들은 불교의 외연을 넓히고, 불교를 외호하는 호법신장이었다.

이충훈= 거사불교 바람의 진원지는 금융단불자연합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찰 운영에서도 재가불자 신행에서도 직장불자회는 하나의 중심축이 돼 왔다.

▼직장 · 직무상 신행여건이 다른데….

이충훈= 금융 기관 연수시설을 이용, 초빙해 교리 공부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5일 근무제 시행과 최근 각광 받는 '웰빙(Well-Being)' 등의 시대 흐름을 반영해 함께 즐기는 신행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가장 편안하고 자유로운 법회를 계획해 미래불자를 양성하는데 진력하겠다.

박창식= 철도불자들의 근무여건은 제각기다. 이러다보니 모이기가 힘들다. 이를 위해 12명의 포교사가 중심이 된 전법팀을 구성, 사이버 포교에 나서겠다. 모든 철불협 소식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제공, 사이버 불교공동체를 만들겠다.

안홍부= 직장불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배경에는 사이버 포교 여건이 잘 조성됐다는 점이다. 이미 구축된 직장불교단체 홈페이지를 상호 링크해 활발한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김대원= 직능단체의 경우, 개인 사업장 중심의 신행활동이 주류를 이룬다. 이들을 연합회 차원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각 지역 불교대학 동문회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할만 하다. 이들은 불자회에게 풍부한 인적 자원을 제공해주는 인력뱅크이기 때문이다.

▼젊은층을 끌어안을 신행프로그램 개발에 지혜를 모아야 하는데….

김대원= 중장년으로 구성된 모임의 틀을 깨야 한다. 청년층을 안을 수 있도록 중앙에서 청년부와 학생부를 둘 방침이다. 불교계 유치원과 연계해 어린이에게도 산상법회의 즐거움을 만끽하게 할 계획이다.

김진홍= 경찰불자는 현장에서 산다. 점심시간 등을 활용해 '자투리 법회'를 봉행하겠다. 또 전 · 의경 포교에 심혈을 기울이겠다. 가장 편안하고 자유로운 법회를 계획해 미래불자를 양성하는데 진력하겠다.

박창식= 철도불자들의 근무여건은 제각기다. 이러다보니 모이기가 힘들다. 이를 위해 12명의 포교사가 중심이 된 전법팀을 구성, 사이버 포교에 나서겠다. 모든 철불협 소식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제공, 사이버 불교공동체를 만들겠다.

안홍부= 직장불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배경에는 사이버 포교 여건이 잘 조성됐다는 점이다. 이미 구축된 직장불교단체 홈페이지를 상호 링크해 활발한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김대원= 직능단체의 경우, 개인 사업장 중심의 신행활동이 주류를 이룬다. 이들을 연합회 차원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각 지역 불교대학 동문회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할만 하다. 이들은 불자회에게 풍부한 인적 자원을 제공해주는 인력뱅크이기 때문이다.

▼젊은층을 끌어안을 신행프로그램 개발에 지혜를 모아야 하는데….

김대원= 중장년으로 구성된 모임의 틀을 깨야 한다. 청년층을 안을 수 있도록 중앙에서 청년부와 학생부를 둘 방침이다. 불교계 유치원과 연계해 어린이에게도 산상법회의 즐거움을 만끽하게 할 계획이다.

안홍부= 직장연합회체는 그 성격을 달리 해도 각 지역별로는 연합행사를 할 수 있다. 이는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종횡으로 만나야 한다. 인드라망처럼 뭉쳐야 일터불자의 힘이 최대화 될 수 있다. 일터불교의 신행의 방점은 종횡으로 만나 인드라망의 구성이다.

김진홍= 자체적인 직장불교 포교사를 육성해야 한다. 우리가 직접 포교사와 지도자를 길러내자.

조직확대 · 내실 다지기 기조 유지
사이버 공간 포교기반 적극 활용
체계적인 교리 · 수행체험 기회 마련

신세대 동참, 법회 문화에 '활기' 주입
인드라망 구축으로 연합활동 배가
전문 지도자 · 포교사 양성 시스템 추진

'어린이-중 · 고생-대학생-중장년'으로 순환되는 인적 구조가 구축돼야 한다.

안홍부= 젊은층의 특징은 부부와 아이들과 여가생활을 한다. 불교문화답사 등과 같이 '소풍가는' 가족법회를 개설해야 한다. 젊은층의 문화코드를 읽어내 융통성 있는 법회문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박창식= 사실 젊은 불자들은 많다. 문제는 방법이다. 봉사를 통한 신행의 맛을 보게 해야 한다. 철도대학 불교학생회과 정기적인 만남의 장을 마련, 철불협을 이끌어 '어린이-중 · 고생-대학생-중장년'으로 순환되는 인적 구조가 구축돼야 한다.

안홍부= 젊은층의 특징은 부부와 아이들과 여가생활을 한다. 불교문화답사 등과 같이 '소풍가는' 가족법회를 개설해야 한다. 젊은층의 문화코드를 읽어내 융통성 있는 법회문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박창식= 사실 젊은 불자들은 많다. 문제는 방법이다. 봉사를 통한 신행의 맛을 보게 해야 한다. 철도대학 불교학생회과 정기적인 만남의 장을 마련, 철불협을 이끌어 인재로 키울 계획이다.

김진홍= 경찰대학 불교학생회, 중앙경찰학교, 신임 경찰, 전의경 등의 교육에 중점을 두겠다. 수료직전에 1박2일 산사체험을 마련, '짧은 출가'를 경험케 하고 지역 사찰 스님과 인연을 맺도록 돕겠다.

이충훈= 우선 적극적으로 직장불자회를 홍보해야 한다.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알려야 한다. 신입사원의 종교도 파악하고, 건강에 관심이 많은 이들에게 '기체조', '선체조'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연합회간 연대사업은 어떻게 구상할 수 있는가. 또 내부 반성과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안홍부= 직장연합회체는 그 성격을 달리 해도 각 지역별로는 연합행사를 할 수 있다. 이는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종횡으로 만나야 한다. 인드라망처럼 뭉쳐야 일터불자의 힘이 최대화 될 수 있다. 일터불교의 신행의 방점은 종횡으로 만나 인드라망의 구성이다.

김진홍= 자체적인 직장불교 포교사를 육성해야 한다. 우리가 직접 포교사와 지도자를 길러내자.

안홍부= 직장불자회를 자기 종단 · 사찰 소속으로 사유화하려는 스님과 종단의 인식도 개선돼야 한다. 이 같은 차원에서 직장불자회 스스로 직장불교를 전담할 직장 포교사를 육성해야 한다.

박창식= 맞다. 우리는 어느 종단의 신도회가 아니다. 물론 개인회원들이 종단 또는 사찰의 신도일 수 있지만, 직장불자회 조직은 범종단, 범불교적인 신행단체다. 이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리=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 참선은 아무나 하나 ♪♬

禪

참 선 교 육

시간복, 건강복, 재복 등 세가지를 갖춘 후에 대신심, 대분심, 대의정이 받쳐주어야 화두일념으로 확철대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선교육」 책은 재미있으며 깊이가 있고 바른 신심을 일으켜 바른 발심 바른 참선을 하는데 길잡이가 될것입니다.

1권 참선의 목적, 종류, 자세는 물론 수행자가 택해야 할 음식이나 장소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 자세함이 지나쳐 세심할 정도인데, 참선을 할 때, 양말을 신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언급할 정도로 실제적인 내용. (420쪽)
[참선의 목적(참선의 정의, 참선의 역사, 참선의 목적), 참선의 종류(범부선- 참선과 인과 법, 외도선, 소승선, 대승선, 최상승선), 참선의 자세(자세의 종류, 참선 전후의 운동, 호흡하는 법, 참선시 세부적인 요령), 참선과 음식(참선과 채식, 육식-참선의 적!, 선인체 상식), 참선할때 마음가짐, 참선전에 해야할 일, 참선할때 방귀를 참으면 어떻게 되나요, 왜 한철 90일 정진인가? 참선하면 얼굴이 바뀌는 이유? 인체 세포가 바뀌는 기간, 참선의 장소(토굴장소는 어디가 좋은가?, 토굴생활 하는 법) 선사와의 백문백답(진제선사와 백문백답)

2권 화두에 대한 정의와 참구법, 선사법문, 조사경책 등을 실었고, 수행에서 흔히 겪게 되는 장애에 대한 해법을 소개. (432쪽)
[화두의 정의, 화두 참구법, 화두의 소提와 單提, 화두,생각,망상, 선어록(禪語錄), 禪법문 의식, 법거량 법도, 사빈주, 동념즉괴, 정념즉괴,임제의 법로, 선문답의 공방, 禪師 법문, 근일 禪師 법문, 선지식을 찾아라, 승당에 내려가 일깨워 주는 법, 실제 단련법을 제시함, 교묘하게 전환하라, 관문을 부수고 눈을 열어주어야 한다, 도 닦는 것과 외부의 조건은 어떤 관계인가?, 근기란 무엇인가?, 도에 쉽고 어려움이 있는가?, 도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지난날의 업을 어떻게 관찰해야 하는가?, 참선은 아무나 하나, 핑계없는 무덤은 없다, 조사어록에 나오는 복, 참선은 불교도 초월하는 것이다, 참선과 주파수, 기분 주파수, 편안하게 해주는 주파수, 수면과 주파수, 참선의 다섯가지 믿음, 화두참선과 염불수행, 왜 정진력을 길러야 하는가, 이십 대 3년 정진을 삼십 대 10년과 안바꾼다, 발심 수좌의 분류, 魔의 원인, 잘못 알고있는 魔, 재미있게 설명한 魔, 원담선사와 백문백답, 정일선사와 백문백답, 지리산영명선사와의 백문백답]

3권 선종 발달사, 부처님 부터 현대까지 전법 받은 스님 일대기 (415쪽)
3권 교정중 곧 발간 예정 (인도사 1조~28조, 중국사 28조~56조, 한국사 57조 태고보우 - 경허, 만공, 전강, 송담선사까지)

기존에 나와 있는 禪 서적과 완전히 다른 조계종 수선회 참선교육 교재 ①, ②권이 출판되었습니다.
사찰내 불교서점이나 영풍, 교보문고 등 대형서점 불교코너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에 계시는 분은 본회로 연락 주시면 등기속달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 가격 각권 1만5천원(국민은행 023-01-0565-179) 도서출판(禪)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19 전화 732-5960

대한불교조계종 修 禪 會

2000만 불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성종사와 (주)비엔비 기업이
전자종소리+전자시계+오디오+마이크+청동범종(25관) 이 모든 기능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21세기 불가의 신개념 전자종틀 가릉빈가』



※ 법당에 가릉빈가를 설치하시면...

◇법문을 하실 경우 종 밑 스피커에서 울려나오는 소리가 종속을 통하여 다시 울려퍼지므로 장엄한 법문을 불자님들께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가릉빈가에 마이크 및 스피커(3개)를 설치 할 수 있어 따로 법당에 마이크 시설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독경 및 법문 테이프, 명상가요 등을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있으므로 따로 오디오를 마련하실 필요가 없으며, 전자시계가 부착 되있으므로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종을 제외한 종틀만 구입이 가능하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종틀 교환도 가능합니다.
◇원음에 가까운 종소리를 가릉빈가를 통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실외에서의 종소리는 실물의 종소리와 같은 생생한 음향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전자음향종 및 실제 종을 결합한 최 첨단의 제품으로 법회시에도 일반종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간문화재 원광식

● 문의처 : 02-733-6141(代) 032-772-5451(代)

● 제 품 명 : 가릉빈가
● 제품특성 : 국내 최초로 MP3를 내장한 전자종 시계로 100여 M 정도에서도 웅장한 종소리 및 녹음한 음원(독경, 명상음악 외) 등을 45분 동안 맑고 웅장하게 들을 수 있으며, 마이크 앰프(스피커 3대)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대법회 등에서도 사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제품기능 : 출력 50 -100W 리모트 컨트롤 사용(시계변경, 알람시간조절, 임의적 작동, 볼륨 조절, 기타), 디지털 시계 기능, 스피커 크기 - 6INCH 3개, MP3기능 - 45분(종소리 20초, 독경 40여분 장착), 오토리버스 기능, 볼륨조절 기능, 메모리 기능 - 매시간 타종 기능(타종 횟수 조절 가능) - 알람기능 (3번 작동가능. 예: 오전, 오후, 저녁)
전원부 : DC24V (3A-5A 10), 마이크 앰프 기능
● 사용방법 : 리모콘으로 작동이 이루어져 모든 분들이 쉽게 사용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저있습니다.
● 소비자가 : 4,500,000원(종 25관 + 종틀 + 스피커 3개 + 기타 = 일체포함)
● 종제작업체 : 성종사 ● 전자 종틀제작업체 : (주)비엔비

전국지사 및 판매점, 판매사원 모집 1. 초도자금 300만원 개설 가능 2. 무점포 창업가능 3. 불가에 뜻을 가지고 있는분 우대 www.bellkorean.com

“말은 진실하게 행동은 떳떳하게”

티베트 불교학 권위자
로버트 써먼 교수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불교학자로서, 서구 사회에 티베트 불교와 불교사상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로버트 써먼 교수. 써먼 교수는 현재 미국 콜럼비아대학 종교학과에서 제이 쫑카파 석좌교수로 티베트 불교를 가르치고 있으며 배우 리처드 기어가 설립한 뉴욕의 티베트하우스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또한 그 자신이 티베트 승가에 출가하여 직접 수행했던 전력도 가지고 있다. ‘인도 문명에서의 종교’를 주제로 한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인도 뉴델리를 방문한 로버트 써먼 교수를 지난 해 12월 20일 인디아 인터내셔널 센터에서 만났다.

▲어제 교수님께서는 강연에서 물질주의와 자본주의의 폐해, 폭력의 사용 등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21세기의 사회 전반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전반적으로 매우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수백년간 사회를 지배해 왔던 제국주의, 물질주의 등은 매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요. 환경문제, 전쟁과 폭력 등은 이를 잘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 질서는 결국 스스로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내부의 자기 모순이 너무 극심하기에, 필연적으로 그 내부에서 개인들의 충돌을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제국주의를 비롯한 파괴적인 체제들은 물러갈 것이고, 보다 인간적이고 서로를 존중할 줄 아는 세계가 도래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간 스스로의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연합니다. 최근 폴란드의 메니 밀니치가 쓴 책을 읽고 크게 공감했습니다. 책의 요지는 ‘진리속에 살자’는 지극히 단순한 이야기였지요. 이 개념은 간디가 말한 사티야그라하(진리추구)와도 비슷한 것입니다. 사회 전반의 변화는 물론 체제의 변화이기도 하지만, 이는 또한 개개인의 변화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소위 말하는 ‘혁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노력입니다.

▲그것이 교수님께서 책에 쓰신 ‘자기 안의 혁명’이라는 개념과 통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하고자 한 ‘자기 안의 혁명’이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사회혁명 등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지요.

▲‘진리속에 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당신의 진짜 마음을 이야기 하십시오. 매우 솔직해져야 합니다. 만약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면 벌거벗었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할 말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진실에 입각한 것이라면, 그 말을 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회적, 정치적인 이슈에도 해당되는 이야기 입니다. 아주 기본적으로는 투표에 참여해서 바른 의사를 밝히는 일

내부적 모순에 세계 체제 붕괴
서로 존중할 줄 아는 시대 도래
솔직하고 적극적인 삶 살아야

부터 시작되는 것이지요. 무엇인가 진리를 거스르는 일이 행해지고 있다면 과감하게 일어나서 그것은 옳지 못하다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환경문제, 빈곤문제, 전쟁 등 우리는 참으로 해야 할 말도, 해야 할 일도 많은 세상에 살고 있지요.

▲요즈음 한국에서는 많은 불자들이 ‘불교 환경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진리 속에 사는 하나의 구체적인 방법이 되겠군요.

한국의 불자들이 환경운동에 동참하고 있다니 기쁩니다. 이 세상은 모두 부처님의 ‘정토’입니다. 이것은 정신적이고 추상적인 의미에서 뿐 아니라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땅을 맑고 깨끗하게 가꾸고 지키는 일은 불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며, 진리에 입각한 행동입니다.

▲교수님께서는 티베트 불교를 전공하는 학자인 동시에 티베트 독립운동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티베트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가까운 미래에 해결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상황은 별로 좋지 않지만, 중국은 티베트 문화 말살정책과 식민주의를 포기하고 모든 티베트인들이 원하는대로 자유티베트를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티베트를 유럽에서 스위스처럼 일종의 비무장 중립지대, 또는 완충지대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티베트 문제는 멀지 않은 장래에 평화적인 해결을 보리라고 기대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달라이 라마께서도 매우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한국 불자들도 달라이 라마를 뵙고 싶어합니다. 몇 년 전 달라이 라마 성하의 방문이 무산된 적도 있었지요.

그래요. 그 때, 많이 실망하고 놀라기도 했었습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한국 정부의 책임이라고는 생각

‘환경운동’ 진리에 입각한 행동
달라이 라마 방한 무산에 실망
티베트 의학 보급에 앞장설 것

하지 않습니다. 달라이 라마의 방한이 무산된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의 정치적 위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평화운동가 이며 인권운동가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세계 평화와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달라이 라마에 대한 배려가 조금은 있었어도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마음속에 늘 담고 생활하시는 붓다의 가르침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순간 순간에 최선을 다하며 살자, 죽음은 늘 내 가까이 있으며, 어느 순간에도 죽음이 임박할 수 있다는 점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새해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 새해는, 한국 불자들에게도 친근한 약사여래불의 뜻을 널리 펼치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소장으로 있는 뉴욕의 티베트하우스는 티베트 의학과 티베트의 약품을 서구 사회에 널리 알리고 보급하는 일에 앞장설 것입니다. 이것은 티베트를 경제적으로 돕는 일이 될 뿐아니라, 각종 오염과 화학약품으로 인한 질병이 만연한 서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도 될 것입니다.

▲교수님의 새해 목표가 원만하게 성취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한국 불자님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도 뉴델리= 이지은 통신원



◇세계적인 불교학자이자 티베트 불교수행자인 로버트 써먼 교수는 “21세기의 인류와 불교의 미래는 매우 희망적이다”고 말했다.





◇지난 12월 19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인도 문명에서의 종교’ 주제의 학술회의에서 강연하는 써먼 교수.

‘인도 문명에서의 종교’ 국제회의
써먼 교수 — “불교는 인간 마음을 절대주의에서 벗어나게 하는 교육체계” 주장

지난 12월 18~21일, 나흘간 인도 뉴델리의 ‘친마야 미션’ 강당에서는 ‘인도 문명에서의 종교’를 주제로 한 국제회의가 개최되었다. 뉴델리의 ‘사회개발연구센터’와 ‘국제종교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국제회의에는 세계 20여개국으로부터 250명 이상의 학자들이 참석, 인도 문명권에서 발생했거나 인도 사회에 존재하는 각종 종교에 대한 연구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나흘간 59개의 주제를 놓고 패널 토의가 계속되었으며, 로버트 써먼 교수를 비롯하여 인류학자인 맥킴 매리엇 교수, 인도 란치 대학교 전 총장인 람 다얄 문다 박사, 타이 시투 림포체 등 많은 학자, 종교인들의 강연이 이어졌다.

12월 19일 오전에 있었던 강연에서 써먼 교수는 현대 사회에 만연해 있는 ‘절대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타인을 고려하지 않는 지나친 자기중심주의가 모든 사회 갈등의 근원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인과율을 바탕으로 자신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절대적 자아관’을 분쇄할 수 있는 ‘불교적 인식’에서 찾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불교는 ‘인간 마음을 절대주의에서 벗어나게 하는 과학적인 교육체제’라고 정의한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만이 다원성과 다양성이 담보되는 사회를 건설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구성원을 길러낼 수 있다고 현대 사회에서의 불교의 의미를 부여했다.

50여분간 계속된 강연 내내 써먼 교수는 강력한 흡입력으로 청중들의 주의를 집중시켰고, 특유의 유머로 십여번의 폭소가 터져나왔다. 그야말로 넘치는 힘과 열정으로 가득한 강연이었다. 그의 강연을 들은 한 참가자는 ‘지금까지 들어본 것 중 가장 간결하고 획기적인 방식으로 불교의 본질과 불교와 사회의 관계를 설명한 강연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 1가정 1컴퓨터 시대" "전 국민 네티즌 시대"

귀사의 홈페이지로 승부를 걸어 보세요

잘 꾸며진 홈페이지하나만 있으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발전합니다. 지금껏 홈페이지제작을 망설여 오셨다면....

(주)아이코스솔루션과 상담하십시오.

■ 컴퓨터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 별도의 인건비를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 컴퓨터를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 적은 투자로 엄청난 홍보가 시작됩니다.

고 품격의 홈페이지를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저희 제작진은 최저 60만원 부터 500만원까지 다양한 형태의 홈페이지를 귀사의 기획의도에 가장 알맞은 맞춤형 제작을 위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서버 대여를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저희 아이코스솔루션은 서버 임대사와 제휴를 통해 웹 호스팅 기초비용을 월 5,500원(리눅스) 월 11,000원(NT)부터 제공해 드리며 할인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홍보 기획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사업홍보물 기획은 전문가에게 맡겨 제대로 기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코스솔루션은 최상의 기획전문가를 통해 페이지당 기본 50,000원 부터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티즌의 마음을 여는 홈페이지 기획, 제작 전문업체
㈜아이코스솔루션 http://www.eyecos.com
☎ 031)836-0992 FAX : 031)836-0993 E-Mail : eyecos@eyecos.com

육 법 등(六法燈)




용암사(서울 광진구) 대웅전에 장엄된 육법등

특 징
1)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셨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 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
2) 더러운 곳에서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
3)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음
4) 등의 재질을 신주 및 아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활용범위
1)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명 및 장엄등
2) 지장단 영가천도를 위한 49재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
3)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
4) 예식장의 주례단 단상의 장엄 및 촛불 대용으로 활용가능
5) 장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화환대신 장엄 가능함
6) 등 장엄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타장소

㈜동원전기 주 소 :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설운리 290-1
전 화 : 031)541-1417 / 팩 스 : 031)541-1419
총판 및 대리점 모집

김광식 교수 **특별기고**

조 · 태분규 50년, 미완성의 불교개혁

'화합과 발전' 위한 역사의 교훈

올해는 1954년 5월 20일 이승만 대통령의 정화유시 이후 조계종 · 태고종 간의 분규가 일어난 지 50년이 되는 해다. 분규는 50년 동안 이어지며, 불교의 대사회적 위상하락 등을 가져왔다. 분규의 배경과 과정 그리고 마무리 되지 않은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아픔' 들을 되짚어본다.

〈편집자주〉

⊙정화인가, 법난인가, 분규인가?

1954년 5월 20일, '절에 있는 대처승은 절을 떠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유시'(담화)로 인해 불교계는 세칭 비구승과 대처승으로 나뉘어 조계종단의 운영권, 관리권, 승려의 자격을 두고 무려 8년간이나 내분을 치렀다. 내분이 일단락이 된 1962년 4월, 통합종단이 출범하였으나, 6개월 후 분규는 재연되었다. 그리하여 대처승측이 태고종을 설립한 1970년 5월까지 그 갈등은 지속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조계종과 태고종 간의 갈등은 완전 해소되지 않았으며 현재에도 그 불씨는 살아 있다.

이에 이러한 내용의 사실, 사건, 움직임, 정황을 어떻게 불러야 할 것인가? 지금껏 비구승측인 조계종단에서는 불교정화, 정화불사, 정화운동으로 칭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하는 태고종에서는 법난으로 부른다. 한편 당시 사회, 언론에서는 불교계의 분규라고 지칭하였다. 이렇듯이 그 정황의 명칭은 아직도 공감대가 없다. 이는 그 사건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의 현실인식이 극단적인 다름에서 나왔다.

정화, 법난, 분규는 그 사실과 내용을 설명하기에는 미진함이 있다. 우리는 비구승과 대처승, 혹은 조계종단과 태고종단도 당시 불교계의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였고 자신들의 중심 ·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불교개혁'의 관점이 있었음을 상기할 수 있다.

⊙ 왜 일어났는가?

사건은 왜 일어났는가? 거시적으로 보면 그 원인은 일제의 식민통치에 대한 후유증이었다. 일제에게 국권을 강탈당하자, 불교도 식민지불교 체제로 재편되었다. 이에 불교는 종지, 종풍, 신행, 운영, 관리 등 모든 분야에서 일제의 간섭을 받아, 불교계 전 분야에 일본불교의 영향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당시 비구승측은 승려의 결혼은 파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불교청년들에서 시작된 승려의 결혼은 해방직전에는 승려의 대다수가 수용하였다.

문제는 1945년 8 · 15해방 이후부터 본격화되었다. 당시 해방공간 불교계는 식민지 불교의 극복이라는 과제를 인식하고, 그를 위한 불교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그 이행을 둘러싼 보수, 진보세력 간의 이해관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런데 그 갈등의 초점중 하나가 대처승들이 종단의 주도권을 쥐고 있어 불교개혁에 미온적이라는 논란이었다. 그 갈등은 첨예화되어, 종단 집행부를 부인하고, 별도의 총무원을 차리기도 하였다. 결국 불교개혁은 중도하차하였는데, 당시 수좌들은 불교혁신연맹에 가담하였다.

이처럼 교단 차원의 불교개혁이 성사되지 못하자, 수좌들은 독자적인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를테면 이성철, 이청담이 주도한 봉암사결사와 송만암이 주도한 고불총림이다. 그러나 이 개혁은 6 · 25전쟁으로 인해 단절되었다.

요컨대 해방공간에서의 식민지 불교의 극복, 불교개혁의 성과는 전혀 나타나지 못했다. 이에 교단개혁을 구상하는 승려들의 불만은 높아갔다. 이때 불교계 내부의 모순을 부채질한 촉발제가 농지개혁이었다. 1950년 5월에 단행된 개혁은 기존 절이 갖고 있었던 토지를 농민에게 넘어가게 한 혁명적인 변화였다. 당시까지만 해도 절의 농지에서 나온 소작료가 절의 유지, 운영의 주된 재원이었다.

이런 변동은 사찰의 재정을 궁핍하게 만들었다. 수행 장소인 선방의 문이 닫히는 것을 지켜보아 왔던 수좌들은 농지개혁으로 인해 수좌들은 이전 불만에서 새로운 과제인 생존 유지, 수행공간의 확보라는 문제를 떠안게 되었다. 수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시 종정인 송만암에게 건의서를 내고, 송만암도 그를 인정하여 종단 집행부에 처리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의지부족, 여건 미약, 개혁의 자세 미흡 등이 결합되어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바로 이러한 때에 이승만의 유시가 내려졌고, 그 유시는 폭발적인 위력을 갖고 전 불교계를 강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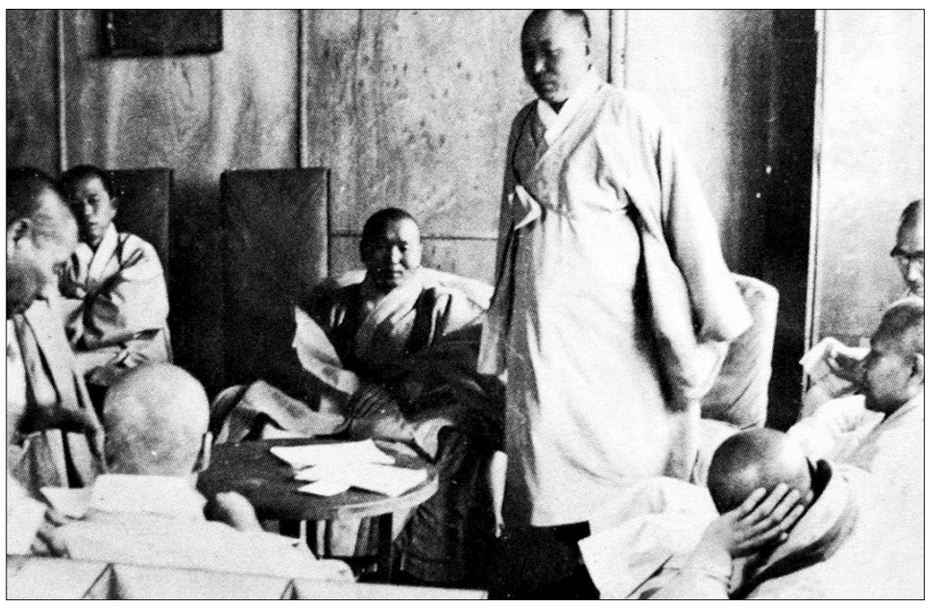
⊙전개과정

이승만의 유시가 내려지자, 비구승들은 불교정화를 이루려고 새로운 종헌질서를 내세웠다. 그에 반해서 대처측은 종단의 안정을 주장하고, 비구승들에게 사찰 40여개를 제공하고, 비구승과 교화승의 공존이라는 대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비구승측은 새 종헌에 의거 별도의 종단 집행부를 출범시켰다. 이승만대통령은 비구승 측의 논리에 힘을 실어 주는 유시를 지속적으로 발표, 종단 집행부인 대처승 측을 곤혹스럽게 하였다.

그러나 비구승, 대처승 양 진영은 자신의 주장만을 개진하였기에 중도적인 흐름은 존립하기 어려웠다. 그들의 논리에서 민감한 부문은 승려의 자격문제였다. 요컨대 비구승측은 결혼한 승려는 승려로 볼수 없다는 것이었고, 대처승측은 대처승도 교화승으로서 정식 승려 자격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1955년 2월에 가서는 양측이 승려자격 8대원칙을 합의하였다.

이에 그 자격을 갖춘 승려들이 모임을 갖고 새로운 종헌, 집행부를 출범시키고 점차 불교개혁을 추진하면 별 문제는 없었다. 마침내 공권력이 적극 개입한 사찰정화대책위원회가 등장하여, 양측 대표가 구체적으로 토의하였다. 그러나 합의가 완전성을 갖추지 못한 가운데 1955년 8월 12일 조계사에서 비구 측 중심의 전국승려대회를 기점으로 종단의 주도권은 비구 측으로 넘어 갔다. 이에 전국의 수천 사찰에서 대처승들은 가족들과 함께 거리로 나앉았다. 간혹 대처승은 공무원과 경찰에 의해 강제적으로 사찰에서 쫓겨났다. 이즈음 전국 사찰에서는 비구승, 대처승 간의 치열한 폭력이 전개되었다.

이어 사건은 사법부로 넘어간다. 이로부터 전국의 재판정에서는 사찰 운영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가리는 판결이 지속되었다. 재판을 하기 위한 사찰 재산의 매각, 사찰을 차지하기 위한 폭력배 동원이 나타났다. 이에 불교계 전체가 공멸한다는 우려, 4 · 19, 5 · 16 이후 군부정권의 강력한 통제라는 분위기하에 불교재건위원회가 등장하였다. 그 결과 1962년 4월, 양측이 합의한 통합종단이 출범하였으나 몇 개월 가지 않아 수포로 돌아갔다. 그리하여 1970년 태고종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양측의 갈등, 대립, 폭력, 재판, 재산 매각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1962년 통합종단을 완성한 비구, 대처 양측 대표 스님들이 종단 운영방향 등 제반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일제하 전통계승 · 대중화 조류 형성

해방 · 전쟁 이후 비구 · 대처 갈등 증폭

'이승만 유시' 소송 · 폭력의 기폭제

종교성 파탄 · 승단 타락 등 악순환

"진리구현은 목적 · 수단 일치로 가능"

⊙유산과 후유증

이 사건에 대한 제반 내용을 거시적으로 보면 식민지 불교의 극복이라는 과제의 해결 시도, 한국불교 전통에 대한 정체성 논의, 사찰 및 불교 문화재의 정비, 불교개혁의 당위성의 공감, 불교가 나아갈 방향의 확인 등 긍정적인 면이 전혀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수년 간 전개된, 노정된 숱한 모순은 실로 간단치 않았다. 우선 불교적인 정신과 방법이라는 근원을 뒤흔들게 하였다. 즉 목적과 방법이 일치되지 않았기에 불교라는 종교성을 파탄케 하였다. 이로부터 불교의 폭력성이 고정관념으로 따라 다니게 되었다. 다음으로는 불교발전, 불교개혁에서 출발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반대의 성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하는 점이다. 당시 기독교의 성장과 불교의 사회 위상 하락의 요인이 여기에서 왔다. 또한 승려들의 교육 부족, 질 저하, 수행정신의 퇴보 등 문제점도 제기됐다.

⊙전망

불교계가 이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고, 정변으로 인식할 때만이 이 사건은 우리에게 고귀한 성찰의 대상으로 승화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생각해 볼 것은 다음과 같다.

우선 불교의 진리와 이를 구현하는 현실 사이에 놓여있는 거리를 좁히려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불교개혁이니 종단 개혁이니 칭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석가세존의 입멸이후 끊임없이 지속되어온 과제이다. 불교를 단순히 진리의 가르침으로만 인식해서는 불교의 토착화, 불국토 건설, 불교대중화는 불가능하다. 불교적 이상과 현실을 연결시키려는 부단한 노력이 중요하다.

다음으로는 그 토착화, 연결노력은 불교적인 가치와 방법에 의해서 시도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법론적인 고민이 전제되지 않는 행동은 불교의 파멸이 있을 뿐이다.

불교의 목적과 수단이 반드시 일치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가 반드시 되새겨야 될 것은 지난 과거의 제반 역사와 사실을 정면으로 대하려는 치열한 역사정신을 키워나가야 한다. 지금껏 불교계에서는 역사, 현실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거리가 먼 것으로 이해한 흐름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자세야말로 반 불교적이다. 현실 역사 현상을 바로 보아야 한다는 그 자체가 부처님의 정법이다. 이와 같은 진리와 현실의 간격 좁히기, 불교적 가치와 수단이 함께 가기, 역사정신 키워가기 등 제자리를 찾아가려는 의식과 행동이 여기저기에서 움트기를 기대해본다.

〈부천대 교수〉

2004 갑신년 새해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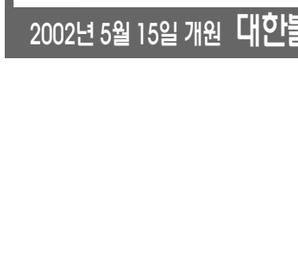
왕 암 사
주 지 자성
신도일동
충북 청원군 남일면 문주리 1구 425-1번지
TEL : 043)298-6584

광 덕 사
주 지 일봉
신도일동
충북 청주시 용담동 120-1번지
TEL : 043)258-3282

약 사 암
원 주 강청정심
신도일동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14-11번지
TEL : 043)222-0155

현대불교 충북지사
현대불교 충북지사장
청주, 청원 사암연합회수석부회장 일봉
TEL : 043)258-3282
H·P : 011-459-3282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본사
팔공산 동화사
조실 진제
주지 지성 금당선원
부주지 진담 선원장 지환
총무 재윤
기획정관
교무 현천 승가대학
재무 상원 강주 해월
사회 법륜
포교 혜경
호법 선광 대중일동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35번지
☎ 053)982-0101 팩스 053)985-4405
홈페이지 www.donghwasa.net

기도처 자연과 함께하는 자광원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보살 염불원의 특징

≫ 남한산성 자락에 위치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 날마다 부처님을 모시고 염불과 기도정진으로 마음을 닦으며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보내시도록 새로운 기도처를 마련하였습니다.
≫ 20년간의 무료 노인요양원인 사회복지법인 부처님 마을 자광원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전문지식에 의하여 설계된 노인을 위한 기도처 입니다.
≫ 외롭고 우울하게 혼자사는 노인 또는 부부노인중 한분의 거동불편으로 의 · 식 · 주 해결에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낙원입니다
≫ 자손들에게는 효도의 기회를 노인들에게는 안락한 여생을 제공하며 임종 시까지 정성껏 모셔드리겠습니다.
≫ 고부간의 갈등으로 고민하시는 분
≫ 출로계신 시아버님, 모시기가 어려우신 분 자광원에서 해결하여 드립니다.
위치 및 시설개요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16
◆대 상 : 만 65세 이상, 노환스님 또는 부부, 개인 등 거처하고자 하는 모든 불자
◆정 원 : 24명~30명 내외
◆시설개요 : 본건물→방규모(약 7평), 24실(각실 인터폰 설치) 법당, 팔각정자 부대시설 →제 2 물리치료실, 목욕탕, 이 · 미용실, 식당, 오락실
◆입방비부담 : 평생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 자비부담
◆연 락 처 : 전화 031)759-5320 / 팩스 031)759-4209


2002년 5월 15일 개원 대한불교 조계종 자광원

불교용품 전문 쇼핑몰 maham@ll.co.kr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생활불자정보

▷ 광고문의
TEL 02)732-1522,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0×4.2) 4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종무원 모집, 일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계, 탱화 업계 등
5. 알뜰정보 – 팔고/사고/대행/대여/재활용/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꽃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49재, 천도재, 생전 예수재, 바라춤, 나비춤 등 각종 행사에 임시로 스님 필요하신 곳은 연락주십시오
011-9209-5691
051-265-5692
범음범패, 제의식, 염불, 바라춤, 나비춤 배우실 스님 연락주십시오

수행 비구니 스님을 모십니다
(20~40세)
▷ 도심속의 포교원(부산)
018-801-2584

예수재 영산재 49재 천도재 점안식
사찰의 큰행사에 직접
테잎 영인스님
염불 해 드립니다(바라, 나비)
방암사 055-882-3455
016-428-6665

1. 천일기도하면서 가족처럼 지내실 비구니 스님을 모십니다
2. 합창단을 이끌어주실 피아노선생님을모십니다
032-873-1059
016-443-9933

전통의식, 각종행사, 천도재, 점안식, 기타불공 스님 필요하신 곳
016-9340-1725
055-521-3673
법음범패, 제의식, 염불 배우실 학인스님모집
※ 행자모집 0名
효자사 혜성 합장

산세수려한 사찰입니다
신심있는 공양주를 구합니다
052-254-5125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 분당 불국사
031-719-0408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스님이 되고 싶은 남여 행자님을 모십니다
031-868-1832~3
011-9822-6469
경기도 동두천 옥금산 불면암

불심이 돈독한 독신으로서 가족처럼 함께 사실 보살님은 연락주십시오
(개인사찰을소유하고 있는 비구니 스님임)
031)774-3497

조용한 암자에서 수행 기도 하시면서운전할 스님을 모십니다
(운전면허 소지 스님)
041-864-9143
011-392-688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경기 파주시
031-952-790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월보시 70만원
▷ 나이 45세~55세
011-317-0448

복지사업에 관심있는 40대 젊은 비구스님 혹은 신심깊은 50대 불자 처사님 (승용차,승합차 소유) 무슨일이든 모든일, 어려운일 마다하지 않고 불자님 불사에 자원봉사 정신으로 좋은 생각과 도움을 주실분 만 연락바람
011-831-6434

신비한 기 치유법
1. 만성적인 두통
2. 관절염, 요통
3. 병명이 없는 육체의 병
4. 정신질환, 영적인 병
대 암 사
063-537-2448

변비는 만병의 원인
변비 · 숙변 (다이어트)
▷변화없을시 환불 보장
2달분 90,000원, 1달분 50,000원
구입문의 080-558-6633
대리점 모집

천도재 구병시식 수자형 영가천도
● 수시 접수 中
▷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02)3391-8523
011-9002-8523
약천사 자운 합장

부전 스님 모십니다
(비구니 스님 환영)
016-787-940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경기 하남시
031-791-7732

명 당
탐지기 관룡자 월간역학
02)2264-0258
동양상 역학강의도함
www.kbs.cc

역착
동영상 강의
www.kbs.cc
3개월분 7만원
속성확실한 교육. 자격증 수여.
명당 탐지기 관룡자 판매
월간역학 02)2264-0258

스님이 없고 운영이 어려운 사찰이나 암자, 포교원 주지를 원합니다
(나이 56세 비구)
011-517-841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안양 비산동
031-448-8811
031-448-8005

천년고찰 기도도량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031-313-5700
011-351-2993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현재신축중인 사찰에서 함께지내실
▷ 경남
017-569-3722
055-962-3721

지현역리학 연구원
◆ 생활역학 전문 교육처
- 고 자강 이석영, 고 단원 이병렬선생의 전통 학문 강의(초급~고급)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 전수
한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전수
◆ 작명학 강의
- 본명 사주의 오행균형법 원형이정의 수리법 부족된 자원보충법
음령법 사상체질법 체계적인 이론연구의 정통작명 비법 전수
※갑신년 개요 : 강의록 테이프와 자료 판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현대기림오피스텔 1004호
02)2243-9598. 018-470-6314

운세(20초내) 바로 맞추면 보세요
02-826-5067(명리학 전문)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감정실습반(보고 듣고 질문으로 시작)
교재 사주첩경(이석영 저)실력테스트 해보세요
www.speedunse@dreamwiz.com
핸드폰, 카드 결제됩니다

2004 역학 컨설팅 교육생 모집
★교육일정 : 2003년 2월 12일(수) 주 1회
★강사 : 초 · 중급 – 남륜 스님
★사주통변 – 김재덕
(SBS 인생역전,KBS뉴스투데이, EBS 아름다운도전출연, 굿데이 인연법 연재)
★관상학 (특강) – 신기원 선생
신청문의 027567-4833. 011-9702-2237
인생역전 김재덕 운세 상담 060-605-0914

수신작법 (수강생 모집)
자연의 운행속에 감춰진 생노병사의 열쇠인
자연수리로 수치의 비밀을 밝히어 각자에 대한 운명과 타인 내지
자녀들의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운을 바로 보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혜안의 비밀을 푼다
수치로 사주 보는버 내지 모든 생활사에 수치 응용 비결법 전수
내손을 가지고 조화를 이용하여 구궁 팔문 태음 태양 사시 12달의
수를 놓아 화생할수 있는 수인작법 터득과 손으로 뽑는 각종
수인사주 운수법 총망라 단시일 내 터득
(수인작법 육임 단시점 12신살 당사주 기문둔갑 그외 등등..)
불운의 각종 예방법 내지 다방면으로 부딪히는 인생사
풀어내는 비방법 방편법 전수
031) 633-1517. 016-231-5451

달마선원 불교고양대학
1기생 수강생 모집(3개월 과정)
기초 교리 및 의식
★ 강의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 수강료 : 무료
★ 장소 : 상계역(4호선) 중앙시장내 농협 앞
02)952-8131

易學 지도
신비한 구성학, 사주없이 래방객의 처해진 상황과 목적, 점사등을 바로 알수 있는 신비한 구성비법을 개인지도 합니다
☎ 019)446-4755

성수철학원 (학인모집)
■ 스님, 처사, 보살님 전문 교습 ■
▶ 무식자도, 공부해도 해도 안되는분 한달 수강하면 역학 정통하여 환하게 개안(開眼)됩니다(단체는 출장 강의 가능)
▶ 눈치 안봐도 돼요, 다 맞으니까~
▶ 사주, 신수, 작명, 궁합, 택일, 신병 모두 100% 적중
▶ 불자님의 포교 일환(방편)으로 최고(불교 교리로 푼다)
▶ 전국 일원, 제자 150명 활동중임
▶ 전화 감정도 환영합니다(신속 정확)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270-4 (2층)
053)255-4784, 256-4784.
018-531-2237

사주 개인 지도
특수비법 : 쉽고 정확하게 하루에 통변
대상 : 승려에 한합니다
지도 : 대주 스님
☎ 02)962-0867
011-741-0867

생활불자정보
24시간 광고접수 받습니다
"한밤중이나 휴일에 광고 접수가 가능할까 ? 시간이 없는데.."



바쁜 일상 속에서 광고접수 시간을 놓치셨던 분들! 이젠 고민하지 마세요~ 생활불자정보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붓다뉴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광고접수가 가능해 집니다.
www.buddhanews.com

『현대불교』 신문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합시다. "복도 짓고 포교도 하고... 지금 동참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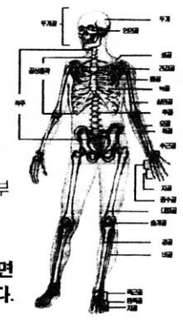
■ 구독신청 및 법보시 동참안내
· 구독신청 ☎ 02)737-0090(直) 02)737-8881(代) · 구독료 : 월 5,000원
· 법보시 동참 : 매월 1천원이상 원하시는 금액으로 동참

관 절 염
↓
자 생 환(自生丸)

관 절 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 스 크
→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 습 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관절염은 참 견디기 힘든 병입니다. 빠마디의 통증은 통증대로, 약을 먹으면 위장장애 때문에 이중으로 고생을 합니다. 자생환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해보세요 상태가 심한 분은 3개월 이상 복용해야 합니다.

1개월분 ₩180,000
2개월분 ₩320,000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퇴마승 해원

영혼 도량

불보살님 가피력
- 참회하는 마음
- 용서하는 마음

영혼사례
- 15년전 죽은 삼촌 접신
- 26년전 죽은 어머니 접신
- 20년전 낙태혼 접신
- 18년전 죽은 언니 접신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해 원 사 초하루. 18일 법회
031-336-3734 · 3735

효사육임도서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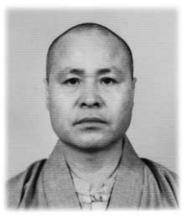
■ 활용서 ■
- 육임래정비법 수정보완본 (전 12권, 부록,활용법 설명비디오 포함) ····· 2,500,000
- 육임래정비법 ····· 350,000
- 육임래정비법 휴대용 ····· 310,000
- 각일각시운명예언비법(태아 · 길일 · 길시 선정법) ····· 74,000
- 육임신수비결(설명비디오 포함) ····· 300,000
- 육임指斗생활비법 ····· 10,000
- 길흉상담지침록 ····· 20,000
- 육임래정비법 수정보완본 日語版 ····· ₩272,000
(전 12권, 부록,활용법 설명비디오 포함)

■ 학습서 ■
- 효사 육임강의록 上(학습용) · 下(활용서)권 ····· 410,000
- 육임강의 비디오 · CD ····· 900,000
- 육임형이상법 ····· 150,000
- 육임운명판단법 ····· 130,000

효사 전국육임 直講 안내
- 서울 매주 금요일 「효사숙」 02-993-8680
- 서울 강남 매주 토요일 「강남숙」 02-525-3039 (비구니스님 전문학당 청룡사)
- 전주 매주 일요일 「전주숙」 063-284-7714
- 광주 매주 월요일 「광주숙」 062-224-8680
- 진주 매주 화요일 「진주숙」 055-755-1644
- 부산 매주 수요일 「부산숙」 051-756-0141
- 대구 매주 목요일 「대구숙」 053-624-8680
- 오행기초 · 기본을 모르는 분들은 위 각 본 강의 2시간 전에 나오셔서 사전 교습을 받게 됩니다.
※ 수강료는 일백오십만원이고 교재 효사육임강의록 上 · 下권을 드립니다.
-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는 육임학당「효사숙」에서「본회회원실기지도 강의」와 육임서 설명회가 본 강의전에 있습니다.

www.taotemple.net
문의 02-993-8680 / 02-998-8683
입금계좌 도서주문 : 우리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복문
강의신청 : 우리 813-102730-01-001 한국육임학회

공 체탈도첩 고



- 성 명 : 김 용 수
- 승려번호 : 103-012
- 법 명 : 보 경
- 직 위 : 미륵정사 주지
-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 698-1번지

위 승려는 종찰 주지로서 본종 감찰원의 지시 사항을 불이행했으며, 특히 지난 2003년 11월 29일자 중앙감사에서 제출된 감사 자료 불충분으로 2차 감사 실시를 위한, 통보 공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사찰의 출입문을 무단으로 철폐 우편물의 도착을 어렵게 하여 2차 감사를 방해 했으며, 또한 본종단의 종헌 종법 제 4장 1항과 3항, 4항을 위배 하였으므로 면직 체탈도첩 키로 본종 감찰원에서 의결 되었기에 공고함.

2003년 12월 30일

사단법인 한국불교미륵종 총무원장 윤송정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 737-8881 (代)

· FAX : 02) 737-0697

사 찰 안 내

●위치 : 충남	●위치 : 경기	●위치 : 전북
●법당 : 20평	●법당 : 10평	●법당 : 13평
●요사 : 140평	●요사 : 50평	●요사 : 20평
●부지 : 900평	●부지 : 1200평	●부지 : 600평
●가액 : 10억	●가액 : 4억5천	●가액 : 4억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 011)713-5634

토굴 안내

- 위치 : 태백산 자락
- 부지 3,600중 대지 300평
- 건물 : 방2, 부엌1
- 조경 및 토목공사 완료
- 700고지 산세 수려함
- 가액 : 7천만원

011)9759-5047
031)318-5090

포교원 안내

- 위치 : 하남시 중앙동 대도로변
- 4층 건물중 5층. 38평
- 법당, 친견실, 스님방
- 몸만 오시면 됨. 명리에 능한신분, 역학가능하신 분 유리함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 1500만원
- 일신상 (급)안내

011)9093-0108

사찰 안내

- 위치 : 충북 음성
- 부지 : 764평
- 건물 : 법당 15평(전통목조), 종각3평(전통목조), 요사채
- 불사할수 있도록 조경완비 했음
- 가액 : 3억

011)462-0392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태백산
- 부지 : 4500평
- 법당 : 25평 ● 요사 : 20평
- 가액 : 2억 5천만원
- 산세좋고 물맑은 고요한 산사 기도와 선방터로 적임지 오가피 일만주, 엄나무 500주, 지구자나무 600주가 심어져 있음

054)673-8200
011)776-5569

사찰 건물 급매

- 위치 : 서북미 시애틀 전원도시 중심가에 있는 3층 건물 (주변이 수목으로 우거짐)
- 한국지리산 칠불암같은 분위기
- 3층 전체가 종이장판이깔린 온돌방식임
- 상층은 전통한국선방으로 되어있음
- 양명하고 도시에 있는 느낌이 않듬
- **꼭 뜻있는 분이면 영주권까지 내줌**
- 가액 : 6억 3천만원

미국전화 510-486-1762
한국직통무료전화 0506-301-3069

사 찰 안 내

- 위 치 : 서울 사찰
- 부 지 : 130평. 요지
- 법 당 : 50평 포집
- 요 사 : 100평
- 가 액 : 12억
- 위 치 : 인천포교당
- 부 지 : 32평
- 전 세 : 4700만원
- 시설비, 월세 없슴
- 요지. 급매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내당동
- 구)황제예식장, 황제맨션앞
- 평수 : 45평
- 방4개, 공양간1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 2천만원

016)9633-0302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중구 번화가
- 건물 : 5층중 4층 50평
- 엘레베이터 유
- 보증금 3천5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 2000만원
- 합 5천만원(방 총 6개)

051)803-4945

단독주택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시 성북구 길음시장내
- 법당 단독주택 30평
- 보증금 전세 4천만원
- 시설비 : 600만원

011)662-7372
016)344-1129

사찰부지(급)안내

- 위치 : 경기 양평군 강하면 항금리
- 부지 : 1500평(1000평종교부지허가)
- 산세수려, 수목 울창
- 양쪽에 계곡을 끼고 있음
- 교통편리, 도로 인접
- 서울 근교 중 최고의 명당터
- 가액 : 3억5천만원

017)438-3377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읍내
- 대지 약 100평
- 건물(30여평), 법당 10평, 방2, 욕실, 창고
- 교통, 주차 편리
- 가액 : 8000만원

011)879-4791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시내
- 대지 : 80평
- 법당 : 40평
- 요사 : 80평
- 양도가 : 6억(대출가능)
- ※ 역사깊은 도심사찰임
- 위치 : 부산 시내
- 대지 : 400평
- 법당 : 25평
- 요사 : 40평
- 양도가 : 10억
- ※ 주차시설 양호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 508-5037/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지하철 당고개역 앞
- 평수 : 약 20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 400만원

02)935-4294

사찰 안내

- 위치 : 노원구 상계동 당고개역 5분거리
- 대지 360평, 대웅전 26평
- 지장전 10평, 산신각 5평
- 용왕전 0.5평, 공양실 大, 공양실 小, 주지실, 종무실, 방4칸
- 가액 : 5억(절충가능)

011)9105-7240

사찰 안내

- 위치 : 지리산(남원시내에서 5분숲속)
- 대지 및 임야 : 1,980평
- 법당 22평, 산신각 6평, 독성각 3평
- 요사채 45평(판넬식), 종무소 15평
- 특징 : 사찰주변 100년이상 소나무 숲속
- 가액 : 시설물 100% 포함. 3억5천만원 (수도권, 충청, 강원지역 부동산과 교체가능)

011)9069-3909

토굴 안내

- 위치 : 충남 금산
- 목조 한옥 21평(임법당)
- 부지 : 405평
- 좋은터 경관도 좋음
- 가액 : 2억원

016)249-3393

토굴대명당지

- 위치 : 여주 점동면
- 대지 603평
- 정남향. 조경완비. 민가없슴
- 최고 풍치. 도로, 개울 접
- 수행 불자 환영
- 가액 : 평당 29만원

018)315-9080

사 찰 안 내

- 위 치 : 주왕산
- 대 지 : 300평
- 법 당 : 25평
- 요 사 : 30평
- 가 액 : 3억5천
- ※유명한 관광사찰 홈페이지 사진 참조
- 위 치 : 부산
- 대 지 : 100평
- 법 당 : 20평
- 요 사 : 25평
- 가 액 : 2억5천
- ※주택지 도심 사찰 주차장 있음
- 위 치 : 부산
- 대 지 : 40평
- 법 당 : 15평
- 요 사 : 25평
- 가 액 : 1억2천
- ※주택지 도심 사찰 2층 인법당

부산 영남지방 풍수컨문 사찰 컨설팅(양도, 인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절대 보안유지)

佛國불사 051)581-9575 / 018-563-9575

홈페이지 www.boolguk.com

(홈페이지에 오시면 사진과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기도 광주 시내
- 평수 : 60평
- 방2개, 주방, 종무실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 1800만원
- 대중교통 원활. 주차장 완비
- 서울에서 30분. 성남에서 15분 거리

011)517-8415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 부천시
- 교통 전철 편리.
- 상권 지역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 700만원

016)368-6917

포교원 안내

- 위치 : 인천 주안동 2층 40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 500만원

032)863-3171
018)201-5590

사찰 안내

- 위치 : 대전 계룡
- 법당, 요사
- 미륵좌불(노천불)
- 가액 : 3500만원

011)9411-2195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15분거리
- 대지 201평, 전 33평
- 법당 : 20평(기와), 최고 시설
- 삼존불, 후불, 신중, 용왕, 칠성, 지장, 산신탱화 요사채 1동 40평,
- 방3개, 화장실 2개, 현대식건물, 옥외 화장실3개, 창고1개, 주차완비, 정남향, 교통편리
- 가액 : 1억3500만원

011)817-4027

신축사찰 안내

- 위치 : 충북 옥천군 옥천읍
- 부지 : 사용평수 2백평 중 100평 등기.
- 법당 목조 22평, 산신각 5평
- 요사채 2동, 방3개, 주방1개, 5층석탑
- 바위불상, 다수 민속품으로 경내조성
- 환산의 지기가 집중된 명당터로 270여호마을소재. 옥천 톨게이트 및 대전 국도접 2~3분
- 가액 : 1억 3천만원

043)733-8186 / 011)9405-8186

사찰 안내

- 위치 : 대전 15분 거리 옥천
- 대지 100평, 건평 70~75평
- 2층법당25평, 방5개, 화장실 실내1개, 실외2개, 주방1, 거실1
- 앞마당 주차
- 가액 : 1억 2천만원(절충가능)

043)733-8108
02)587-0108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 팔공산 갓바위 부근
- 신축법당. 소나무 숲속
- 방4개, 넓은 거실, 수세식 화장실, 창고
- 주차장 넓음. 넓은 텃밭
- 보증금 4천만원, 월 10만원
- 시설비 : 1천만원

017)533-1356

사찰 안내

- 위치 : 동해 영덕 위치
- 부지 760평, 법당 20평, 요사채 2동 50평, 찜질방 1동
- 명당 길지. 좌청룡 우백호 뚜렷 뒤는 산, 앞은 강
- 가액 : 1억 8천만원

016)9677-3411

사찰 안내

- 위치 : 보령시 외곽
- 면적 172평중 대지 86평
- 정남향. 건평 36.75평
- 병풍처럼 야산이 둘러져있고 앞면은 툭터져 있으며 큰도로에서 약 80m도보
- 임법당, 큰방1(가로25자, 세로12자 이상), 작은방2, 주방, 욕실
- 잘지은 조립식 건물. 1년됨
- 타지역 이사관계로 매매
- 불사금 보시하시고 함께 생활하실 불자님 환영

041)934-8516

선원 안내

- 위치 : 서이천IC 10분 거리
- 대지 278평, 건평 250평. 3층 건물
- 가액 : 4억
- 1 · 3층 홀 , 큰 방, 화장실
- 2층 방 7개, 화장실

011)325-5199
031)632-5664

암자 안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공성면 용안리
- 김천, 상주에서 20분 거리
- 대지 120평, 건평 25평
- 임법당1, 주방1, 방2개
- 가액 : 5천3백만원 (집기 일체 포함)

011)462-5275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 건물 : 2층건물 2층 85평
- 방5개, 친견실, 욕실 2개
- 보증금 4천만원, 월 100만원
- 버스정류장앞 지하철3분거리 (주차장 완비)
- 시설비 : 답사후 절충

011)551-1719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전시 대흥동 보문산길
- 3층 건물중 2층 33평
- 삼존불, 후불 탱화, 지장불 108불, 신중단
- 옥탑방, 지하 사용가능
- 몸만 와서 운영가능
- 전세 2천, 시설비 1800만원

011)9867-9822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시 달서구 죽전동 죽전네거리
- 평수 : 30평
- 삼존불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1500만원

053)565-8212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시 창동에 위치
- 5층건물에 2층, 약 35평
- 삼존불(석가모니불, 지장보살, 관음보살)
- 신중탱화, 칠성탱화, 영가단, A급불단
- 방2개, 공단 연등 약 400개 있음
- 보증금 1천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 1천만원

011)9911-0428

신축사찰수련원 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파계사 서편 3k
- 대지 207평, 밭 110평, 건물 70평
- 목조형 철근조 2002.11월 준공
- 1층 : 객실 3칸, 대청, 사무실, 내실 요사, 욕실, 심야보일러 기름 겸용
- 2층 : 법당, 주지실, 응접실, 기타
- 특징 : 山水좋은 경관(답사후 절충)

016)875-9833

포교원 안내

- 위치 : 일산 신도시, 주엽 전철역 150m. 앞,뒤로 아파트 단지
- 평수 : 25평, 방1개, 시설 A급. 3층 건물에 3층 삼존불, 후불, 신중, 산신탱화 바닥은 전기 온돌 판넬. 철학관으로도 적합
- 2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 2천 2백만원

019)687-0306. 031)919-0306

사찰 안내

- 위치 :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 운장사 법당
- 보증금 1000만원, 월100만원

033)766-0057

포교원 안내

- 위치 : 강북구 수유동 부근
- 55평. 임대. 법당(삼존불, 산신각, 108지장보살님)
- 방3개, 주방, 화장실
- 가액 : 7천만원(상담후 절충가능)
-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랍니다
- 시설완비. 즉시 법회 가능

016)243-1643
02)907-1643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 달성군 비슬산
- 계곡좋고 산세 수려
- 산속에 위치
- 건물 2층 법당 23평. 1층 요사채
- 등기평수 : 120평
- 방5개, 삼성각 5평
- 가액 : 1억 4500만원

011)9394-1215

토굴 안내

- 위치 : 대구시 현풍읍
- 집세 없음. 삼존불, 산신각
- 법회 준비 완료
- 가액 : 1천500만원 (절충가능)

053)616-3479

사찰 안내

- 위치 : 충남
- 대지 : 271평
- 법당 10평, 후원 5평 1개
- 요사채 15평 1동
- 특징 : 좌청룡 우백호 지장기도 도량
- 비구니스님, 법사님, 보살님 환영

011)526-1824

사찰 안내

- 위치 : 정동진 (바다 바로앞 위치) 전망 최고
- 사용가능 부지 830평
- 법당, 산신각, 요사채2동. 1동은 건물 등기 돼있음
- 가액 : 1억 2천 5백만원
- 즉시 법회 가능

033)644-5797

국내제2지장보궁 사원정보안내

- 고려고찰 조계종 소속 산하 국내지장3대 보궁중 제2지장보궁입니다 소백산 깊은곳에 국난에 복원된 청정하여 알려지지 아니한 너무나 빈약한 이곳으로 모든 불심있는 기도 불자님과 불자 관광기사님 이은혜 잊지 않을것이오니 이 보궁으로 운행 안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국내제2지장보궁 소백산 내원암

054)653-1180

사찰 안내

- 위치 : 산청군 황매산 서편
- 부지 : 약 2천평. 밤산 군유지 2만평
- 단청한 법당 30평. 요사채 2동, 그외
- 특징 : 지리산 천왕봉 안대, 동양화같은 최고명당. 비구니선원적합
- 가액 : 2억7천만원

011)531-1334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 팔공산. 시내에서 5분
- 산세가 좋고 앞에 냇가 물이 흐름
- 삼존불, 산신, 용화
- 대지 약 2만평(과일나무심어져있음)
- 보증금 500만원, 월 20만원
- 시설물 : 상담후 결정
- 법당20평, 스님방2, 공양간20평, 집2채

011)9273-2477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장흥
- 대지, 임야 포함 11400평
- 법당, 목조 40평
- 요사채 110평 1동
- 창고겸 숙식가능요사 45평 1동
- 위치 터 좋아 모든 포교, 사회 복지 활동 최적지
- 가액 : 3억 7천만원

011)9457-7060

포교당 안내

- 주변 환경 전망 좋음 포교당 매매
- 6m도로옆, 주차장 완비
- 2002년 신축건물 5층 23평형
- 전철, 버스 도보로 10분
- 전철역에서 마을버스 운행
- 역학 장소도 적합함
- 가액 : 4,500만원
- 개인등기확실. 사업용자리 100%

02)353-6871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망우4거리
- 4층건물 중 3층
- 법당 30평, 방2개, 부엌1
- 삼존불, 지장전, 산신, 칠성, 신중
- 보증금 2천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 3천만원

019)571-1732

사찰(급)안내

- 위치 : 경기도 포천 신북면 가채리 819-4
- 요사채 56평, 법당 25평
- 석가모니부처님, 관음, 지장모셔져있음
- 가액 : 전세 6천만원
- 월세 : 보증금 2천, 월 40만원

031)535-5063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시 수성구
- 대지 : 58평, 건평 60평(현대식)
- 1층 요사채. 2층 법당
- 건물 깨끗하고 내부시설 아주 깨끗함
- 대단지 아파트옆(위치 아주 좋음)
- 사정상(공부하러 감) 매매
- 가액 : 2억원

011)858-9450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마산
- 대지 : 약 100평
- 법당15평, 요사, 후원
- 요사 주지실 따로
- 가액 : 9천만원

011)859-2252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시 서구 토성동
- 1층 요사채, 2층 법당
- 자갈치와 토성전철역에서 5분 거리
- 가액 : 1억

011)733-8655

사찰부지(급)안내

- 위치 : 경기 양평군 강하면 항금리
- 부지 : 1500평(1000평종교부지허가)
- 산세수려, 수목 울창
- 양쪽에 계곡을 끼고 있음
- 교통편리, 도로 인접
- 서울 근교 중 최고의 명당터
- 가액 : 3억5천만원

017)438-3377

일주문



정대 스님 49재 봉행

수원 용주사 주지 정락 스님은 1월 5일 안양 삼막사에서 前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장 정대 스님의 열반 49재를 봉행했다.



미국 스토니브룩대 해외연수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선학과 교수 종호 스님은 1월 2일 미국 스토니브룩대학교로 6개월간 해외 연수차 출국했다.



종도 신년하례법회

대한불교 조동종 총무원장 심월 스님은 1월 5일 서울 등촌동 용천사 보리원에서 갑신년 종도신례하례법회를 봉행했다.



2004년 시무식 개최

대한불교 원융종 총무원장 법륜 스님은 1월 14일 서울 구로동 원융원에서 2004년도 시무식 및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신년기원 해오름 철야법회

서울 소림정사 주지 지형 스님은 1월 1일 경주 대왕암에서 신도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기원 해오름 철야법회를 봉행했다.



故 안진현 추모법회

서울 북한산 내원사 주지 정수 스님은 1월 6일 내원사 대웅전에서 불자가수 조용필 씨 부인 故 안진현 씨 추모 1주기 천도재를 봉행했다.



동계수련회 및 수계 법회 봉행

전북불교대학 강건기 학장은 1월 3~4일 이틀간 순천 송광사에서 일일출가 동계 수련회 및 합동 수계 법회를 봉행했다.



'재소자용' 클래식 CD집 제작

법무부 강금실 장관은 2004년 1월부터 전국 교도소, 구치소 재소자 교화를 위해 클래식 명곡이 수록된 CD집과 해설서를 제작한다.



강원 건봉사서 신년 기원법회

서울 동산불교대학 김재일 이사장은 1월 1일 강원도 고성 건봉사와 하진포에서 2004년 신년 맞이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일일관법명상 진행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황용식 명상학 주임교수는 1월 11일 구로구 학교내 1층 101호 강의실에서 일일관법명상을 진행한다.(02)808-6582

수원불교청년회 새회장 신승우 씨

"장애의 몸이지만 전법에는 늘 앞장"



"내 안의 자성불을 깨우십시오. 부처님은 개개인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지난해 말 수원불교청년회 신임회장에 선출된 신승우(32·사진)씨는 불의의 사고로 몸을 가눌 수 없었던 지난 6년을 떠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신회장은 수불청의 대들보다. 오른쪽 두개골의 손상으로 오른쪽 팔과 다리가 마비되고 시신경이 다쳐 거리감각조차 없지만, 가슴 가득한 불심으로 청년들을 이끄는 전법사다.

지체장애 2급. 군대를 막 전역했을 무렵 그는 친구의 실수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리고 장애인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2번의 큰 수술, 살아날 가망 없다는 의사의 진단.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았다. 회복단계에 접어들자 그는 법우들의 도움을 받아 인근 사찰을 찾았다. 그리고 삼천배를 올렸다.

"법당을 빠져나오며 흐르는 눈물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수원포교당 학생회 활동을 하던 고등학교 시절부터 부처님이 늘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때부터 법회에 다시 참석하기 시작했다.

지금 그는 관세음보살을 입에 달고 산다. 자신의 생이 전법을 하고 자비행을 베풀기 위해 주어진 시간이라 믿으며, 더 많은 이들에게 부처님의 교리를 전하기 위해 동분서주한다.

편치 않은 몸이지만, 열심히 뛸 생각이다. 지역통일사업과 민주화 운동 등 지역 일에 앞장서며 경기지부의 명실상부 최고의 청년단체였던 과거 수불청의 위상과 역할을 되찾기 위해. 그게 자신이 되살아난 이유이며, 믿고 지지해주는 수불청 회원들에 대한 보답이라 생각한다.

김은경 기자 ilpck@buddhapia.com

대불련 첫 女회장 강지혜 씨

"기대와 관심 큰 만큼 야무지게 보답할 터"



"네트워크 구축과 전국 대학 소속 지회의 특성화 사업을 중심으로 2004 대불련, 새롭게 도약하겠습니다."

제42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강지혜 회장(성신여대·21·사진)은 이같이 포부를 밝히고, 현재 대불련에 가입돼 있는 176개 지회(각 대학 불교학생회)들의 현황조사와 재등록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인터넷상에 지원센터를 개설해 각 지회의 고민과 요구사항들을 직접 듣고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강 회장은 덧붙여 "관성적으로 되풀이되는 사업은 대불련 활동이 갖는 본래의 의미를 감소시킬 수 있다"며 "특색 있는 지회활동을 장려하고 전법주간을 정착시켜 봉축축제와 창립제 등의 행사를 대학 내 학우들과 부처님 법을 나누는 시간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대불련 창립 42년 만에 선출된 첫 여성회장으로 많은 기대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강 회장은 이에 대해 "남녀로 구별돼 집중 조명되거나 평가받고 싶지 않다"며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의 참여가 늘고 있는 만큼 여성회장으로서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백분 활용하고 부족한 점들은 중앙집행위원회를 비롯해 3000여 대불련 회원들의 도움을 받아 슬기롭게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은경 기자

도와주세요

백혈병 앓는 박수영 불자 어머니·여동생 모두 난치병



백혈병을 앓고 있는 청년 불자가 수술비가 없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박수영(23·사진) 군은 현재 병원에 갚아야 할 치료비 3천여 만원을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하다. 게다가 어머니와 여동생의 병원비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나 상황은 최악이다.

18년 전 아버지가 집을 나간 뒤 어렵게 수영, 수진 씨 남매를 키워온 어머니 최영희(45) 씨는 젊어서 앓은 폐결핵을 치료받지 못해 한쪽 폐가 굳어져 호흡곤란과 천식으로 일손을 놓은 상태다. 후원계좌: 농협 053-01-243778(예금주 : 생명나눔)(02)734-8050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천태종 칭찬 주인공 문동규 박사

4개월간 무료진료 18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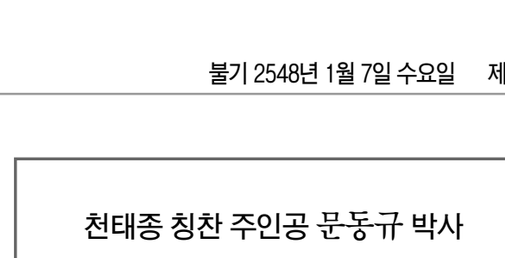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칭찬 주인공이 되니 부끄럽습니다. 새해에는 불자들이 소원의 주체를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서 주변의 이웃과 나라로 넓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천태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운덕)이 칭찬하는 문화 정착을 위해 선발하고 있는 두 번째 칭찬 주인공에 선정된 서울 현대병원 내과 전문의 문동규 박사(사진)의 소감이다.

문 박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봉사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후원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며 "한 생각만 돌이키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동규 박사는 천태의료봉사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2003년 9월부터 종단 소속 사찰에서 무료로 183명을 진료해 왔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호국 흥국사, 찬불가 경연 대회



육군 732부대 군법당 호국 흥국사(주지 영우)는 지난해 12월 28일 사찰 법당에서 '찬불가 경연 대회 및 송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주은식 여단장을 비롯한 군장병 불자 250여 명, 서울 광진구 능인정사(주지 법경) 신도 50여 명, 광동여고 불교학생회 등이 참석했다.

'깨달음과 깨우침' 다례법회



경기 양주시 대원정사(주지 해련)는 지난해 12월 15일 의정부 광동여자고등학교 3학년 졸업예정자 50명과 함께 '깨달음과 깨우침'을 주제로 다례법회를 봉행하고, 주지 스님과 '사찰기본예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마닐라 알라방 재활원 방문



경주 불국사 필리핀포교원(주지 법관)은 지난해 12월 26일 필리핀 마닐라 근교 알라방 재활원을 위문방문, 자원봉사 및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봉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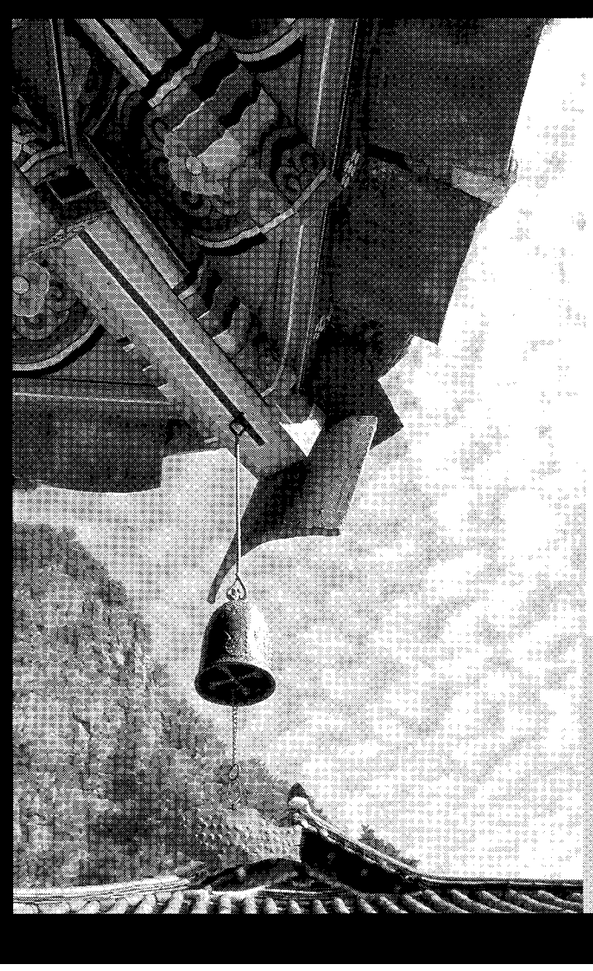
이날 방문은 주지 법관 스님을 비롯해 교민 신도 50여 명이 참석했다.

은평시니어복지포럼 창립대회



서울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관장 고재욱)은 지난해 12월 29일 복지관 대강당에서 '은평시니어복지포럼' 창립대회 및 '노인일자리 창출, 어르신에게 듣는다'를 주제로 출범 기념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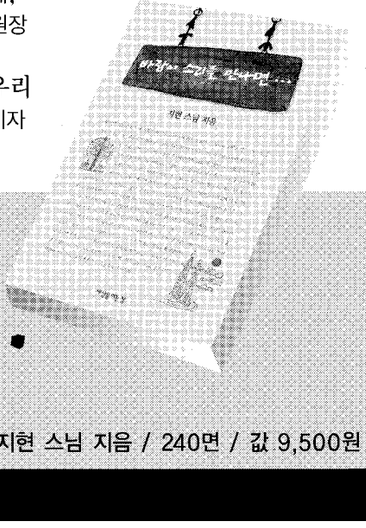
TEL:(02)994-3947 FAX:(02)994-3948 세상을 여는 창



산사에서 바람과 나누는 조촐한 대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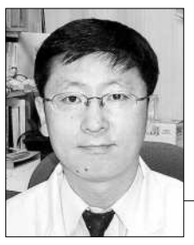
지현 수좌가 이런 책을 내놓다니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평소 그의 善心과 성실함에 눈길을 주어 온 내게, 이것은 큰 선물이 아닐 수 없다. -宋月珠 전 조계종 총무원장

조촐하고 정갈한 글모음이다. 군더더기 없는, 꼿꼿하게 목을 세우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글의 잔치가 우리를 즐겁게 한다. 그리하여 잔잔하게 흐르는 강물로 다가가게 만든다. -박관우 불교방송 기자



바람이 소리를 만나면...

지현 스님 지음 / 240면 / 값 9,500원



불자 세상보기

구병수
동국대 한의학 교수

육바라밀 면역법

일찍이 부처님은 욕심을 바탕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면 반드시 악업의 인연으로 몇 배의 대가를 받는다고 했다. 오늘날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

최근 들어 광우병, 조류독감, 사스 같은 해괴한 전염병으로 온 지구가 야단이다. 발생 지역은 미미하지만 그로 인하여 불안한 마음이 증폭되어 크나큰 파장을 일으키니, 경기 위축과 함께 마음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어 살심(殺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질병은 치료에 있어서 항생제를 남용하는 등 종(種)의 천성에 따른 삶에 인간이 지나치게 간섭한데서 발생하고 있다. 가축이나 가금류를 더 많이 양산하기 위한 욕심으로 좁은 공간에서 집단적으로 사육하고, 먹이 역시 순리에 어긋나게 감염된 양의 뼛가루를 사료에 배합하여 소에게 먹인 결과인 것이다.

이런 행위의 근저에는 다른 생물들의 종(種)을 배려하는 마음이 배제된 인간의 탐심과 이기심이 깔려 있다. 따라서 예전에는 없었던 조류독감이나 광우병과 같은 괴질은 인간의 이기와 욕심으로부터 비롯된 과보인 셈이다. 인간이 만들어 낸 것과 다를 바가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 지구는 인간만의 것이 아니며, 하늘과 땅의 수승화강(水升火降) 기운에 의하여 삼라만상이 생긴 것이고, 단지 그 중 하나가 인간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생명질서를 수없이 무너뜨려 왔다.

병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치료하는(治)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理) 것이다. 리(理)는 옥돌에 물결로 인하여 새겨진 자연스러운 무늬를 뜻하는데, 상대편을 죽이지 않고 서로 공존 화해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어떤 바이러스를 없애는 강력한 항바이러스 약재를 개발하면 그 다음에는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생겨난다. 바이러스의 입장에서 보면 살아남기 위해서 더 강력한 독성을 만들어 내고, 또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것이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천성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요 의지인 것이다. 이러한 입장 차이로 인한 원망과 반발심이 순리를 거스르고, 이같은 행위가 누적 되어 새로운 병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한의학에서는 정기(正氣)를 보(補)하면 자연히 사기(邪氣)가 없어진다고 말한다. 흔한 말로 면역이 증가하면 병이 잘 걸리지 않는 의미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조류독감과 같은 신종 질병을 예방하는 최상의 방법은 면역을 기르는 방법이겠지만, 육바라밀(보시, 인욕, 지계, 정진, 선정, 반야)을 실천하는 일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보시는 탐심을, 지계는 화내는 마음을, 인욕은 잘 난체하는 마음을 제거하니, 이 세 가지를 부지런히 수행하고 정진하면 선정에 이르러 마음이 편안해지고 지혜가 나서 의심이 없는 반야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인체의 정기가 강해지고 결국은 모든 병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다.

조류독감, 광우병 등과 같은 질병은 한 개인이나 한 국가만 주의한다고 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모든 인류가 이같은 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데 동참해야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부처님 시봉하는 밝은 마음으로 삼라만상의 모두를 부처님으로 공경하고 하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서로 공생하는 대승적인 마음을 공유해야 만이 지금의 병리적 혼란에서 헤어날 수가 있는 것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의 눈

천태종에서 '나누며 하나되기' 운동을 시작하여, 통일, 환경 등 우리 현실에서 가장 시급하고도 절실한 분야들에 대하여 활동하기로 하였다 한다. 얼핏 생각하면 우리 불자들의 귀에 이미 익숙한 '불교의 사회화'와 같은 맥락으로 여겨질 수 있고, 실제로 그 근본 정신에서야 다를 것이 없겠다. 그러나 이번 천태종의 움직임에는 '불교의 사회화'를 지향하는 과정에 갖추어야 할 몇 가지 주목해야 할 요소들이 있다.

우선 그 구호인 '나누며 하나되기'라는 말이 갖는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 불교의 사회화는 일반적으로 부처님의 '동체대비'(同體大悲) 정신을 바탕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이번 천태종의 구호는 우선 중생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나의 소유를 중생과 나누는 그러한 자비행을 통해 중생과 하나됨을 실현하겠다는 정신이 드러나 있다. 나눔의 실천을 통해 중생과 하나됨은 바로 자비행을 통해 하나됨의 큰 깨달음을 성취하는 길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나누면 하나가 된다

다음으로 중요한 점은 각 분야를 나누고 그 분야에서 전문적인 수준의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는 점이다. 요즘 불교계 NGO 등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높은 수준의 활동을 지향해야 한다는 의식이 일반화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러한 방향설정은 참으로 시의적절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나누는 일은 그저 생색내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극도로 분화되고 또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현대 사회, 그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은 전문가를 요구한다. 천태종의 '나누며 하나되기' 운동의 방식은 이러한 올바른 방향성을 찾은 것이다.

나의 소유를 중생과 함께 하는 일, 중생의 괴로움은 나누어 함께 지는 일, 이것은 불교가 지향해야 할 최고의 가치이다. 그리고 그러한 활동은 또한 수많은 중생을 불교 속으로 이끄는 최고의 포교수단이다. '불교의 사회화'를 통해 이러한 부끄러운 세월을 청산하는 데 온 불교계가 힘을 기울이고 있는 이 시점에 천태종의 '나누며 하나되기'가 '주마가편'(走馬加鞭)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성태용(건국대 교수 / 본지 논설위원)

이렇게 들었다 — 부처님의 해밝이 소식

묵은 해니 새해니 분별하지 말라.
겨울 오고 봄 오니 해 바뀐 듯하지만,
보게나 저 하늘이 달라졌는가.
우리가 어리석어 꿈속에 사네.

학명 스님(鶴鳴, 1867~1929)

무상(無常)의 시간관으로 보자면 우리들이 하루, 한달, 한 해라고 말하는 분절적 시간 마디는 관념의 산물이다. 시간의 존재양태는 한 순간의 머무름도 불가능한 '흐름'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깨달은 분들은 그것을 분별의 소산이라고 말하고, 그것에 기대어 부질없는 꿈꾸기를 그만두라고 말한다. 하지만 범부의 입장에서는 그러기가 쉽지 않다. 작심삼일에 그칠지라도 새해만 되면 저마다 '꿈의 궁전'을 세우기 마련이다.

사주(四柱)라는 것이 있다. 사람이 태어난 연 · 월 · 일 · 시를 네 기둥으로 보고 각각의 간지 두 글자를 합쳐 평생 운명, 즉 팔자를 따진다. 이것이 고정불변은 아니어서, 10년 단위로 유동하는 것을 대운(大運)이라고 하고 1년 단위로 유동하는 것을 세운(歲運)이라고 한다.

사주가 불교의 오지랖 속으로 들어오면 사자(使者)가 된다. 연직(年直) · 월직 · 일직 · 시직 사자가 되는 것이다. 시간의 인격화라 볼 수 있는 이 사자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인간이란 존재의 유한성을 극적으로 상징한다. '날마다 좋은 날'이란 '날마다 죽기 좋은 날'에 다름 아니다.

일념만년(一念萬年)이라 했다. 한 생각이 만년의 세월을 포함하고 있다는 말이다. 인왕경에 이르기를 "찰나에 9백 생멸이 있다"고 했다. 허구의 시간에 꿈을 가탁하지 말고 다가오는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전해주신 해밝이 소식이다.

■윤제학(아동문학가 / 본지 논설위원)

독자의 소리 - 이렇게 생각한다

사회보호법 폐지 마땅

감호소에 수감되어 있는 남편을 둔 독자다. 남편은 절도죄로 징역 1년6개월, 보호감호 7년을 선고 받았다. 지금은 형기를 모두 마치고 감호처분에 따라 청송감호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이는 '징역형을 살고 난 상습범은 보호감호소에 수용할 수 있다'는 사회보호법에 의거한 것이다.

그러나 보호감호는 헌법에 명시된 이중처벌의 금지조항을 어긴 조치임에 분명하다. 실형을 살고난 뒤, 또다시 감호소에 수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도 "형벌과 보호감호는 이름만 다를 뿐 실상은 똑같다"며, 그 예로 교도소 규칙과 보호감호소 규칙이 같은 점을 들고 있다.

현재 유럽에도 보호감호제도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호감호제도와는 성격이 다르다. 우리의 보호감호제도는 삼청교육대 수용자들을 그대로 수감하면서 시작됐다. 청송감호소에는 1,600여명이 수감되어 있고, 재범 위험성에 대한 정밀한 심사 없이 해마다 300여명이 보호감호 판결을 받고 있다. 게다가 그 중 70%가 절도범이다. 반인륜적 범죄를 반복한 죄수를 수용하는 유럽의 제도와는 전혀 다르다.

죄를 짓고서 불안해하는 마음이 지옥이요, 비양심적인 일을 하고 마음이 꺼림직 하면 반지옥이라고 한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보호감호라는 명분 아래 이중처벌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사회보호법 개정을 휘해 불자들이 더 많은 관심을 쏟아주기를 기대한다.

김정희(충북 충주)

모든 중생의 성불을 바라며

무상(無相)은 금강경에서 언급한 불가진리의 보고인 듯하다. 우리가 그토록 아끼는 이 몸도 버려두고 가는 애착을 쉰 마음도 무상에 있고, 이기고 지는 것 놓아두고 묵언으로 시비를 벗어나는 것 또한 여기에 있으니, 이른바 한가한 것 아니겠는가.

이런 것 저런 것 다 섭수(攝受)하여 원만히 이어나가고 평등 속의 차별상과 이렇고 저러한 일들과 사람들 모두 긍정 속에 자비롭게 육도를 내 집삼아 도심(道心)이어야 옳을 듯하다.

함께 탁마하던 도반들. 나름대로 하나의 봉우리를 차지한 듯해도 부처님의 허공 같은 마음에 비추어 보면 아직도 값지고 존귀한 일면에 불들려 있음이리니 진일보한 그 날이 있을 수 있겠는가.

평범하게 불교의 이론적인 얘기하지 않고 삶 속에서 생활로 얘기하는 사람들. 비록 겉차림새 도복(道服)은 아닐지라도 그 내면은 도의 외길 오롯하게 가는 것일 뿐, 서로 마음이 통하니 반갑고 기쁠 뿐이다.

극기는 중한 것. 스스로에 부끄럽지 않도록 본심 지키고 깨끗하게, 또 겸허하게 살 수 있는 항마의 불세계를 기약하며 일없는 한가한 이로 남은 세월 산사에서 묵묵히 보낼 따름이구나. 모든 불연의 성불을 바란다.

광연 스님(지리산 토굴 수행)

스님들의 행정업무 옳은가?

부처님 말씀이 중생들을 이끌어 가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불교의 발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한국불교의 가장 큰 종단인 조계종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종단에서도 절의 재정을 스님들이 맡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승가가 비구 · 비구니 · 우바이 · 우바새 사부대중으로 이뤄진 것은 각자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찰의 재정이나 행정적인 업무는 재가불자들이 맡아 스님들이 수행과 중생제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으나, 예산 편성과 기획, 집행은 재가불자가 맡고 추인 등의 형태로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조계종 총무원 인사 기사를 읽으면서 스님들이 왜 종무행정을 맡아야 하는지 의문을 품게 됐다. 스님들은 오직 수행을 통해 성불하여 중생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는 풍토가 자리 잡길 기대한다.

김종용('붓다뉴스' 댓글)

'현대' 만평 — 심 민 섭





점점 추워지는 겨울!
챙기셨습니까?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월드컵국가대표선수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를 챙겨주세요.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햇오가피를 수확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올겨울 수확하는 햇오가피로 만들어 더욱 새로워진 수신토종오가피!
5대신문 히트상품선정으로 그 품질을 인정받은 수신토종오가피!
아직도 안 챙기셨어요?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상담과 동시에 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자매품 우리 아이들을 위한 수신천사토종오가피
오가피와 여러 씨앗으로 만든 성광수 생씨앗베개

02)447-5300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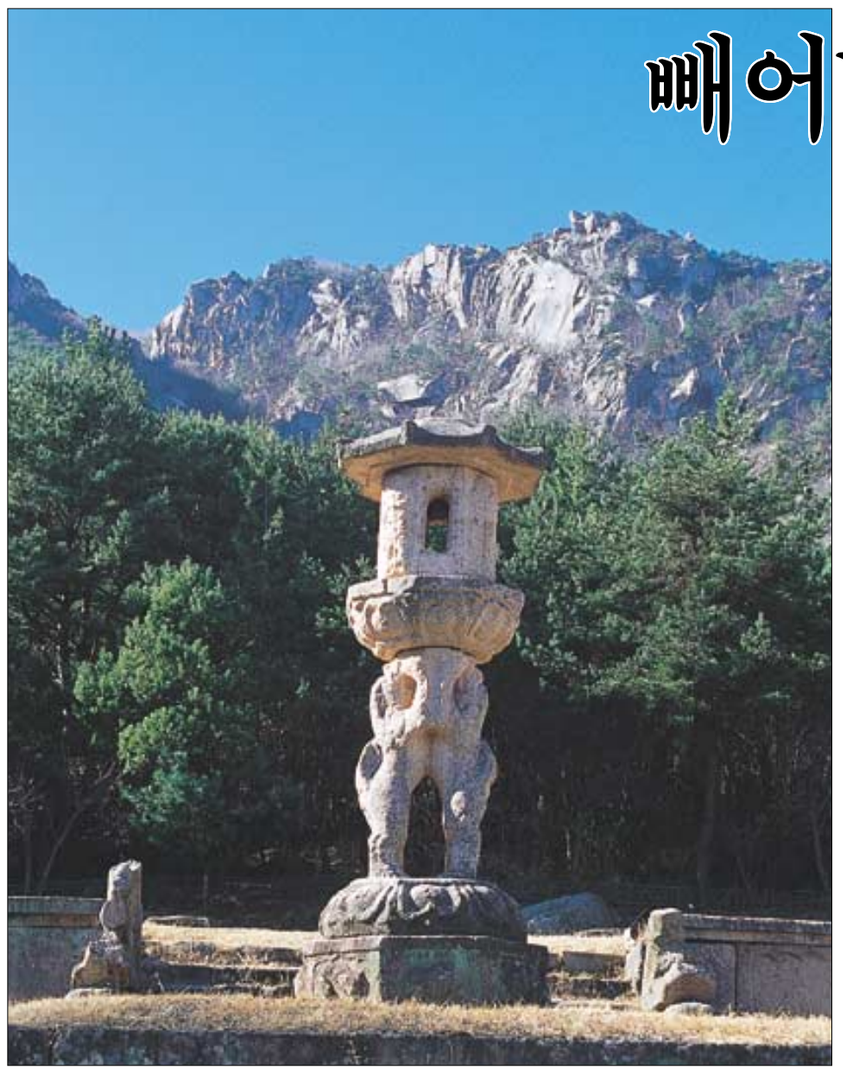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빼어난 풍광이 빚어낸 '텅빈 충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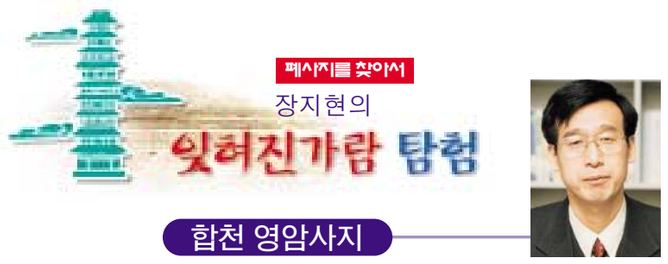
◇ 신령한 힘과 기상이 분출하는 황매산에 자리잡은 영암사지의 쌍사자 석등(보물 제353호)<위>과 여의주를 으스러지게 깨물고 있는 동<오른쪽>, 서<아래> 귀부(보물 제489호).





영암사지 가는 길

서울에서 영암사지로 가는 길은 중부고속도로 가다가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를 타고 함양분기점에서 다시 88고속도로를 이용, 합천 나들목에서 내리면 된다. 합천에서 황매산으로 가는 길은 야로2 지방도를 달려 삼가를 지나 가회면 덕촌리를 찾으면 된다. 합천에서 1026도로를 타고 황계폭포 옆을 지나 1089번 도로로 가는 길도 있다.



합천 영암사지

절터 뒤로 보이는 황매산 기암절벽 감탄 자아내
쌍사자 석등 · 암수 귀부 등 사지 전체가 보물급

갑신년 첫 햇살이 소백산 자락 황매산(黃梅山 1,108m) 암봉의 이마를 때리자, 잔잔하던 합천호의 수면은 일순 금빛 비늘로 흔들린다. 수심에 잠긴 영산(靈山)의 그림자는 소문처럼 매화꽃으로 벙글려는 듯 사방에 서기가 느껴진다. 새해의 첫 나들이를 덕담, 법어 요란한 절집으로 향하지 않고 굳이 폐사지로 향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 해는 좀 더 비장한 다짐으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였다. 그것도 합천 땅 영암사지(靈岩寺址 사적 131호)를 찾는 것은 영암사지야말로, 신령한 힘과 기상이 분출하는 황매화 같은 전국 최고의 폐사지이기 때문이다. 과거의 역사와 자연은 유물로, 골동품으로 등급을 매겨야 올바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의 주초로, 장대석으로 다시 다듬어 써야 가치가 있는 것이다. 청솔 우거진 빈 절터에 아직도 으스러질 듯 여의주를 깨물고 있는 돌거북의 얼굴에서 이 땅의 진정한 미래가 있음을 본다.

유홍준 선생이 꼽은 답사 여행의 비장처

영암사지는 '잊혀진 가람탐험'을 시작한 이래 수시로 가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던 대표적 폐사지이다. 유홍준 선생이 '답사 여행의 비장처(秘藏處)로 가장 먼저 손꼽는다'고 극찬한 영암사지를 나는 전국의 폐사지 대부분을 일별한 뒤에야 찾게 되었다. 늘상 가는 시중의 단골집을 찾는다면 모르되, 오랫동안 사모하던 성지를 찾아가는 일을 택일도 하지 않고 불쑥 찾아갈 수는 없는 것이다. 폐사지 답사도 격식이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폐사지를 찾아 만행하는 폐사지 신도들의 덕목이고, 법도이다. 맑고 부신 겨울햇살이 합천호변에 도열한 벚나무 가로수들의 마른 가지를 쓰다듬는 날, 어디 치성 드리러 가는 촌부(村婦)처럼 잰 걸음으로 폐사지 답사의 원찰과도 같은 영암사지, 거기 주석하는 그 무등상불(無等像佛)을 친견하러 달려갔다.

영암사지는 이름 그대로 참으로 빼어난 폐사지이다. 폐사지 답사 여행의 절정을 나 또한 여기에서 맞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그리 대단한 사역은 아니지만 군립공원 황매산의 장쾌하게 솟은 세 암봉을 배산으로 한 절터의 입지는 참으로 절묘하고 미려하다. 비록 무너진 옛 가람 터이기는 하나 어느 한곳 빈틈이 없다. 텅 빈 충만, 그것이다. 군데군데 복원의 어설픈 손길을 탓으나, 있을 자리에 있을 것이 있고, 남을 자리에 남을 것이 남아있다.

성급히 쌍사자 석등(보물 제353호) 앞이나 삼층석탑(보물 제480호)으로 달려가기보다 마음을 다스려 절 터 한 켠에 움크리고 있는 시든 불두화 한포기를 만나 볼 일이다. 여름 내 사발 같던 새하얀 꽃숭어리들이 찬 서리에 좌탈입망한듯 말라붙어 있다. 불두화는 열매를 남기지 않는다. 불도에 정진하는 고승처럼 세상에 인연의 씨앗을 뿌리지 않는 것이다.

영암사터는 동서 일직선상으로 쌓은 3단의 석축 위에 탑과 석등, 금당이 차례대로 놓인 통일신라 말기에 창건된 선종의 사찰로 추정된다. 1984년 발굴작업에서 하대 신라와 고려시기의 각종기와들이 출토되었으나, 명문을 밝힐만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8세경의 금동여래입상이 출토된 것과, 남아있는 석점의 보물급 유물들이 9세기경 통일신라를 대표하는 것이어서, 이 무렵 이 지역 호족의 발원으로 창건되어 고려 현종 때 적연국사(寂然國師 932~1014)가 주석할 만큼 명성을 날렸으나, 조선 초 폐사되어 오늘에 이르는 것으로 여겨진다.

영암사지 탐험은 정교하게 쌓아올린 석축과 석축 위의 석조물들, 그리고 동편 조사당 터 암수 2개의 귀부(보물 제489호) 등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피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인근 가야산 자락의 법수사지 석축이 성곽처럼 그 위용이 장대하다면 영암사지 석축은 정교하고 아름답다. 사각으로 다듬은 돌들을 차곡차곡 쌓으면서 일정한 간격으로 팔뚝돌을 끼워 넣은 안목은 역학적인 것과 구조적인 면을 고려한 공법이어서 탄복하지 않을 수 없다. 1천여 년 전 신라 석공의 만만치 않은 식견과 공력을 현대에 견주어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것이다. 오히려 축대 아래 유구는 최근까지 해인사에서 발굴 중이었다는데, 옛 사람의 정성에 비해 그것을 파헤치는 오늘의 손길들이 거칠게만 느껴진다.

정교하게 쌓은 석축 탁월한 식견에 탄복

영암사지 건축에 깃든 옛사람들의 정성은 금당의 석단 4면에 돋을새김한 여덟 마리 사자, 불대좌 기초석의 팔부중상, 금당 계단 소맷돌의 가르빙가 조각상 등 절 터 구석구석 어느 한곳 빼 놓을 곳이 없다. 어쩌면 옛사람들은 이렇게도 섬세하고 감미로운 삶을 살았는가. 세월이 흘렀어도 좀처럼 무르지 않는 그 손 맵시는 차라리 그립다 못해 서글프게 느껴진다. 쌍사자 석등 옆으로 난 돌 계단은 또 어떤가. 통돌을 무지개 모양의 호(弧)로 깎아 발뒤꿈치가 들리도록 오르게 한 발상은 아무리 생각해도 후세들에게 건네는 선조들의 여유요, 짓궂은 농 같기도 하다.

통일신라 3층석탑의 정형인 제1석축의 삼층석탑과의 대면은 뒤로 미루고, 쌍자사 석등과의 법 거량을 서두르지 않을 수가 없다. 역시 화강암 통돌을 깎아 두 마리의 사자가 석등을 받치고 있는데, 쳐켜 올린 꼬리와 힘을 준 뒷다리는 그 입체감과 사실성이 뛰어나 생동감이 흘러 넘친다. 두 몸이 하나로 부둥켜 안고 화사석(火舍石)을 머리에 인 쌍사자의 긴장감은 가히 백옥빛 영암을 떠받치는 힘이요, 법계를 걸머진 팔부중상의 기상 그것이다. 속리산 법주사의 쌍사자 석등(국보 5호)과 함께 우리나라 석등 중 최고의 조형미를 갖춘 보물중의 보물이 이것이다.

금당 옆 솔 숲으로 가린 조사당 터에는 암수 한 쌍의 귀부가 있는데, 이 또한 영암사지를 영암사지답게 하는 명물인 동시에 하대 신라와 고려 전기의 성보를 대표하는 명물이다. 하나는 적연국사 비석받침이고, 하나는 창건주 스님의 것으로 여겨지는데, 특히 동쪽 거북은 긴 목을 직각으로 곧추 세우고 여의주를 으스러지게 물고있는 것이 금방이라도 '용연'을 향해 섬광을 뿜을 듯 하다. 등 뒤의 겹줄 귀갑문과 사실적인 인동덩굴 문양, 그리고 급한 경사는 강인함과 함께 율동감을 불러일으킨다.

영암사지는 그냥 폐사지가 아니라 신령한 폐사지기에 더 불자들의 가슴을 뛰게 만든다. 절 터 양 옆의 낡은 요사채는 지금처럼 늙고 가난한 모습이 옛 절터에 더 잘 어울린다. 욕심을 내 오른쪽 산비탈의 대적광전처럼 절터를 위압한다면 영암사지의 신비는 그 날로 사라지고 말 것이다. 바위는 이끼를 거적 삼아 덮고 선정에 들어야 너럭바위의 품계에 오르는 법! 황매산 중턱 모산재의 철쭉들은 때되면 다시 진홍빛 갑사댕기를 머리에 두를 것이다.

<시인, 진각복지재단 사무처장>
사진=고영배 기자
<다음은 감포 감은사지편>

2004 갑신년 새해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佛紀 2548年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 국 사
회주 성타 주지 종상
학장 덕민
강주 응각
선원장 종우
총무 장주
사서 신행
기획 청원
교무 종천
재무 정문
사회 성탄
포교 성제
호법 종덕
부설
불국사 문화회관
불국유치원
룸비니 어린이집
경주 장애인 종합복지관
법보신문사



경상북도 경주시 진현동 15
전화 054)746-9912~4 팩스 054)746-1476

대중일동

영화 찍는 과정이
화두요 분별심 놓는 공부

영화 감독 장/선/우

시집 통해 세상 바로보는 눈 제시
시대문제, 불교적 세계관이 대안
작업 · 참선할때 모두 행복한 순간



"2002년 3월 영화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의 마지막 장면을 찍기 위해 태국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 갑자기 시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답답함, 그리움, 더러움이 그렇게 쏟아져 나온 것이겠죠."

영화 '화엄경'과 '꽃잎', '나쁜 영화', '거짓말' 등 늘 파격적이고 새로운 연출로 영화계에 논쟁을 불러일으킨 영화감독 장선우(51) 씨가 시집 <이별에 대하여>를 펴내고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난 이제 다시 옷을 벗습니다/ 부처님 앞에서/ 안에서/ 오체투지 108배, 108배, 1080배…// 그녀는 그렇게 멀어지네요."('입재' 中)

"이별은 없는 것/ 윤회는 끊지 않는 한/ 우리는 또다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날 텐데//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회향' 전문)

'입재'라는 시로 시작해 마지막 시 '회향'으로 시집을 닫은 장 감독은 "나와 내 영화에 대한 논란 때문에 받은 고통이나 실연의 아쉬움을 쓸어내기 위해" 시를 썼고, "살아가면서 이별을 겪는 모든 사람들과 이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함께 공유하고 싶었기 때문"에 시집을 냈다고 말한다.

지난 12월 26일, 대학로의 한 카페에서 만난 장 감독은 지난해 여름 해인사의 한 암자에서 하안거를 지낼 때 깎았던 머리가 아직 채 자라지 않아 까칠한 모습이었다. 안거 동안 그는 故 혜암 스님(전 조계종 종정)에게 받은 화두를 참구했다고 한다. '절'과 '세속'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건만, 굳이 안거에 든 것은 화두를 '알음알이'로가 아니라 '몸'으로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만법(萬法)이 하나로 돌아간다면/ 이 하나는 무엇인가요."('열반' 中)

"선정(禪定)의 경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영화를 찍으면서 느끼는 몰입의 경지, 몰아의 경지가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잘 놀 때와 (영화를) 잘 찍을 때, (선방에서) 잘 참선할 때가 모두 행복이죠." 그가 불교와 만나게 된 것은 사회주의가 몰락하는 것을 보고 '참되게 이 세상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부터다.

"있는 그대로 보자, 당위성이나 전망, 합법치성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부처님 법대로만 세상을 보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영화에 녹아드는 것은 당연한 결과겠죠."

그동안 만드는 영화마다 논란을 빚었지만 영화를 통해 질문을 던지고 논쟁을 유도하는 '열린 영화'를 지향하는 장 감독은 논쟁 속에서 사회의 포용력이 커지길 바란다고 말한다.

"일부러 논쟁을 부추기려고 영화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다만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깨고 그 시대의 문제를 동시대 사람들과 공유하려고 했을 뿐이죠. 제 영화는 온갖 변화와 시대의 문제에 대해 불교적 세계관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고, 그 방식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변태적인 성행위 묘사로 한국영화 사상 처음으로 두 번이나 등급보류 판정을 받았던 영화 '거짓말'은 가장 정치적인 영화라는 평가를 받으며 베니스 영화제에서 경쟁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 영화를 만들면서 아름답고 추한 것, 좋고 나쁜 것, 깨끗하고 더러운 것에 대한 분별심을 버리게 됐습니다. 배우들에게도 떳떳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면 관객들도 그렇게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개봉된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이하 성소)' 역시 만장일치보다는 갑론을박의 평가를 끌어내며 쉽지 않은 질문을 던졌다. 3년이 넘는 제작 기간과 110억원이라는 초유의 제작비가 들어간 이 영화는 감독에게 적지 않은 마음고생을 안겨주기도 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 주가 성소를 구하기 위해 시스템에 들어갔을 때 문제를 푸는 열쇠로 주어진 것은 금강경 사구게의 한 구절인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모든 상이 허망하니 상을 상 아닌 것으로 보면 여래를 본다)'. 이 구절은 영화를 만드는 전 과정에 있어 장 감독의 화두이기도 했다.

"내 목을 파고드는 죽비소리/ 따라 나는 갑니다/ 지금은 소발자국 어지럽고/ 아직은 죽비소리 슬프지만/ 언젠가는 그 소리마저 잊을 거예요."('심우도' 전문)

장 감독은 "그동안 관객들이 영화를 평가했다면, '성소'는 영화 관객의 삶에 대한 경험수준과 이해력을 평가하는 영화"라고 자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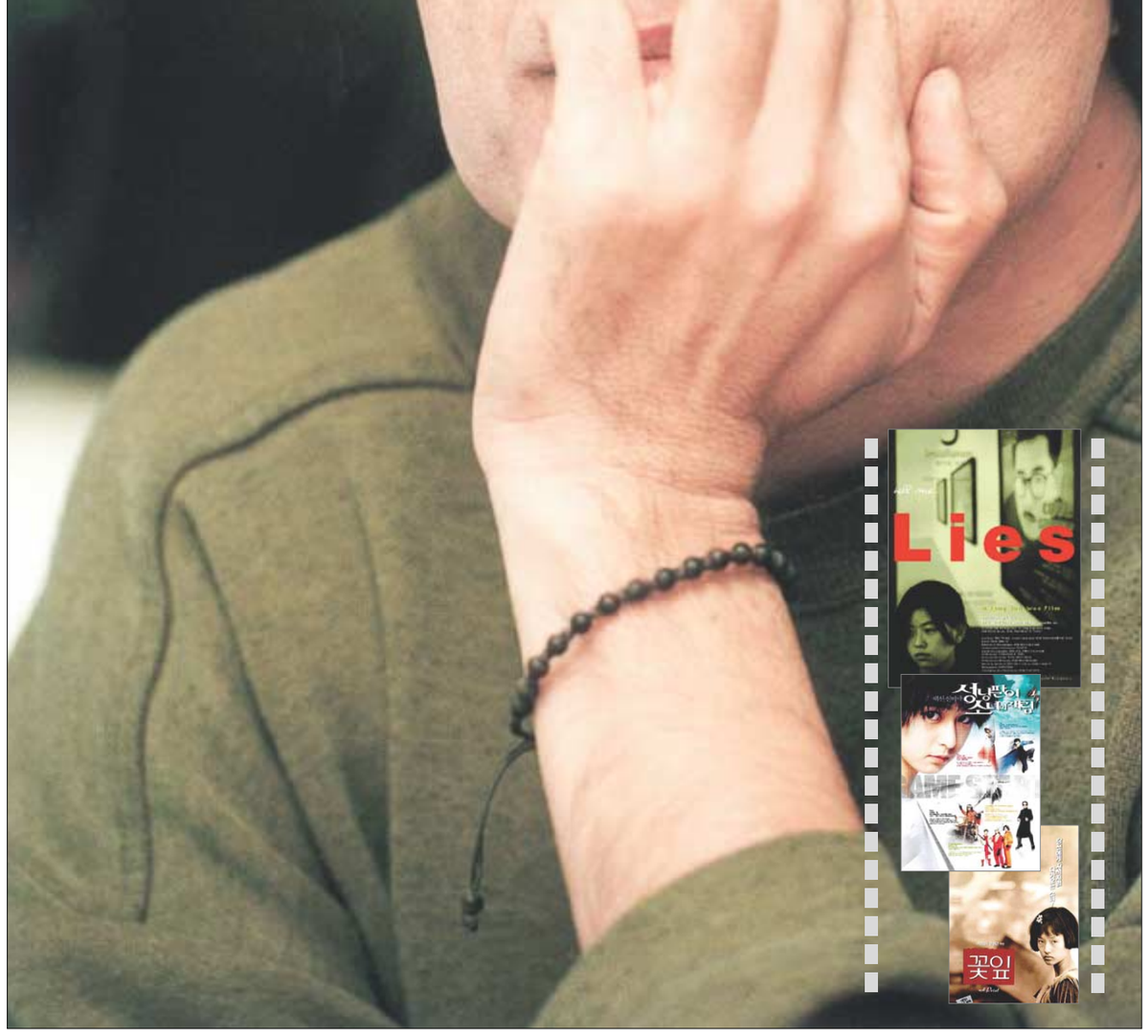
"불교도 그렇잖아요. 부처님이 제시한 길 역시 내가 아는 만큼 볼 수 있고 실천할 수 있으니까요. 제 영화 작업 역시 선재동자가 늘 머물지 않고 법을 찾아다니는 것과 같이 지난 영화가 이뤄놓은 성과를 모두 부정하고 새롭게 떠나는 '구법(求法)'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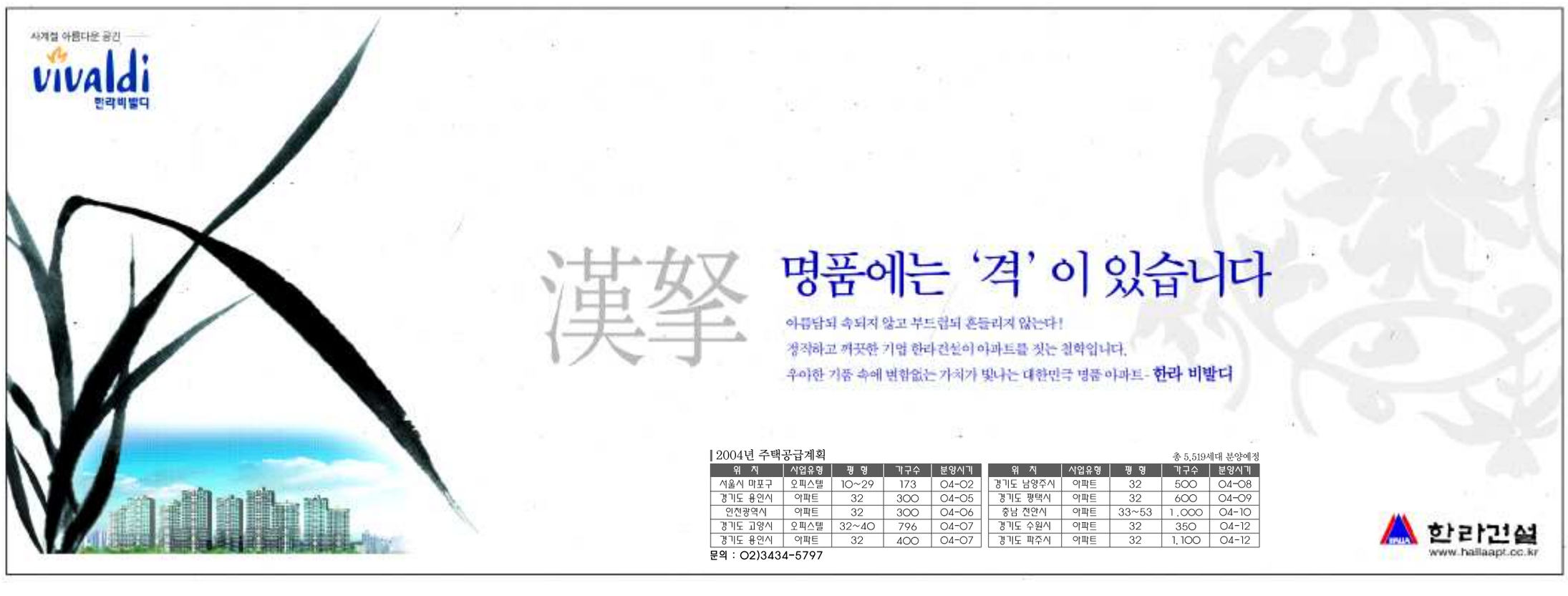
그와의 인터뷰를 마칠 무렵, 영화 '성소'에 나온 대사 한 구절이 생각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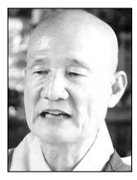
"방심하지 말고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세요."

장 감독이 영화를 통해 감독 자신에게, 행복의 길을 찾아 나선 사람들에게,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던지는 말이 아닐까.

글=여수령 기자 · 사진 고영배 기자







자재만현 스님의 염불선 이야기 <1>

붓다, 무아속 절대계에 계신다

자재만현은 먼저 오체투지하면서 삼가 삼계의 지존이시고 구원실성하신 최초불 석가모니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 스승이시고 보살들의 상수이신 대지문수사리보살님께 귀명하나아다.

<화엄경> 십지품에 "보살이 제9 선혜지(善慧地)에 오르면 큰 삼매의 힘으로 부처님(化身)들을 뵙고,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다"는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붓다는 상주불멸하십니다. 붓다 이룬 분들이 계시는 곳이 있습니다. 다음은 약사 부처님의 법문입니다.

"부처님은 마음 밖에 계신 것도 아니고 마음 안에 계신 것도 아니다. 무아속 절대계에 계신다. 마음은 안과 밖이 없어 움직이지 않아 여여하듯, 부처님 또한 그리 계신다. 다만 중생들이 분별하여 있다 없다 할 뿐. 부처님들은 무아속 절대세계에 계신다."

독자 여러분, 나는 그동안 무던히도 오랜 세월 동안 '과연 마음이 부처인지(心卽是佛), 마음의 본성을 깨치면 부처님이 되는 건지(見性成佛), 부처님이 되어 열반에 든 후에 어디로 가는지, 공(空) 자체가 되어버리는 건지' 이를 화두로 삼고 '주인공, 마음'을 깨치고자 줄곳 씨름해 왔습니다.

드디어 나는 부처님의 위신력에 이끌려 무아속 삼매에 들 수 있었습니다.

"비었어라 비었어라. 삼천 대천세계가 비었어라. 먼지 하나 티끌 하나 없는 공의 세계, 맑고 깨끗한 청정 자체. 환희 환희 환희 그 자체인 것을. 좋구나 좋다, 좋구나 좋아. 본래부터 가진 것 없어 있는 그대로가 무아로다. 있다 없다. 분별심 놔 버리면 무아 속 절대계의 빛인 것을."

무아속 삼매의 환희는 이 세상 어떤 쾌락, 말초신경의 쾌감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아속 삼매, 적정삼매는 억겁의 공덕과 수행을 쌓아 들에 괴는데, 처음에는 부처님의 위신력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삼매에 들기 전 '무량광(無量光)'이라는 부처님 빛을 보게 됩니다. <열반경>에선 이를 '열반광'이라 했고, 문수보살 관련 경전에서는 '억종광명(億種光明)' <지장십륜경>에선 '백종오색광명(百種五色光明)', <미타 삼부경>에선 무량광이라고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빛덩이는 소위 견성(見性)할 때 경계가 뒤집혀 온통 드러나는 자성광(自性光)과 비교할 때 천지차이로 다릅니다. 무량광은 또한 '자연의 빛(태양광)'과도 다릅니다. 안팎을 비춥니다. 광도로 말하면, 여름 한낮 햇빛 속, 눈이 시려 볼 수 없는 태양 광도의 수 천배가 된다고 할까요?

佛身은 빛덩이로 존재
광도, 태양광의 수천배

부처님 되신 분은, 이 육신과 육신 속 자기의 본체 외에 무아속 절대계, 곧 불계(佛界)에 자기 불신(佛身)을 갖게 되는데, 그 불신은 무량광이라고 하는 빛덩이로 이뤄져 있습니다. 붓다는 무량광이라고 하는 빛덩이를 하나 더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을 교학에선 보신(報身) 혹은 법신(法身, 금광명경)이라 합니다. 금강불괴의 진신입니다. 붓다는 영원불멸하는 '빛의 몸둥이(불신)'를 지니기 때문에 미래제가 다하도록 멸도할 수 없습니다. (계속)

자재만현 스님은 1960년 부산 선암사에서 율사인 석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 통도사 경봉 선사 문하에서 공부 했다. 조계종 총무원 교무, 포교, 재무부장 등을 역임하고 조계종 중앙상임포교사로서 전국에서 설법했으며 해동불교대학 학장을 맡아 재가자 포교에 나서기도 했다. 현재 춘천 현지사 회주로서 후학 양성에 몰두하고 있다.

평화로운 침묵으로 '참나 찾기'



◇ 이동호 원장(아래)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있는 순일수련원 수련생들.

탐/방/ 순일수련원

12월 28일 경기 양평에 위치한 순일수련원. 10여 명의 수련생들이 '순일 이동호(44) 원장과의 대화' 시간을 갖고 있었다. 남양주 봉인사와 미내사클럽, 정신세계원 등에서 순일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이동호 원장은 너무나 평범한 모습으로 수련생과 어울려 편안한 수행 문답을 나누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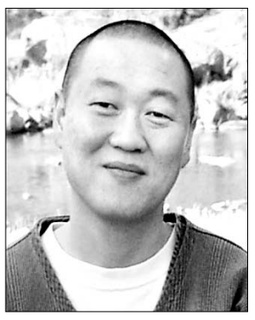
"순일 프로그램을 간단히 정리하신다면?"

"이곳의 프로그램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모든 근심과 걱정의 원인이 과거의 번뇌와 미래에 대한 바램과 근심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소멸시키고 나아가 '거짓 나'를 녹임으로써 궁극적으로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하는 체험적 프로그램입니다."

처음 수련원을 방문하는 초보 수행자들의 기초적인 질문에도 자상하게 답변하는 모습이 동네 형님 같다. 프로그램을 마친 수련생들의 성과를 묻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다.

"전 과정을 마치신 분들은 깊거나 얕은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노력하면 늘 삼매에 듭니다. 삼매에는 노력해야 드는 삼매와 노력하지 않아도 늘 삼매상태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노력해서 언제든 들 수 있다면 점점 깊은 상태에 있게 되며 시간이 지날 수록 노력하지 않아도 늘 삼매 상태가 되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본연삼매 입니다. 삼매란 참나의 상태 혹은 순수의식 상태입니다. 본래의 참마음입니다."

말 없는 침묵과는 다른, '평화로운 침묵'을 성장기에 체험했다는 이동호 원장. 일찍이 인생의 모든 굴곡과 희로애락을 맛보겠다고 선언하고, 온몸으로 부딪히는 삶을 살아가다 어느 순간 15세 때의 그 평화로운 침묵을 재차 체험하고 '그것이 무언가' 하는 의문을 가졌다. 삼매 체험이었음을 깨닫고 '참나' 찾기에 집중, 자신의 근원과 하나되어 항상 온전한 평화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자신의 굴곡



많은 체험을 여러 사람과 나누고자 책도 쓰고 수련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는 그의 '참나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순일 수련원의 방편은 다음과 같은 '일원상의 여정'으로 짜여져 있다고 한다. 즉 △참나를 알게 한다. 관념으로 자기라 여기고 덧칠한 색깔들이 나라고 우기고 있음을 알게 한다. △'거짓 나'가 스스로 쓰러진다. △쌓여 온 무거운 짐을 다 벗어 던진다. △늘 참나의 상태가 된다. △온전한 평화의 삶 등의 여정은 4단계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각 단계는 6박7일 과정이며, 전과정은 24박 25일간 이다. 한번에 6박 7일 시간을 낼 수 없는 수련생은 나누어서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다. 4 단계의 방편을 하는 동안 방편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총체적 이해가 생긴다. 해보지 않은 방편에 대한 원리의 이해는 물론 현상과 실상에 대한 지혜가 생기도록 돕는다.

그러나 일단 병을 낫게 하면(참나를 보면) 모든 방편들은 놓여져야 한다. 깨달음이란 선도 악도 초월한 자리요 고통도 행복도 여읜 자리이기에, 참나에는 어떠한 대립 개념도 없다. 늘 열려 있는 마음의 눈으로 주시할 때 이 세상 자체가 공부하는 학습의 장이 되다는 것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4단계 순일 프로그램

1단계
강의·명상하며 번뇌 녹이기

2단계
무의식 속 번뇌 자면서 없애기

3단계
죽음에 대한 두려움 뿌리 뽑기

4단계
늘 삼매 상태로 우주와 하나되기

▶번뇌소멸 단계
강의와 문답, 참회 명상 등을 통해 과거에 살아오며 쌓여진 번뇌들이 쉬이 녹아내리게 한다. '죄의식'과 '분노' 등 번뇌의 원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죄의식을 녹이는 방법은 잘못한 것에 대해 용서를 비는 것이다. 일반적인 참회를 통해 의식수준에 있는 과거의 죄의식은 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무의식에 있는, 스스로 막아놓은 죄의식은 여전히 번뇌로 남는다. 또한 참회 중에 늘 같은 패턴으로 반응하는 경향성을 보지 않는다면 살아가며 또 다시 같은 패턴의 죄의식을 쌓게 됨을 알게 한다.

▶내외관통 단계
의식으로 끌어 올리기 힘든 무의식에 저장된 번뇌들은 자면서도 꿈속에서 소멸되도록 한다. 꿈에서 명료히 깨어 있게 되어 어리석은 과거를 이해하며, 미래에도 번뇌를 짓지 않게 된다. 자면서도 끊임없이 수행이 벌어진다. 번뇌들이 낯동안의 별다른 수행없이 녹아들며 몸은 빛으로 화하도록 한다. 결국 내외가 사라지며 우주와 관통하는 체험을 하게 된다. 깊어지면 꿈 없이 자면서도 깨어있음이 벌어진다.

▶비암비명 단계
어두움과 유기체(몸) 소멸에 대한 총체적 두려움의 뿌리를 본다. 두려움이 사라지며 온 우주가 내 안에 있음을 실체적으로 느낀다. 투명한 내안에 삼라만상이 늘 존재함을 느낀다. 생각대로 살게 되어지는 삶을 이해하고 보게 되며, 부정적인 생각의 경향성(업식)이 스러진다. 온전히 보게 되었다면 경향성은 전체로 무너지며, 죽은 생각이 아닌 살아있는 본래마음이 된다.

▶삼매 단계
깊음의 차이는 있을 망정 노력하면 늘 삼매에 든다. 참마음의 상태에서 나비를 보고는 나비가 되며 개나리를 보고는 개나리가 된다. 대상과 하나되는 상태가 벌어지며, 깊어지면 오로지 깨어있음만의 상태가 된다. 참마음 상태에서 지복을 느끼게 된다. 이러고 나면 온전자(전체자, 무한)가 되는 지혜가 생긴다. 마지막 지혜가 있게 된다면 일순간에 무한자가 된다. (031)771-9765

청봉스님, 육조단경 강설



인터넷 다음카페(cafe.daum.net/buddhajukbi)에서 '장군죽비'라는 아이디로 재가자들의 선수행을 지도해 온 서울 불심정사 조실 청봉 스님이 오프 라인상에서도 본격적인 선지도에 나섰다. 최근 <육조단경>(경서원)을 출간한 청봉 스님은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불심정사에서 '육조단경 강의'를 개설하고 매주 첫, 셋째 일요일 오전 10시 선법문 및 문답 시간을 갖는다.

덕숭총림 수덕사 초대방장 혜암 스님의 제자인 청봉 스님은 <육조단경> 서문에서 "조계 육조 대사의 도행(道行)을 기록한 육조단경은 선지법문의 소의경전이나 다름 없는 최상의 법문"이라며 "상근기로서 법을 구하는 선 수행자라면 수지해서 귀감으로 삼아야 할 필독서"라고 밝혔다. 청봉 스님은 "다만 글을 쫓아 외우고 글에 굴림을 당하지 말고, 그 글가운데의 오묘한 뜻을 참구해 계합하게 되면 깨달음을 증득할 것이며 글(법문)을 가히 굴린다 할 것"이라며 선어록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02)534-7515

금강불교대학 2548년(2004) 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

본 대학은 국내최고의 교수진을 초빙하여 운영하는 불교교양대학으로써 한국불교중흥과 불교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하는 천태종 종립교육 기관입니다.
입학의 문은 신도 뿐만 아니라 불교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학과과정	지역 (기수)	교육년한	교 과 목	교 육 일 시	지 원 자 격	특 전
불교학과	초급과정	1 년	신행입문, 원시불교, 불교학개론, 불전이해, 불교경전개설	매주 월요일 1교시 : 오후 6시 30분 ~ 90분간 2교시 : 오후 8시 00분 ~ 90분간	* 불교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응시 가능합니다.	· 수업료는 종단에서 지원 · 수료 후 중급반 진학 자격취득
	중급과정 (서울21기, 부산16기)	1 년	한국불교사, 법화경요해, 대승불교사상, 천태지관	매주 화요일 1교시 : 오후 6시 30분 ~ 90분간 2교시 : 오후 8시 00분 ~ 90분간	* 본교 초급과정 수료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 수업료는 종단에서 지원 · 졸업 후 교법사과정 진학 자격 취득
교법사과정	서울(11기) 부산(11기)	1 년	정토사상, 유마경, 금강경, 포교방법론, 화엄학, 비교종교, 밀교사상, 천태종학, 열반경	매주 수, 목 1교시 : 오후 6시 30분 ~ 90분간 2교시 : 오후 8시 00분 ~ 90분간	① 본교 중급과정 졸업자 또는 ② 불교전문 교육 2년 과정의 수료자	· 수업료는 종단에서 지원 · * 졸업 후 별도 시험 과정을 통하여 종단내 교법사 선발

학 과	모집정원		제 출 서 류	면 접 일 시	원서교부 및 접수	원서료	전형방법	입학식
불교학과	서울 · 부산 각 120명	초급과정	가. 입학원서 1부(본교 소정양식) 나. 주민등록등본 1통 다. 반명함판사진 4매(원서용포함)	*서울 : 2004년 2월 26일오후 6시 *부산 : 2004년 3월 1일오후 6시	가. 기 간 : 2003년 11월 20일~ 2003년 2월 16일 오후 4시까지 나. 접수처 : 서울, 부산 금강불교대학 교무과	원서료 : 5,000원	가. 1차 서류 나. 2차 면접	*서울:2004년 3월6일 오후 2시 *부산:2004년 3월7일 오전 11시
		중급과정	가. 중급과정 지원서 1부 나. 사진 2매	서류전형				
교법사과정	서울 · 부산 각 50명		가. 교법사과정 지원서 1부 나. 사진 1매	*서울 : 2004년 2월 27일 오후 6시 *부산 : 2004년 3월 2일 오후 6시				

【서울 금강불교대학】
서울 교무과 02-576-6401 신촌성룡사 02-336-2052 봉천동명락사 02-889-7272 강동구강사 02-479-4450
망우동삼룡사 02-496-3839 구로명화사 02-854-0196 분당 대광사 031-715-3000 인천연화사 032-873-0747
수원용광사 031-255-4105 안양대안사 031-459-3666 성남화성사 031-745-1482 구리금성사 031-563-9364
평택법장사 031-655-9090

【부산 금강불교대학】
부산교무과 051-808-0730 울산정광사 052-277-7100 마산삼학사 055-244-6464 대구대성사 053-651-6108
포항황해사 054-277-3611 김해해성사 055-336-3585

◆ 서울 금강불교대학 ◆ 부산 금강불교대학

◆ 면접 후 개별통보

◆ 서울 :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56번지 관문사내 2층 Tel : (02)576-6401~2 FAX : (02)574-1541
- 양재역 성남방면 7번출구 마을버스 05, 06번 버스 (LG연구소 우면APT에서 하차)
- 강남역 6번출구 414번 버스

◆ 부산 : 부산광역시 진구 초읍동 131번지 삼광사내 Tel : (051)808-0730,0713 FAX : (051)819-7654
- 어린이대공원 인접지에 위치함

이재창-금강불교대학학장 원의범-동국대명예교수 김영태-동국대명예교수 리영자-동국대명예교수 권기종-동국대교수
서윤길-동국대교수 장충식-동국대교수 김상현-동국대교수 이봉춘-동국대교수 조용길-동국대교수
박경준-동국대교수 김용표-동국대교수 권탄준-금강대교수 지창규-동국대교수 최종석-동국대교수
허경구-동국대교수 김승일-국민대교수 이동우-동국대교수 최기표-동국대교수 정성준-동국대교수
최봉수-동국대교수 오지연-동국대교수 김은희-동국대교수

대한불교 천태종 금강불교대학장

리듬에 몸을 맡기고 무아의 경지로…

춤명상을 아시나요

12월 28일 일요일 오전 10시, 서울 정신세계원 강의실에 작고 느릿한 움직임들이 부드럽게 엉켜 들어간다. 매트 위에 몸을 뉘여 관절을 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명상음악에 맞춰 조용히 몸을 움직이는 사람도 있다. 허리와 등을 곧추세우고 삼매에 젖어든 사람 역시 눈에 띄며 취하기 힘든 요가자세에 일념을 모은 사람도 있다. 수업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누구하나 어색하지 않은 움직임으로 '자유로움'에 젖어드는 시간이다.

10분이 흐르자 무대 뒤에서 한 여인이 나타난다. 작은 체구에 호리한 선이 시선을 잡아끄는 사람. 이날의 춤명상 수업을 이끌 강사, 박태이(39) 씨다. 정제된 표정과 검은 의상만으로 묘한 움직임을 보이던 그는 앞으로 진행될 명상의 과정을 자분자분 늘어놓기 시작했다. 앞으로 이어질 명상은 참가자 스스로 쉼없이 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지도에 따라 수업이 시작됐다. 환한 조명이 어두워지고 명상음악이 자못 진지하게 울린다. 처음 단계는 몸 감각 익히기. 참가자들은 매트 위에 편안히 눕는다. 마치 아침잠에서 깨어나듯 몸에 묻은 피로와 긴장을 훌훌 털어낸다. 기지개를 펴도 되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늘어져도 좋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런 가운데서 몸의 감각을 하나하나 살피는 일이다. 내 몸이 지금 이 순간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찬찬히 지켜보는 것.

그렇게 15분이 흐르니 빠른 비트의 음악이 흘러나온다. 이제는 깊은 호흡으로 몸의 감각을 일깨우고 신체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시간(10분)이다. 입은 막고 코를 통해서만 격렬하게 호흡한다. 가능한 빠르고 깊게, 전력을 다해 호흡한다. 호흡에 집중하다보면 몸 속 에너지가 움직이고 그에 따라 신체도 움직이기 시작한다. 낯선 움직임에 동요하지 말고 오직 호흡한다. 호흡으로 세포 하나하나까지 일깨운다는 생각으로 호흡 호흡 호흡….

몸 감각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피고 깊은 호흡으로 막혀있던 에너지 분출

이제는 호흡으로 한껏 열린 몸을 통해 에너지를 분출할 단계다. 신체에 자유를 주고 몸이 원하는 대로 뭐든지 표현한다. 한층 빨라진 음악이 분출을 돕는다. 노래, 비명, 고함, 울부짖음 뭐든지 좋다. 필요하다면 뛰고 구르고 걷어차도 좋다. 모든 것을 밖으로 내던진다는 기분으로 의식적으로 미쳐본다. 촛불 하나에 의지한 강의실에는 나를 의식하는 눈은 없다. 그 무슨 일이든 마음에 끼어들지 못하는 이 순간, 내 몸에 모든 것을 내맡길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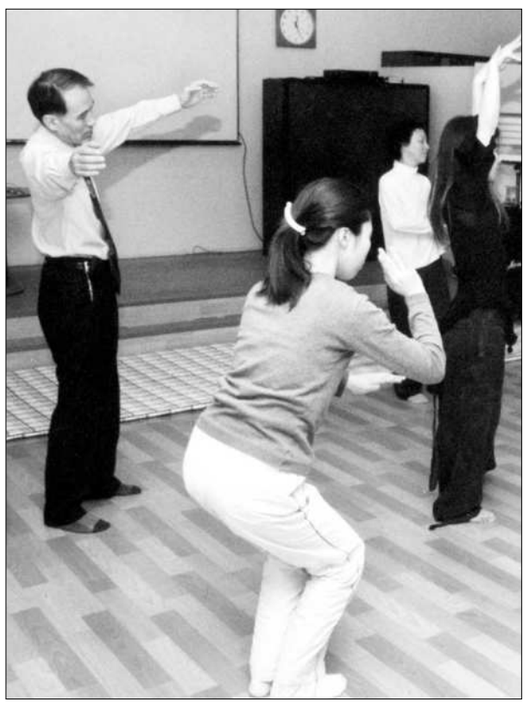
의식적으로 미치던 10분이 지났다. 음악이 바뀐다. 새로운 15분의 시작이다. 박태이 강사는 음악이 바뀌는 순간 모든 동작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 그 상태로 얼어붙으라 했다. '지금 이순간'의 에너지 흐름을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서다. 나는 그 상태에 멈춰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시한다. 잡념이 일면 그대로 흘러가게 놔둔다. 깨어있는 나는 그러한 생각의 흐름도 그저 바라볼 뿐이다.

이제 본격적인 춤명상 과정에 접어든다. 그에 앞서 박태이 강사는 걷기 명상의 과정을 따로 두기로 했다. 일상적인 동작을 춤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중요한 단계다. 잠깐의 걷기 명상 단계를 거쳐 참가자들은 춤명상에 서서히 몰입하기 시작한다. 음악에 맞춰 손끝이, 발끝이 하나하나 살아나는 사람들. 그들의 움직임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더 깊어진다. 춤추는 자로서의 에고(EGO)를 잊고 춤 그자체가 되기 위한 몸부림들도 터져 나온다.

춤추는 자와 춤의 구분이 있다면 그것은 운동일 뿐 명상이 아니다. 춤의 흐름에 나를 온전히 내맡길 때 나는 춤과 혼연일체가 될 수 있다. 이때만큼은 바람이 불고 강물이 흐르듯이 나는 춤의 흐름으로 존재한다. 박태이 강사는 참가자들이 만들어 가는 이 거대한 에너지 흐름에 동참한다. 그 순간 강사와 참가자들 간 경계도 무의미한 것.

한 시간 가량 내면으로의 여행을 떠난 이들이 이제는 깨어날 준비를 한다. 처음과 마찬가지로 매트에 누워 몸의 감각과 에너지를 가만히 관하는 시간이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깨어난 몸과 마음에서는 나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녹아 나간다. 그래서 다음주 이 시간을 또다시 기약하게 된다. 박태이의 춤명상 수업은 매주 일요일 그렇게 이어져 오고 있다. (02) 747-7033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 춤명상에는 정해진 동작이 없다.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움직임을 표현할 뿐이다.

박태이 씨는…



국립 군산대학, 독일 하이델베르그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다. 99년 우연히 찾게 된 인도 뿌나 명상센터에서 명상을 배우며 몸에서 '춤이 터져 나왔다'. 무용전공자도 아니고 배움을 얻은 스승도 없지만, 함께 수련하던 명상가들은 그를 보고 "미라(힌두교 춤의 여신)의 화신같다"며 놀라워할 정도였다. 그는 그때부터 온몸을 던져 하루 13시간이 넘도록 춤을 췄다. 그러는 동안 20년 이상 그를 괴롭혔던 우울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 같은 깊은 체험은 명상법에도 그대로 녹아 들어, 그는 이론을 넘어서서 심신과 감응하는 춤명상의 대표주자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김정일 신경정신과와 상계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무료로 춤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해 '치유하는 춤명상'으로 적극적인 신뢰를 얻기도 한다.

명상 도중 춤 터져나와 우울증 그늘 벗어난 후 '치유하는 춤명상' 전파

정신세계원, 학생 영어 요가 교실

정신세계원은 방학 중인 중 · 고생을 대상으로 '학생을 위한 영어 요가 교실'을 1월 6일 개강한다. 강의는 영어위주로 진행되며 요가동작과 요가 치료법, 개인별 아사나 처방 및 지도를 비롯, 자신에게 맞는 명상 선택법 등을 다룰 예정이다.

매주 화 ·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동안 진행되는 이번 강의는 6회 과정이며, 지도강사는 전 세계에 3백여 명밖에 없는 최고의 요기자격 '아바두다(축복받은 사람)'를 가진 무쿨바수 선생이다. 참가비 6만원. (02) 747-7033

꽃피아, 스키 명상 캠프 개최

꽃피아(꽃을 피우는 아이들)는 1월 11일 오후 2시부터 14일 오후 5시까지 오대산 수련장 및 용평 스키장에서 스키 명상 캠프를 연다. 이번 캠프에서는 자연과 함께 하는 운동명상을 비롯, 만화명상과 목욕명상 등 초등학생에게 적합한 다양한 생활명상법을 지도할 예정이다. 참가비 1인 30만원, 2인 이상 25만원. (02)598-7181, www.ccopia.co.kr

데바 프레말, 명상음반 발매

전세계적인 명상음악 보컬리스트 데바 프레말(Deva Premal)의 힛트앨범 <Love is space>가 국내 출시됐다. 이번 앨범에는 지복과 평화의 세계를 노래하는 불교 · 힌두교 만트라(주문), 사랑의 신을 찬미하는 아프리카 토속 만트라를 포함해 총 7곡이 수록돼 있다. 음반 프로듀싱은 오쇼 라즈니쉬 명상센터에서의 수행경험을 현대음악에 접목시키고 있는 명상음악계의 세계적인 프로듀서 미텐이 맡았다. (033) 244-6708, www.zen.co.kr

---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자용 스님 (下)

법회 형식 파괴한 포교의 달인

자용 스님(국제불광회세계총회 비서장 · 사진)은 귀국 후 배운 것을 십분 활용하여 양로원인 불광정사와 대자육유원(大慈育幼院)을 관리했으며 자선당(慈善堂) 당주를 역임했다. 말하자면 불광산에서 가장 먼저 복지사업에 손을 대고 그 기초를 닦은 이가 스님이었다. 1983년에는 이러한 업적 때문에 대만 정부에서 수여하는 사회공헌자(全國好人好事) 대표로 뽑혔으며, 3년 연속 타이페이 지방법원의 소년법정 명예감호인에 임명되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는 이른바 '불법은 세간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준 것으로서, 불법을 체(體)로 하고 세간법을 용(用)으로 하는 성운 대사의 '인간불교(人間佛敎)'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른 것이었다.



5계를 생활 7계로 바꿔 보급 한달간 70여회 법회 열기도

자용 스님은 20여 년간의 사회복지에 대한 현장 경험에서 남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다. 즉, 어려운 사람에게 단지 물질만으로 보시를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손님 앞에서 쥘없이 떼를 쓸 때 돈 몇 푼 쥐어주고 사탕이나 사 먹으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다. 아이를 잘 타일러 그러한 것이 무엇이 잘못 되었는가를 깨우쳐 주는 것처럼, 복지도 물질적인 지원과 함께 불법의 이치를 배워 욕망을 억제하고 건전한 생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복지라는 것이다.

이러한 복지사업 이외에도 자용스님의 활동이 두드러진 것은 타이페이 보문사(普門寺)에서 보여준 10여년간의 주지 생활이었다. 대만의 남부 까오슝에서 불광사가 개창된 이래 성운 대사는 수도 타이페이가 정치 경제의 중심지이므로 이곳의 포교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도량을 건설하기로 마음먹었다. 보문사의 건립에는 자장 스님과 자용 스님의 역할이 지대했는데, 자장 스님이 도량건설 등의 하드웨어를 담당했다면 자용 스님은 보문사의 포교 활성화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담당했다고 할 수 있다. 보문사에서는 한달에 70여 회의 법회를 개최했으며, 여기에 경조사에 따른 법회까지 합치면 하루에도 수 차례의 행사를 가졌다는 얘기가 된다. 다양한 계층의 신도들을 포섭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회가 필요했던 것이다. 자용 스님이 창안한 다양한 법회양식은 불교계의 귀감이 되어 불광산 이외의 많은 사찰에서도 이를 모방하였고 대만 불교의 오늘이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보문사에서 주위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채식을 무상제공하면서 그들을 결국 보문사의 신도로 만든 일화는 너무나 유명하다. 불교계의 역량을 결집하여 사회에 더욱 이바지하고자 성운 대사에 의하여 주창된 '국제불광회'도 오늘의 발전된 모습을 보이기까지에는 자용 스님과 그를 따르는 신도들의 힘이 컸다. 1991년 2월 중화불광협회가 타이페이 국부기념관에서 발족한 이후 1년 뒤인 1992년에는 전세계의 불광산 신도대표들이 모여 국제불광회총회를 미국의 서래사에서 거행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자용 스님의 기획력과 추진력이 큰 몫을 담당하였다.

자용 스님은 사회 활동에 대해서도 매우 창의적이고 적극적이었다. 예를 들면, 불교의 5계를 일상 생활상의 7계로 전환하여 사회에 보급했다. 이때에도 딱딱한 법문이나 훈계를 통해 알리는 것이 아니라 대중 스타들이나 사회에 알려진 인물들을 동원하여 매스컴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널리 보도되도록 하여 대성공을 거두었다. 이처럼 천편일률적인 법회형식을 탈피하고 각종 공연이나 야유회, 바자회 등을 곁들여 자연스럽게 불법이 홍포되도록 함으로써 불광산의 신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만들었다.

김재경 기자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2004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24기생**을 모집함

1년 교과목	· 불교학개론 · 선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 최종석(동국대교수)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 윤열수(문화재전문위원) · 활안스님(금강선원총재) · 김호귀(동국대교수) · 최봉수(동국대교수) · 주명철(동국대교수)
2년 교과목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암도스님(전포교원장) · 묘주스님(동국대교수) · 차차석(동국대교수) · 정병조(동국대교수) · 김상현(동국대교수) · 김상영(승가대교수) · 박 종 (동산불교대교수) · 권기종(동국대교수) · 정엄스님(승가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 불교학과(200명) (정규반 · 주간반 · 통신반) (100명) (50명) (50명) · 다도학과(50명) · 불교미술학과 (30명) · 불교한문학과(50명) · 불교문예창작과(5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불교학과] 2003년 12월 20일~ 2004년 1월 31일 입학금 20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간반)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다도반)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미술반)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한문반)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문예창작반)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

4. 입 학 일 시 **불교학과 : 2004년 2월 7일 (토) 오후5시 (동산불교회관)**
불교한문학과 · 다도학과 · 불교미술학과 · 불교문예창작과 : 2004년 3월 4, 9, 10일 개강

5. 원서교부처

본대학 사무국 Tel. 02) 732-1206~8 Fax. 732-1207 (우) 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 www.dongsanbud.net

· 서울 : 보련각 (조계사앞) 02) 733-0333 · 부산 : 불서보급사 051) 246-4321 · 대구 : 삼영불교서림 053) 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 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 232-7542 · 제주 : 예전 수보리 쉼터 064) 743-4184

※ 특전사항 :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 상기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회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불교학과, 한문학과)

DONGSAN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 산 불 교 대 학**

(출강 · 통신) 2004학년도 제13기 법사양성을 위한

법사학인 신입 수강생 모집

불교지도자로서 위의를 갖추고 섭화중생하며 부처님의 가피와 공덕이 충만한 법사(法師)가 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12년의 역사와 함께 불교지도자로서 자격을 갖추고 법사활동을 지망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2004학년도 제13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1.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2. 모집학반 : ❶ 출강반 ❷ 통신반
3. 입학자격 :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4. 제출서류 : • 입학원서(본대학 소정양식) 1부
• 사진 2매 • 주민등록초본 1부
5. 교육기관 : 법사과정=1년(교과목 및 불교의식)
대법사과정=2년(교과목 및 참구수행)
6. 교육장소 : ❶ 서울 본 대학 ❷ 부산 학습 도량
7. 원서 교부 및 접수 : 2004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8.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대학 교무처(우편 팩스 접수가능)

※ 전화문의 하시면 모집 요강과 원서를 보내 드립니다.

특 전

•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 품수와 법사법위증을 수여함
• 사찰 · 포교원 개원 및 등록시 적극 지원함
• 출가 득도시 수행 이력을 인정받을수 있음
• 법사불교신문 상임법사위원으로 위촉 및 추대함
•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상임법사로 활동할 수 있음
• 사찰법회 및 불교행사에 초청법사로 추천함
• 교도소 · 군법당 등에 포교활동을 적극 추천함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부설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견지빌딩 3층)
☎ (02)720-1836 · 733-1959
FAX (02)737-5305
인터넷 http://pubsa.buddhism.org



경허 선사는 근대한국불교선의 중흥조다. 1846년 출생. 9세때 청계사로 출가(스승 계허). 21세에 동학사 선원에서 오도. 59세에 갑사서 원적.

인 터 뷰

'주장자 따라' 연재하는 조태호 화백



"깨달음의 주장자 실컷 맞아 봅시다"

"선지식들에게 있어 먹고 자는 일에서 손짓 하나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동은 깨달음을 향한 구도 과정이기도 하고, 깨달음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선지식들의 일상에서 채집된 많은 일화들도 그 높은 깨달음의 단면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찰나를 만화로 표현해 보고 싶었습니다."새해부터 본지(本紙) 교리면(20면)에 '주장자 따라…'를 연재하는 조태호 화백. 그는 간단한 선과 간결한 언어로 선사들의 자유자재 했던 삶을 표현하는데 도전했다. "그 분들의 거침없는 삶에서 뿜어져 나오는 가르침들은 불교를 어렵다고 생각해 온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이 될 것"이라는 조 화백은 선지식들의 주장자가 오늘의 불자들에게 무서운 방망이가 되길 희망한다. 선지식들의 주장자를 실컷 얻어맞자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의 주장자를 반듯하게 세우고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업에 임하겠다는 각오다.

<약력> 1986년 일간 스포츠 만화상 수상, 스포츠 만평 연재. 89년 중앙경제 '노고지리' 연재. 94년 중앙일보 경제만평, 2000년 한국일보 조삿갓 연재.

임연태 기자

네티즌 교리문답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란?

문 금강경에 나오는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이 무슨 뜻인지 가르쳐 주소서. 어떻게 머뭄없이 마음을 낼 수 있을지요.(붓다뉴스 ID '먹쇠')

답 1 : 육조 혜능(慧能) 스님이 어느 날 <금강경>을 읽다가 홀연히 깨달았다고 하는 이 글귀는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고 해석됩니다. <금강경>의 핵심이자 선종에서 중요시 하는 이 글귀는 '모든 것이 공하기 때문에 집착할 필요가 없으며, 취사 선택하지 않고 마음을 쓰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ID '김성우')

답 2 :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조주 스님의 '머무는 바가 없는 근본에서 일체의 법을 세운다(從無住本 立一切法)'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모든 사물 속에서 하나의 차별없는 실체를 깨달아 사물의 모습에 집착하려고 해도 집착할 것이 없음을 분명하게 통달한 경지입니다. (ID '푸른바다')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애독자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선의 세계 ㉕

견성성불(見性成佛)-12

'성불하겠다'는 의지까지 내려 놓아라

지난 회 글 끝 부분에서, 백척간두(百尺竿頭)에서 진일보(進一步)하라는 말에 대해 언급하였다. 선사들이 그 말을 할 때에는 모든 분별을 남김없이 떨쳐버리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그리고 부처와 자기 자신을 구분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떨쳐버려야 할 분별이라고 하였다.

까마득히 높은 장대 끝에서 한 걸음 더 내딛으라고 함은 떨어져 죽으라는 얘기인데, 분별을 남김없이 떨쳐버리는 것을 두고 어찌하여 죽는 일에 비유하는가? 지난 회 글에서도 말했듯이, 우리는 분별을 삶의 기본적인 기능이며 생존의 필수불가결한 무기라고 여긴다. 하기는 찬 것과 뜨거운 것, 네모와 세모 등 사물에 대한 단순한 분별은 물론이고, 먹어도 좋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 안전한 것과 위험한 것,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 좋은 것과 싫은 것 등등 온갖 분별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들다. 그런데도 분별을 남김없이 떨쳐버리라는 것이니 가히 죽음에 비유할 수 있다.

그 모든 분별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분별은 나 자신과 바깥세상 사이의 분별이다. 달리 말하자면 주객(主客)의 구분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동하는 모든 분별은 그 가장 근본적인 분별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자기를 위주로, 즉 나 자신을 주(主)로 삼고 바깥 세상의 모든 것을 객(客)으로 삼아 온갖 분별을 일으킨다.

그런 분별 자체는 이상하다 할 것도 잘못이라고 할 것도 없이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우리는 워낙 삼라만상 가운데 하나, 즉 개별자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와 나 아닌 것의 구분을 존재의 가장 기본적인 틀로 삼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교의 근본교리에서는 그런 불가피한 분별조차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듯한 대목이 있다. 윤회의 사슬에 매어 한 개별자로 태어나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잘못되어서 그렇다고 보는 것이다.

불도(佛道)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인 해탈이란 곧 윤회로부터의 해방이다. 윤회로부터 해탈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존재의 양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우리가 알거나 상상할 수 있는 존재 양상은 언제나 개별자로서의 존재뿐이기 때문이다.

그런 경지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으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존재 양상, 즉 개별자로서 살아가는 양상의 범위 내에서만 이야기를 해보자. 문제는 우리가 각자 자기 자신을 위주로 해서 모든 개체를 분별할 줄만 알았지, 나 자신을 포함해서 삼라만상이 모두 연기적(緣起的)인 존재라는 점은 보지 못한다는 데 있다. 자신을 연기적인 존재로 본다는 것은 곧 기왕의 자아관념을 철저하게 버림을 뜻한다. 달리 말하자면 주(主)로서의 '나'가 죽어야 연기적인 존재로서의 '나'를 보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벼랑 끝에서 한 걸음 더 내딛는 일이다. 성불하겠다고 불도를 닦는 이로서는 부처가 아닌 나, 부처와 구별되는 나를 죽이는 것이니 성불할 수 있다는 믿음, 성불하겠다는 삶의 마지막 의미까지 내려놓아야 하며, 바로 그때에 이미 부처인 나의 정체가 비로소 살아난다는 얘기이다.

■윤원철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보덕정광 주야신의 법문

열가지 법문 통해 중생 구원하고 수호
항상 고요하고 즐겁고 진실한 삶 설해

바산바연저 주야신은 염부제 마가다국의 보리도량에 있는 보덕정광(普德淨光)이라고 하는 주야신(主夜神)을 선재동자에게 소개하면서 자기는 본래 그에게서 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을 내었고, 그가 항상 묘한 법으로 자기를 깨우쳐 주었다고 말하였다. 선재동자가 보덕정광 주야신을 찾아가서 보살의 경지를 출생하고 성취하는 법을 묻자, 주야신이 대답하였다.

"좋다, 좋다. 선남자여, 그대는 능히 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을 내었고 이제 또 보살의 지위를 수행하고 성취함을 묻는구나.

선남자여, 보살이 열 가지 법을 성취하면, 능히 보살의 행을 원만히 할 수 있다. 보살행을 원만하게 하는 열 가지 법이란 무엇인가. 하나는 청정한 삼매를 얻어 모든 부처님을 항상 봄이요, 둘은 청정한 눈을 얻어 모든 부처님의 잘생긴 모습으로 장엄함을 관찰함이요, 셋은 모든 여래의 한량없고 그지없는 공덕의 큰 바다를 앎이요, 넷은 법계와 평등한 한량없는 부처님의 법의 광명바다를 앎이요, 다섯은 모든 여래의 털구멍마다 중생의 수효와 같은 큰 광명바다를 놓아 한량없는 중생을 이익케 함이다.

여섯은 모든 여래의 털구멍마다 모든 보배빛 광명불꽃 내는 것을 봄이요, 일곱은 생각마다 모든 부처님의 변화하는 바다를 나타내어 법계에 가득하고 모든 부처의 경계에 끝까지 이르러 중생을 조복시킴이요, 여덟은 부처님의 음성을 얻어 모든 중생의 말에 상당하는 세상 온갖 부처님의 법륜을 굴림이요, 아홉은 모든 부처님의 그지없는 이름바다를 앎이요, 열은 모든 부처님께서 중생을 조복시키는 부사의하고 자재한 힘을 앎이다. 선남자여, 보살이 이 열 가지 법을 성취하면 보살의 모든 행을 원만케 할 수 있다.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해탈을 얻었으니 이름이 '고요한 선정의 낙으로 두루 다님(寂靜禪定樂普遊步)'이다. 삼세의 모든 부처님을 두루 보고 그 부처님들의 청정한 국토와 도량에 모인 대중을 보며, 신통과 이름과 법을 말함과 수명과 말씀과 모습이 각각 같지 아니함을 모두 보면서도 집착함이 없다.

선남자여, 내가 이렇게 모든 여래를 아는 때에 보살의 고요한 선정의 낙으로 두루 다니는 해탈문도 분명하게 알아 성취하고 자라게 하였다. 또한 생각하고 관찰하여 견고하게 장엄하며, 모든 허망한 생각과 분별을 일으키지 않고 크게 가엾이 여김으로 모든 중생을 구호하며, 한결같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초선(初禪)을 닦았다. 뜻으로 짓는 모든 업을 쉬고 모든 중생을 거두어 주며 지혜의 힘이 용맹하고 기쁜 마음이 매우 즐거워 제2선(第二禪)을 닦았다. 모든 중생의 성품을 생각하며 생사를 여의어 제3선(第三禪)을 닦았으며, 모든 중생의 온갖 고통과 번뇌를 모두 멸하여 제4선(第四禪)을 닦았다. 그래서 모든 지혜와 서원을 증장케 하고 원만케 하며, 모든 삼매바다를 내고, 보살들의 해탈바다의 문에 들어가며, 모든 신통에 유희하고 모든 변화를 성취하여 청정한 지혜로 법계에 두루 들어갈 수 있었다."

먼저 주야신이 설하고 있는 보살의 경지를 출생하고 성취시키는 열 가지의 법을 보면, 주야신이 이 법문을 통해서 널리 삼세의 모든 부처님과 그 국토와 도량의 온갖 회상을 보고 아울러 일체중생을 구원하고 수호함을 설한 것이다. 이것은 바로 부처님의 덕(德)과 행(行) 등 부처님의 경계를 여러가지로 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선재동자가 보살의 경지를 출생하고 성취시키는 법을 물었는데, 대답으로서 부처님의 경계를 여러 가지로 설하고 있는 것은 보살행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부처님의 경계를 배우고 본받아서 그것을 성취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경문에서 "이 열가지 법을 성취하면 보살의 모든 행을 원만하게 할 수 있다"고 설하고 있는 데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보덕정광 주야신이 설하고 있는 '보살의 적멸하고 고요한 선정의 즐거움으로 널리 노닐면서 걷는 해탈문'의 법문은 이처럼 보살이 부처님의 경계를 보고 알게 됨으로써 어떠한 오염이나 동요됨도 없이 항상 고요한 즐거움 속에서 두루 널리 보살의 진실한 삶을 열어가는 법을 설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덕정광 주야신은 항상 생사의 세속세계에 처하고 있으면서도 대자비를 행하여 법계에 두루할 수 있는 것이다. 그 해탈문의 경계가 초선(初禪)에서부터 제4선(第四禪)에 이르기까지의 선정(禪定)의 경지로써 설해지고 있다.

주야신의 이름이 보덕정광인 것은 지혜와 자비가 두루하면서 중생의 어두운 긴 밤을 비추기 때문인데, 특히 보덕(普德)이라 하는 것은 그 자비가 세속을 두루 널리 양육하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 보덕이라고 하는 것은 고요하면서도 깨끗한 적정(寂靜)의 지혜에서 스스로 작용해 나오는 한없는 보살의 활동을 상징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한국불교를 이끌어가는 두 축인 출가(出家)와 재가(在家) 대중. 이 출–재가의 관계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기 때문에 양쪽의 균형감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청정기풍의 확립이 승가의 책무라면 재가불자의 의무는 다변화된 사회속에서의 보살행 실천일 것이다.

불교계 전체를 다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온 재가의 대사회 활동. 하지만 그동안 한국불교는 대승불교를 표방하면서도 재가자의 사회적인 참여에는 큰 비중을 두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수행에 대한 끝없는 동경심을 갖고 재가불자운동을 펼친 한국의 유마거사들은 분명 한국불교를 오늘에 이끈 일등공신들이다. 재가불자들의 신행생활을 다룬 〈세속에 핀 연꽃〉은 이런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선배들의 '혜안과 헌신' 배우자

'세속에 핀 연꽃'

노규현 외 지음

대한불교진흥원 / 1만2천원



예술가 · 사상가 등 재가자 25인의 신행

격월간 불교와 문화에 실린 연재 원고 묶어



◇김기추 거사



◇장경호 거사



◇오상순 거사



◇이희익 거사

이 책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술계 등 각 분야에서 두드러진 업적을 남기고 타계한 근 · 현대의 재가불자들 중에서 생전에 뛰어난 활동을 보여준 25인의 신행을 4장으로 나눠 소개하고 있다. 일종의 한국불교 재가거사 열전인 셈이다. 김영수, 김잉석, 이재열, 황의돈 등 불교학 연구의 학문적 성과를 냈던 학자에서부터 고유섭, 서창업, 유달진 등 예술혼을 불태우며 장인정신을 보여 주었던 예술가와 김성숙, 유홍기, 장경호 등 불교사상가에 이르기까지 이 책의 등장인물들은 다양하다.

그러나 공통점은 존재한다. 한결같이 철저한 불교적 세계관으로 중무장(?)해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남을 우선적으로 배려한 보살심의 소유자들이란 것이다.

이 가운데 백봉 김기추 거사(1907~1985)는 20세기 한국 불교계의 큰 스승으로 기억되고 있다. 특별한 행장은 없지만 오로지 바른 공부를 강조한 것으로 후학들의 가슴속에 남아있다. 단적인 예로 부산 보림선원에서 수행할 때 학인들과 눈이 마주치면 즉석법문이 열렸다. "지옥을 싫어하지 말고 극락을 좋아하지 말아라", "착한일을 하고자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사심(私心)이다" 등의 법문을 개개인들에게 들려 주었다.

'대한불교진흥원'의 설립자 대원 장경호 거사(1899~1975)는 1972년 오늘날의 시민선방에 해당하는 대원정사를 세워 참선, 염불, 독경 등 불자들의 근기에 맞는 수행체험을 하도록 했다.

그의 아들이었던 중원 장상문 거사(1922~1992) 역시 선친의 뜻을 이어받아 대원정사 이사장에 취임해 신행단체인 대원회와 대원불교대학을 활성화 시키는 한편 대중불교 결사를 주창, 해마다 정기적으로 전국대회를 주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장 거사의 큰 공적으로 꼽히는 것은 (주)대원사와 불교방송의 설립이다. 출판과 방송 매체를 통해 불교를 대중화시키려 했다는 점이 당시로선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이름만 들어도 금방 고개가 끄덕여 지는 시인, 화가, 음악가도 소개돼 있다. 이들은 불교를 통해 자신의 예술과 문학세계의 폭을 넓혔으며, 이것들을 매개체로 대중포교에 앞장섰다. 불교미술 연구의 선각자였던 우현 고유섭(1905~1944), 경전번역과 불교문학에 심취해 고고한 수행자와 같은 삶을 살았던 월하 김달진 거사(1907~1989), 찬불가 보급운동에 앞장서는 등 현대 불교음악의 빗장을 연 마에스트로 우성 서창업 거사(1928~1989)가 그들이다. 또 제행무상의 진리를 체득해 구도의 시세계를 펼쳤던 공초 오상순 거사, 불교신문의 발전에 기틀을 마련한 덕산 이한상 거사, 최초의 선문화 전문지 월간 〈선문화〉를 발행한 종달 이희익 거사(1905~1990), 불교적 세계관으로 선(禪)을 노래한 지훈 조동탁 거사(1920~1968)도 빼놓을 수 없다.

세속에 핀 연꽃이 어디 거사들에만 한정될까. 일타 스님과 법정 스님 등 제방의 스님들을 찾아다니며 차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한 끝에 '명원다도회'를 조직한 쌍용그룹 김석원 회장의 모친 명원 김미희(1920~1981) 보살과 불교와 민속무용을 통한 구도자의 삶을 살다간 벽사 한영숙(1920~1989) 보살의 삶도 소개돼 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책속의 밑줄긋기

▷20세 때 나는 나라를 잃은 슬픔속에서 인생의 지표를 찾을 수가 없어 방황했다. 책과 사람속에서 지혜를 얻고자 했으나 만족치 못했다. 그때 크게 생각되는 바 있어 불경을 탐독했는데, 거기서 한가지 결심이 서게 됐다. 부처님 말씀대로 살면 사람 노릇을 하겠구나 하는 것이었다. 그후로 나는 술, 담배, 고기를 절대로 먹지 아니했다. 부처님 가르침에 어긋나는 일은 결코 안하기로 결심했다. (대원 장경호 거사의 설법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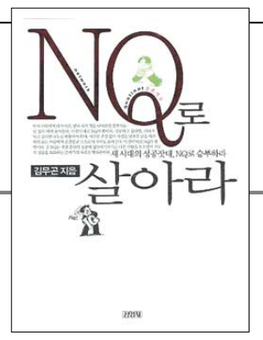
▷죽고나면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인데, 구태여 이름 따위가 무엇이냐는 것이 월하 선생의 지론이고, 또 그것을 실천한 것이 월하인 것이다. 월하의 일생은 매일 새벽 5시경에 일어나 참선하고, 그 다음 해가 동터올 무렵까지 2~3시간 작업에 몰두한 다음 간략한 아침 식사 후 유유자적 하게 하루를 보냈다. 노년에는 동네 막걸리집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허물없이 대화하며 어울렸다. 물론 그 자신은 많은 말 대신 남의 말을 들었다.(월하 김달진 편 중에서)

전문가 서평

'NQ로 살아라'

김무곤 지음

김영사 / 1만9백원



성공하려면 공존지수 높혀라

철밥통을 지켜주던 학연, 지연도 이제 소용없다. IQ 서열로는 남부러울 것 없다던 해외 박사 학위 소지자들도 일자리를 찾기 힘들다. IMF 이후 달라진 한국사회에서는 연줄도 좋은 머리도 통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새 시대의 성공 잣대는 무엇일까. 김무곤 교수는 이같은 질문 앞에 'NQ(Network Quotient)'라는 신개념 답안지를 들이밀었다.

새 책 〈NQ로 살아라〉는 21세기형 인간척도인 '공존지수'의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 바로 새로운 네트워크사회에서 함께 잘 살아가는 능력이다.

김무곤 교수는 NQ가 우리에게 익숙한 IQ나 EQ 같은 것과 본질적으로 다른 점은 바로 '서로 나누는 행복'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자신의 학연, 지연 그룹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소외시키고, IQ를 높이기 위해 인생을 소비하는 방법으로는 더 이상 발전이 없다는 주장이다.

한국사회는 이미 NQ시대의 가능성을 지켜보았다. 붉은 악마의 월드컵 응원과 촛불시위에 이어 새로운 대통령을 만들어낸 온라인 네트워크의 힘이 그 증거다. 이들은 소위 말하는 '연줄'을 만들기 위해 이같은 일을 꾸미지 않았다.

자신에게 이익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며 번듯한 경력이 없다고 집단 따돌림을 시키는 일도 없다. 새로운 인간관계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강조하는 NQ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해 함께 살 줄 아는 능력이다. 자기 것을 먼저 내주고 베푸는 것이 모두가 행복해지는 21세기형 방식이라는 것이다.

이제 저 혼자만 잘하면 되는 시대가 아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혼자만의 지식으론 되는 일이 없다. 스포츠팀의 팀워크나 매트릭스 조직이나 모두 다 조화와 협력을 뿌리로 한다. 더불어 사는 지혜가 가장 필요한 시대다.

"함께 나누는 능력이 미래 성공 잣대"

저자는 NQ의 대가들로 자신을 낮춰 세계를 정복한 유비, 적의 마음조차 사로잡은 김춘추, 일본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는 인물 사카모토 료마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사카모토 료마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자.

사까모토 료마는 어릴 때 부모가 포기한 대책 없는 아이였다. 그러나 바보스러운 성격을 가진 료마는 다른 사람의 능력을 먼저 인정해 주고 자신의 공을 타인에게 돌렸다. 물심양면으로 다른 사람들을 후원한 그는 결국 다른 이들과 함께 자신이 이루려고 했던 일을 도모할 수 있었다.

저자가 말하는 공존의 네트워크란 혈연, 지연, 학연 등 이른바 인맥을 뜻하는 게 아니다. 조직의 구성원들이 대등한 입장으로 정보와 자원을 자유롭게 교환하면서 서로 유연하게 결합된 형태를 의미한다.

이른바 '빽'이나 '혈연' 등으로 결합된 연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면서도 자유롭게 연결된 네트워크형 사회로 바뀌어야만 행복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네트워크는 '줄'로 연결되지 않는다. 새로운 네트워크에 들어갔다고 해서 영원한 '빽'이 생기지 않는다. 어디에서든 스스로 노력해서, 남과 함께 사는 방법을 배워야한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이다.

저자는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을 낮추고 남을 배려하면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스스로의 가치도 올라가게 된다"고 말한다. 또한 "언젠가는 그것이 큰 힘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며, 그것이 바로 NQ의 힘"이라고 재차 강조한다.

이 책은 뒷부분에 수록된 NQ 점수 측정방법을 통해 스스로의 공존능력을 살펴보는 재미도 함께 준다.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있는 예비 사회인들과 공존의 중요성을 생활 속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장하용 / 동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NQ로 살아라〉는 NQ의 원조인 예수, 자신을 낮춰 결국 천하를 정복한 유비, 적의 마음조차 사로잡은 김춘추, 숨겨진 NQ의 천재 석가모니 등 역사적 인물에게서 알아보는 특별한 성공법칙이 담겨 있다.

평소 존경하는 스님과 부모님께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 나기를 기원하세요 ~

홈쇼핑 절찬 판매중!!

마하몰이 佛子님께 강력 추천하는 효도선물

한솔 銀 세라믹매트



한솔 은(銀) 세라믹매트(더블+싱글)

가액 ₩298,000원 (낱개 구입 가능)

[상세설명]

◑ 한솔 은(銀)세라믹매트 - 純銀 99.9%
◑ 음전위 온열 조합자극기
◑ 제조허가 번호 : 식약청허가 제 1194호
◑ 품목허가 번호 : 식약청허가 01-705호
◑ 규격 : 은세라믹매트(더블) 200cm × 140cm
은세라믹매트(싱글) 195cm × 100cm

음전위: 온열 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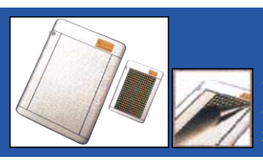
■ 은(銀)의 효능

- 바이오 기술의 접목으로 은이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은이 가지는 뛰어난 생절 중 전성, 연성 그리고 항균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 강력한 은의 항균력 : 은과 접촉하여 6분이상 살 수 있는 세균은 없다고 합니다. 현재까지의 실험결과 지상의 거의모든 단세포 병균을 살균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서양에서는 은제컵을 사용하여 병의 감염을 막아 왔으며, 은전을 항아리에 넣어 우유의 변질을 막고 은상자속에 음식을 보관하여 신선도를 유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균, 소독용 접시를 은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등 동, 서양을 막론하고 예로부터 은을 자연항생제로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이용해왔습니다. 하지만 본시 은은 귀금속으로서 의 그 값이 비싸서 일반 대중은 사용할 수가 없었고 왕궁에서는 은이 인체에 미치는 특이한 점을 이용하여 모든 식기 및 장신구를 은으로 만들어 사용해 왔기 때문에 중세기때 유럽지역에 '페스트'가 창궐했어도 왕궁에는 단 한사람의 희생자도 없었던 것입니다.

◑ 제품특징

- 순은 99.9% 사용으로 강력한 항균력
- 생활방수 기능으로 액체에 젖지 않습니다.
- 한솔 은세라믹매트 내부에는 음이온과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300개의 고급 게르마늄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100% A/S보장



한솔 銀 세라믹 매트 내부에는 음이온과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300개의 고급 세라믹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물, 커피, 쥬스 등 액체를 매트에 흘렸을 경우 마른수건으로 닦아 주는것으로 매트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ISO 14001 인증 / ISO 9001 인증사업

인터넷 마하몰 www.mahamall.co.kr 오시면 3,000여종의 불교문화상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불교용품 전문 쇼핑몰 maham@ll.co.kr

■ 주문전화 : 02-732-1520

[입금] 농협 053-12-113210 예금주 : 하동규

초상화로 만나는 우리나라 名人

'역사인물 초상화 대사전'

이강철 외 지음

현암사 / 10만원



"털끝 하나만 같지 않아도 곧 타인이 된다(一毫不似便是他人)"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선조들은 초상화를 그림에 있어 사실성을 중요시했다. 주인공 얼굴의 마마(천연두) 자국이나 검버섯까지도 그대로 그려 놓은 초상화는 오늘날 미술 · 복식 · 의학사적으로도 소중한 연구 자료가 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초상화는 주인공의 인품과 정신세계를 드러내는 수단이기도 했다. 초상화가는 한 장의 그림만으로도 주인공의 생애와 지향했던 바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우리가 고승 진영에서 스님이 일생에

왕 · 고승 초상화 260점

인물 · 복식 해설 덧붙여



걸쳐 전하고자 했던 가르침을 어렴풋이나마 감지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역사인물 초상화 대사전>은 우리나라 역대 왕과 관리, 고승의 초상화(사진은 휴정 스님) 269점에 인물 해설을 하고, 복식문화연구원의 교수진이 복식 해설을 덧붙여 펴낸 역사자료집이다.

이 책은 전 군사박물관장을 지낸 이강칠(77) 씨의 평생의 작업을 통해 만들어졌다. 그는 1968년 일본 덴리(天理)대학 도서관에 잠자고 있던 우리나라의 <명인초상화첩>을 당시 기시 유이치(岸勇一)학장의 도움을 받아 원색으로 촬영한 뒤 돌아와 1972년 <한국명인초상대감>으로 펴냈다.

책에서는 초상화를 복식사적으로 살피면서 그 변천을 엮었고, 선현이 착용한 의복에 대해서 분야별, 즉 왕복 · 시복 · 상복 · 편복 · 승복 · 부인복과 기타로 세분하여 일목요연하게 설명했다. 부록으로는 우리 복식 문화를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글과 복식 용어를 수록했다. 여수령 기자

사리기의 美 느껴 보세요



지난해 말, 큰 스님들의 잇단 열반으로 사리가 또 한 번 일반인들의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사리를 무조건적인 경배 대상으로 여기거나 스님의 '법력'으로 평가하는 잘못된 시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그렇다면 사리란 무엇이고 어떻게 '지고지순의 경배대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을까?

<한국의 사리장엄>은 사리와 불사리를 담은 여러 용기인 사리장엄에 대한 연구서다. 사리기와 사리신앙에 대한 연구는 다른 불교미술사 영역과 비교할 때 아직 그 성과가 적은 분야이기에 이 책이 갖는 의의는 적지 않다.

사리신앙은 기원전 480년 무렵,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도 쿠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들자 제자들이 다비하여 그 사리를 8만4천 립(粒, 사리를 세는 단위)으로 나누어 탑파에 봉안한 것에서 유래됐다. 이후 사리신앙은 중국을 거쳐 7세기 무렵 신라에 전래되어 불교 신앙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불교의 신앙과 미술이 한 곳으로 집적되어 나타난 사리장엄은 불교공예 및 금속공예를 대표할 만한 분야"라는 지은이는 "사리장엄은 공예

'한국의 사리장엄'

신대현 지음

혜안 / 2만8천원

예술 · 종교적 측면에서 연구

국내 도입 경위 · 변천사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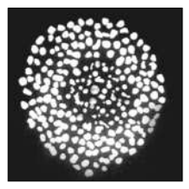
적 요소 한 가지뿐만 아니라 건축 · 조각 · 회화의 전 부문에 걸친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며, 불교 교리적인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때문에 사리장엄에 대한 연구는 곧 당시 불교문화의 또 다른 측면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된다는 것이다.

1~3장에서는 사리신앙의 정의와 유래를 설명하고 있다. 사리신앙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오늘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인 셈이다. 사리장엄의 발상지인 인도와 중국에서 불사리를 봉안하게 된 경위와 사리 봉안에 얽힌 일화를 곁들여 수필 형식으로 쉽게 서술했다.

4, 5장에서는 우리나라에 사리신앙이 도입된 경위와 사리장엄의 종류, 양식 변천을 소개한다. 마지막장에서는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빠른 시기의 사리기인 감은사 동 · 서 삼층석탑 사리장엄을 주제로 각각의 차이점과 특징을 다루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통일신라시대 공예기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감은사지 동탑 사리장엄구(보문 1359호, 위)와 지난해 11월 22일 원적에 든 태고종 종정 덕암 스님의 사리(아래).

새로나온 책



■<관>(수자타 지음, 김문호 옮김, 김영민 그림, 화남, 9천원)="일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 순간이 아닌 다른 순간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자에게는 많은 고통이 찾아든다."

미국의 명상수행자 수자타의 명상지침서 <관(觀)>이 나왔다. 생활 속의 명상을 통해 진정한 내면의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안내서다. 일러스트와 다양한 편집을 통해 경구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꾸몄다.



■<알몸 인연>(설산 스님 지음, 청어, 8천5백원)= 설산 스님이 소설 <알몸 인연>을 펴냈다.

에세이집 <알몸>과 시집 <알몸이야기> 등을 통해 '알몸으로 와서 일구고 살다가 알몸으로 가는' 인생에 대한 성찰을 해 온 지은이는, 원치 않는 인연으로 번뇌하는 주인공 설산을 통해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풀어가고 있다.



■<불교 기초교리 핵심 81강>(김현두 지음, 아나, 1만8천원)= <실상의 법>과 <반야심경 천부진리 해설> 등을 펴낸 김현두 씨의 불교 기초교리 해설서. '불성이란 무엇인가', '사념처란 무엇인가' 등 불교의 핵심 기초교리를 81강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지은이는 현재 아나 법화연수원(http://ana.or.kr)에서 <묘법연화경>을 강의하고 있다.

수행의 출발점은 '자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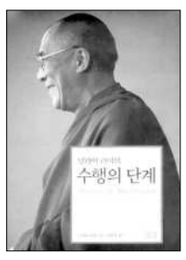
<달라이 라마의 수행의 단계>는 8세기 인도의 학승인 카말라실라의 저술 <수행의 단계>에 대한 달라이 라마의 설명을 옮긴 책이다. <수행의 단계>는 모두 3부작으로, 1권은 티송데첸 왕과의 수행에 대한 문답을, 2권의 수행의 요체에 대해, 3권은 보다 깊은 이론과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달라이 라마의 수행의 단계>는 이 중 2권을 주석한 것이다.

이 책의 중심 주제는 '보리심'과 '진실견(眞實見)'의 각성 촉구다. 달라이 라마는 '수행의 단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 카말라실라의 목소리를 빌어 '자비'를 수행의 최우선조건이라고 말한다. 불교의 수행은 처음도, 중간도, 그 결과도 자비이며 자비가 수행의 출발점이 되지 않는다면 수행의 목적을 올바로 성취할 수 없다는

'달라이 라마의…'

달라이 라마 지음 / 이종복 옮김

들녘 / 9천원



것이다.

달라이 라마는 "이 책을 배우는 것은 허공만큼이나 많은 중생들을 위해 궁극의 불성을 성취하기 위한 방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한다.

고요한 맘으로 읽으세요

"부디 모든 개념을 떠난 고요한 마음으로 <반야심경>을 읽으십시오. 어떤 주석자도 발견하지 못한 깨달음을 당신이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 이 경전을 익히고 수행해 나가면 무지를 깨치고 그릇된 생각을 뛰어넘어, 해탈의 기슭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프랑스의 수행공동체 '플럼빌리지'를 이끌며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틱낫한 스님에게 듣는 <반야심경> 강의. 오늘날 전 세계 불자들에게서 가장 많이 읽히는 <반야심경>에 대한 이해는 다르지 않되, 그 진리를 설명하는 방식에서는 기존의 책들과 차이를 보인다.

<틱낫한 스님의 반야심경>은 1987년 봄, 틱낫한 스님이 미국 캘리포니아와 뉴욕, 콜로라도 등에서 반야심경을 강의한 내용을 책

'틱낫한 스님의…'

틱낫한 지음 / 강옥구 옮김

장경각 / 8천5백원



으로 엮은 것이다.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였던 만큼,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과 예시를 덧붙였다.

여수령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 · 편 자	출 판 사
1	가장 행복한 공부	청화 스님	시 공 사
2	완벽한 참선법	우학 스님	좋은인연
3	산문	현진 스님	열 림 원
4	밥상에 도가 있다	정 세 채	모 색
5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더	법전 스님	조계종출판사
6	틱낫한 스님의 반야심경	틱 낫 한	장 경 각
7	생활 속의 기도법	일타 스님	효 림
8	들숨날숨에 마음챙기는 공부	대림 스님	초기불전연구원
9	덕숭산 법향	원담 스님	덕숭총림 수덕사
10	삶을 바꾸는 5가지 명상법	혜봉 거사	불 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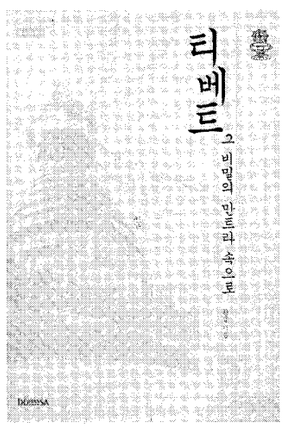
도서 안내:(02)737-0695

인터넷 · 전화 도서 주문
yosiamun.com
책방 여시아문 전화: (02)737-0695

到 · 彼 · 岸 · 社 · 의 · 雪 · 域 · 高 · 原 · 시 · 리 · 즈

티베트 민족의 고난은
'인류를 구하라'는 부촉

화제의 신간



티베트
그 비밀의 만트라 속으로

글 · 황엽 / 신국판 / 384쪽 / 값12,000원

나라를 잃고 망명객이 되어 전 세계를 떠도는 티베트 민족,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은 온갖 고통과
슬픔을 딛고 인류의 새로운 정신과 평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원수마저 관용으로 대하면서… !
— 미국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응징해서는 안 됩니다.
폭력은 폭력을 부를 뿐입니다. 달라이 라마 – 9.11 테러 후

티베트
그 비밀의 만트라 속으로

여기 티베트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과 진실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밝혀 주는 고백서가 나왔다.
시인이자 월간 「문학과 예술」의 발행인이기도 했던 황엽은 6년 전 어느 날, 지금까지의 삶을 180도 바꾸어 티베트 행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스승을 찾았고, 명에 따라 40만 배(拜)의 오체투지로 입문식을 마치고 그들의 정신세계로 푹 안겼다. 이 고백서는 시인의 영감으로,
지성으로, 온 몸으로 써 내려간 티베트 정신의 현주소다. 단지 보고들은 여행기가 아닌 체험으로 직관한 티베트 사람들의 내면이다.

※ 티베트 관련 단체에서 10권 이상 구입할 경우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티베트의 정신과 자연을 소개하는 책

티베트 금강경
— 까말라쉴라 광석
양승규 옮김 238쪽 · 값 9,000원

티베트의 신비와 명상
— 포탈라에서 수미산까지
글 · 김규현 416쪽 · 올컬러 · 값 17,000원

지도의 공백지대를 가다
— 티베트 8만 Km
글 · 박철암 384쪽 · 올컬러 · 값 15,000원

"독서는 깨달음의 길"의 도서출판
DOPIANSA 到彼岸社
전화 : 031-676-8700 전송: 031-676-8704
E-mail : dopiansa@kornet.net

제9회 현대불교 신행수기공모

우수상 (현대불교신문사장상)

배장환 (서울대 3학년)

아버지 <상>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아버지께 편지를 쓰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네요. 저도 이제 홀쩍 커버려 어엿한 대학생이 되고, 벌써 졸업이 눈앞에 보입니다. 하지만 여태껏 아버지께 편지 한 통 못 써드린 것이 정말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래도 이렇게나마 편지를 쓸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행복입니다.

아버지! 추운 겨울이 성큼 다가와 여기 서울은 첫 눈도 내렸답니다. 전화로는 자주 안부 여쭙지만 잘 계신지요? 그래도 부산은 여기보다 조금 더 따뜻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번에 아버지 회갑이신데도 저는 시험이다 뭐다해서 찾아가 뵙지도 못하고…. 아버지께서는 괜찮다고 하시며 방학 때 내려오면 된다고 그러셨지요. 아버지 많이 보고 싶네요. 제가 갑작스레 이런 글을 보내드려서 놀라지는 않으셨겠죠?

제가 대학에 발을 디딘지가 엊그제 같은데 3년이란 세월이 흘렀네요. 아시다시피 저는 대학에 들어와서 쭉 불교학생회에 몸담고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많이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여기에서 좋은 경험들도 쌓고, 여름 겨울 방학 때마다 가는 수련대회를 통해 느낀 바도 많아 이렇게 아버지께 글도 쓰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여러 번의 수련대회를 갔었는데 그 중에서 지난 여름 수련대회가 저에게는 뜻 깊은 경험이었습니다. 1주일 간 진행되는 수련대회에서 관세음보살 정근을 하루에 10시간씩 하며, 저는 이제까지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깨버리고 새로운 시각에서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수련대회에서 느꼈던 점들을 얘기해 드릴까 합니다.

스님을 만나기 전, 그 이후에도 저는 제 자신이 남들과 다르게 특별하다고, 잘 났다고 그렇게 생각해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라고 불리는 대학에 입학해서 별 다른 문제없이 살아가는 동안 저는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러한 생각은 저로 하여금 더욱 더 저 자신이 특별하다고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마음이 없다고 부정할 수는 없지만요….



그림 · 문병성

수련대회서 매일 10시간씩 관음정근
아버지의 좋은면 보이면서 눈물 '주루룩'

하지만 불교학생회에서 스님의 법문을 들을 수록, 수련대회에 참가할수록 제가 많은 문제들의 틈바구니에 끼어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라고 생각했던 문제가 두 개, 세 개, 네 개…. 점점 불어납니다. 수행을 하면 할 수록, 부처님 공부를 하면 할 수록 저의 문제점이 더욱 불거져 나옵니다. 스님께서는 수행을 하면 나아질 것이라고 하시지만 저는 지레 겁이 납니다. '과연 수행을 하면 나아질까?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고생해야하나?' 점점 회의감이 듭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 보사~알!" 이렇게 높은 소리로 염불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해야 하나?', '할 일도 많은데 여기에 무엇하러 왔나?' 하는 생각도 머리 속을 무수히 지나다닙니다. 하지만 "장환씨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라는 스님의 말씀에, '이제는 불교학생회 회장인데 후배들 보기에, 다른 사람에게 안좋게 보이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조금이나마 힘을 내어 봅니다.

또 다시 제 문제점을 지적 받습니다. 정근을 할 때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점. 부처님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는 점. '내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목도 쉬어서 말을 할 수도 없을 지경인데 열심히 안한다니!' 힘이 쭈~욱 빠집니다. 또 다시 정근시간이 돌아오고 저는 털레털레 법당으로 향합니다.

한 치의 미동도 없이 꼿꼿하게 앉아계신 부처님을 괜스레 원망스러운 눈길로 바라봅니다. 정근 시간 내내 스님의 말씀이 머리 속을 맴돕니다. 저의 문제점이 모두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아서 생겨난 것이라고 하십니다. 따지고 보면 스님 말씀은 틀린 것이 없습니다. 저에게 어떤 마음이 있는지 그것이 왜 이러한 문제를 낳았는지 부처님 법의 성격에 꼭 들어맞게 설명해 주십니다.

정근을 하다보면 여러 생각들이 나곤합니다. 지금은 어렸을 적 아버지의 모습이 파노라마 처럼 흘러갑니다. 분명 입으로는 관세음보살을 외우고 있고, 두 손에는 목탁이 들려있지만 아버지의 모습만이 온 머리 속을 채웁니다. 마치 영화를 보는 듯합니다. 어떤 장면에서는 피식 웃음도 나오고, 어떤 장면에서는 '내가 저 때 아버지께 왜 저랬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버지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금강경에 나오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구절이 떠오릅니다.

'어렸을 때 나는 왜 아버지의 행동을 한 쪽으로만 보고 받아드렸을까?'하는 생각에 제가 부끄럽기만 합니다. 서서히 아버지의 좋은 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의 법이 나에게도 적용되는구나'하는 사실이 마냥 신기합니다. 하지만 스님은 자기 자신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이십니다. '과연 아버지의 모습이 있을까?' 일부러 끼워 맞추려고 이것저것 찾아보지만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수련대회가 하루하루 지날 수록 목소리는 점점 잠겨만 가고, 몸도 마음도 축 쳐져 갑니다. 정근이 시작되고 저는 법당 왼쪽 벽에 모셔진 지장보살 탱화 앞에 섭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 생각이 또 떠오릅니다. 고등학교 때 럭비를 하셨던 아버지…. 갑자기 아버지의 고등학교 때 모습이 그려집니다. 건장하신 아버지는 럭비 유니폼을 입고 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가 너무나도 멋져 보입니다. 현재 대학에서 럭비와 비슷한 운동인 미식축구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이 아버지의 젊은 모습에 겹쳐집니다. 순간 '내가 원하고 바라던 것이 바로 아버지가 하셨던 것과 똑같구나'하는 생각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나옵니다.

〈계속〉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thatiswhy@buddhapia.com

릴레이 수행일기 〈下〉



강경숙
경북과학고 교사

밖으로 내달리고 상대에 끄달리던 여러 마음이 쉬어 내 안에 고요함이 충만할 때마다 든든함을 느낀다.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던 무심(無心)의 세계도 단순해질 수록 쫓아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게 다가오는 세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평소에는 마음을 낮추는 하심(下心)을 연습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면 선원에서 배운 실상관법(實像觀法)을 하니, 그 안에 나를 낮추는 것도 들어있고 모든 일에 걸림 없이 즉시즉시 행할 수 있는 지혜와 공덕도 함께 하는 이것이 바로 내 복그릇이 아닌가 싶다. 비록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마음을 낮추려 하고, 내린 그 마음을 유지하고 쉬며, 편한 그 마음에 안주하려는 욕망이 들고 일어날 때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밝음을 향한 과정이고 세상을 긍정으로 바라보는 디딤돌이라고 생각한다.

다스리기 어렵고 지니기 어려운 공부지만 선원 문을 나설 때면 '오늘 들고 본 모든 것을 여기에 다 내려놓고 가라'는 말씀은 기껏 배운 것을 버리라는 것 같아 섭섭하게 여겨졌지만 '법에도 걸리지 않고 살아라'는 진정한 해탈법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이 공부가 나에게는 그지없는 마음의 약이고 매듭이었다.

도반들 따뜻한 배려에 '참사람 모습' 느껴
묶인 마음 푸는게 바른 수행…행복한 결론

그리고 우곡선원에 나오면서 감동받은 것은 도반들의 따뜻한 마음이다. 경전 강의를 맡아하던 선배 도반에게 경전의 해석이 잘못된 부분을 다른 도반이 지적하자 더 없이 감사히 받아들이는 모습에서 이것이 참사람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남에게 지적을 받으면 너무도 가슴 아파했던 내가 온 몸으로 느끼고 배우게 된 부분들이다. 우곡선원에서 실시하는 교사들을 위한 심성개발 직무연수나 참선교육을 받으러 온 청소년들을 위한 소임자 및 도반들의 헌신과 진심어린 모습에서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었다. 나의 교만은 선원 도반들의 아름다운 마음으로 인해 소리없이 허물어졌다.

눈밝은 스승과 자비심 충만한 도반들에 둘러싸여 공부가 저절로 되어 가는 것이라 생각할 때면 나는 세상에서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껴진다. 무작정 잠을 쫓아가며 했던 마음공부, 복을 지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나의 몸과 마음을 피폐하게 하여 뜻이 맞지 않으면 가족이나 이웃에게도 직설적이고 명령조의 말과 표정으로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진한 아픈 기억이 있다.

그러나 이제 나에게 언제 그런 시절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생활은 안정되어 있다. 아이들이 시험을 치거나 학교나 학원에서 귀가가 늦을 때 걱정하던 습관은 마음을 비운만큼 복이 자리한다는 법문을 듣고 그냥 그 순간에 마음을 놓아버릴 수 있었다. 그로 인한 편안함에 만법(萬法)은 필요에 따라 갖다 쓰는 자의 몫이라는 가르침이 절절히 피부에 와 닿는다. 이처럼 부처님의 법은 오묘하고 무궁무진한 세계여서 어디서나 막힌 곳이 없고 무엇에나 다 통한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얻은 결론은 간단하다. 묶인 마음을 풀고 자유로워지기 위한 것이 바른 수행이며 부처공부라는 것이다. 마음공부가 이런 과정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부자체가 목적이 되어 스스로를 들볶았던 나는 지금 이렇게 간단해진 내 자신에 대해서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게 여긴다. 대학시절부터 가져온 부처님의 마음세계에 대한 막연한 동경은 불혹을 넘어 우곡선원에서 마음으로부터 간절히 원하던 법문을 듣고 몇 개월의 참선 공부로 비로소 마음의 고향을 찾았기에 한 토막 일기로 지난 구도의 과정을 회상해 본다.

새해, 불자님들이 꼭 읽어야 할 불교 신행의 지침서

가족!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불자의 가족사랑

정녕 어떻게 하여야 나의 가족이 살아나고
평화와 행복과 성취를 누릴 수 있는가?
여기 부처님께서 깨우쳐주신 비결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올리는 우리의 기도는 사랑의 극치입니다. 불보살님의 가피와 진정한 사랑, 이것이 합하여지는데 녹아내리지 못할 업業이 어디에 있으며 성취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 본문중에서 -

〈주요목차〉
Ⅰ. 자녀 사랑의 길
① 집착부터 비워라
② 불교의 자녀 사랑법
③ 자녀를 위한 기도법
Ⅱ. 부모사랑 · 부부사랑
① 효도로 부모사랑을
② 원만한 부부사랑의 길

감히 청하옵나니, 이 책을 통하여 가족사랑을 실천해 보십시오. 가족과 나, 그리고 우리의 주위가 차츰 불국토로 변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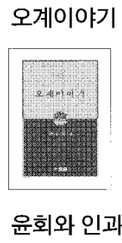


보왕삼매론 강의 김현준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불자들이 즐겨 독송하는 「보왕삼매론」은 병고해탈, 고난퇴치, 마음공부와 마장극복, 일의 성취, 참사랑의 원리, 인연 다스리기, 공덕 쌓는 법, 이익과 부귀, 억울함의 승화 등 누구나 인생살이에서 겪게 되는 장애들을 속시원하게 뚫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보왕삼매론 강의』를 통하여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는 지혜를 터득하시고, 복덕과 향상의 길로 한발 한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불자의 기본예절 일타 큰스님 지음 / 값 3,500원



불교예절의 근본이 되는 마음가짐과 말씨, 걸음걸이와 앉음새, 합장법, 절하는 법, 법당에서의 예법, 법문 듣는 법, 목욕 · 입측법 등 절집안의 생활예절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많은 이야기를 곁들여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오계이야기 일타큰스님 / 값 3,500원



불자라면 누구나 알고 지켜야 할 살생 · 투도 · 사음 · 망어의 근본 4계에 불음주계를 합한 5계에 대한 법문집. 재미있는 일화를 들어 각 계율의 연원과 지키는 방법, 계율을 범했을 때의 과보 등을 자세히 설한 불자의 필독서 입니다.

윤회와 인과응보 이야기 일타큰스님 / 값 5,000원



"죽음 뒤의 세상, 인간은 과연 윤회하는 존재인가?" "내가 지은 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러한 의문의 해답을 일러주고자 총 49가지 이야기로 엮은 이 책을 읽다보면 윤회와 인과응보에 대한 해답을 얻을수 있습니다.

법공양문 일타큰스님 / 값 5,000원

불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부처님과 역대 고승들의 감명깊고 배움 깊은 글 총 45편의 법문을 모아 일타큰스님의 뛰어난 한문솜씨로 글의 의미를 정확히 살려 이해하기 쉽게 엮었습니다.

천수경 천수신앙 혜국스님 지음 / 값 5,000원

관세음보살님께서 우주의 대진리를 문자로 표현한 천수경! 일평생을 참선정진에 몰두하신 혜국스님이 선적인 안목으로 풀이하여 누구나 알기 쉽게 엮었다. 이 책을 통하여 내 마음의 문을 넓게 열고 잠들어 있는 영혼을 일깨워보자. 나를 향상시키는 깨달음의 길로 능히 들어설 수 있게 되고, 심중의 소원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육바라밀 수행법 김현준 지음 / 값 3,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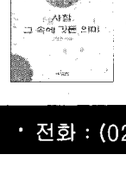
보시 · 지계 · 인욕 · 정진 · 신정 · 반야의 육바라밀 수행은 모든 불교신행의 기본 원리를 담고 있으며, 불자들을 항상시켜 업의 결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이 책에서는 육바라밀의 실천방법 뿐만아니라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서술하여 행복하고 청정한 삶을 이룰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김현준 지음 / 값 5,000원



예불을 올리는 불자들이 꼭 새겨야 할 마음가짐과 가르침을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엮은 오분향 예불문의 해설서. 예불문의 뜻과 함께 삼보 · 부처님 · 보살 · 10대 제자 · 16성 · 오백성 · 제대성중 등의 면모를 자세히 밝혔습니다.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김현준 지음 / 값 7,000원



제2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저작상) 수상작. 사찰 초입(初入)의 일주문에서부터 법당, 사물(事物), 석등, 탑 등에 담겨진 의미와 구조, 변천 등을 깊이 있게 다루어 불교예술과 사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줍니다.

무엇을 믿고 어떠한 삶의 길을 걸을 것인가
참된 불자의 살림살이는 무엇인가

불자의 살림살이

'불자의 살림살이'는 스스로를 살리고 주위를 살리는 삶을 살면서 행복과 깨달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기 위해 쓴 글입니다. 아울러 행복을 얻는 원리, 가족사랑의 원리, 기도성취의 원리, 불자들이 꼭 알고 새겨야 할 삶의 원리를 밝히고자 하였으며, 생활 속에서 가정의 평화를 이루고 참불자가 되고 불성을 개발하는 법에 대해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하여 정립해 보았습니다.

– 저자 서문 중에서 –

〈차례〉
Ⅰ 부처님을 믿는 불자 Ⅱ 불자의 정 · 부처님의 정
Ⅲ 복을 가꾸며 사는 불자 Ⅳ 불자의 길 · 불자의 삶
Ⅴ 평온과 지혜가 깃든 삶

우룡큰스님 지음 / 4×6판 / 값 3,5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02) 587-6612 · 팩스 : (02) 586-9078

재즈와 함께 포근한 겨울을







◇올 겨울 한국 뮤지션들의 앨범이 풍성하다. 왼쪽 위부터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 편집앨범 '재즈 재즈', 나윤선 3집 '다운 바이 러브', 웅산 데뷔앨범 '러브레터즈'.

앨범리뷰

국내 뮤지션 재즈음반 풍년
언더 출신 웅산·나윤선 '눈길'
컴필레이션 앨범도 나와

올 겨울 유달리 한국 재즈 뮤지션들의 음반이 풍년이다. 국내 보다 일본, 유럽 등 외국무대에서 활동해온 여성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 나윤선 씨의 앨범과 재즈 기타리스트 CJ 김의 앨범, 그리고 한국 대표 재즈뮤지션들의 컴필레이션 앨범인 'Jazz Jazz' 등 다양한 색깔의 재즈 앨범들이 팬들을 찾아간다.

재즈 신보 중에서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일본과 한국의 언더그라운드 재즈 클럽에서 주로 활동해온 웅산(본명 김은영) 씨의 첫 앨범 'Love Letters'. 재즈, 블루스 뿐 아니라 펑키, 소울, 라틴 등 다양한 장르의 곡을 웅산 씨 특유의 목소리로 재해석한 새로운 시도의 스탠다드 앨범이다.

대학시절 해비메탈 동아리의 보컬, 블교에 심취해 출가를 결심하는 등 평범하지 않은 인생경험에서 우러난 웅산 씨의 목소리는 힘이 있으면서도 부드러운 매력을 발산한다. 재즈 피아니스트 베니 그린 등 미국의 실력 있는 세션들의 참여도 눈에 띄는 이번 앨범에는 'My funny Valentine', 'I want to be happy', 'Misty Blue'등 재즈 팬들의 귀에 익숙한 노래들을 포함해 모두 11곡이 수록돼 있다.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 판매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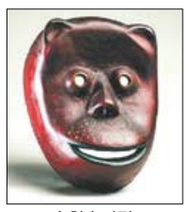
파리 재즈 스쿨(CIM, Centre d' Information de la Musique)을 졸업하고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활약하고 있는 재즈 보컬리스트 나윤선 씨의 3집 앨범 'Down by Love'도 이 겨울을 녹여줄 재즈 선율이다. 김민기 씨의 '아름다운 사람' 등 한국, 스페인, 포루투갈의 대중가요를 재즈풍으로 편곡해 재즈를 대중적으로 해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도 재미 기타리스트 CJ 김(본명 김찬준)의 데뷔앨범 'Endless Love'와 신관웅, 이주한, 정원영 등 국내에서 손꼽히는 재즈 뮤지션들이 함께 모여 만든 재즈 명곡 모음집 'Jazz Jazz(Choice Jazz Selections by Korean Jazz Masters)'도 그동안 접하기 어려웠던 한국적 재즈에 대한 팬들의 갈증을 해소해 줄 것이다.

한상희 기자 hansang@buddhapia.com

전시

민속박물관, 잔나비띠 기획전



◇원숭이탈.

새해 갑신년(甲申年) 원숭이해를 맞아 2월 9일까지 '잔나비띠 기획전'이 열린다. 국립민속박물관(관장 김홍남)이 주최하는 이번 전시는 우리 전통문화 속에 녹아 있는 원숭이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인 원숭이탈은 봉산탈춤에서 신발장수를 조롱하는 역할을 하는 원숭이를 묘사한 것이다. 통일신라시대 '청동제 십이지추'를 비롯해 40여점에 이르는 십이지와 원숭이 관련 유물이 전시된다. (02)734-1346

덕수궁 전시관, 십장생 특별전

오래도록 살고 죽지 않는다는 열 가지를 뜻하는 십장생(十長生)은 불로장생에 대한 인간의 꿈과 염원을 나타낸 대표적 길상(吉祥). 십장생을 소재로 2월 22일까지 문화재청 산하 덕수궁 궁중유물전시관(관장 강순형)에서 특별전이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총 120건의 유물을 선보인다. 특히 궁중에서 쓰였던 '10폭 십장생 대작 병풍'과 백자 등이 나와 화려한 조선 궁중문화를 엿보게 한다. (02)771-9954



◇10폭 십장생 대작병풍.

게시판

함께 일해요

▲보리방송모니터 통신원 모집

불교 왜곡과 편파 방송 시정에 앞장서고 있는 보리방송모니터회(회장 김재일)가 방송모니터 통신원을 모집한다. 방송에 대한 불만이나 시청소감을 메일로 보내주는 일을 하게 될 통신원은 방송에 관심 있는 불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통신원에게는 격월간 소식지 <좋은 방송을 위하여>와 관련 자료를 우송해 준다. 홈페이지(http://cafe.daum.net/boribang)나 전화(02-754-5811)를 통해 접수 가능.

▲제천 장애인 복지관, 사회복지사 모집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복지관내의 종합적인 업무를 전담할 사회복지사를 찾고 있다. 자격은 관련학과 자격증 소지자면 된다. 접수는 우편이나 이메일로 한다. www.jcrc.co.kr, (043)652-0900

▲민족사 편집부 직원 구함

도서출판 민족사가 편집부 직원을 구한다. IBM편집과 포토샵으로 일러스트를 할 수 있으면 지원 가능하다.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minjoksa@chollian.net, (02)732-2404

▲맑고 향기롭게, 중고생 자원봉사자 모집

'맑고 향기롭게'는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중·고생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하루 4시간씩 총 12시간의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게 된다. 길상사 설법전에서의 조별 교육과 복지관 현장에 나가 봉사하는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02)741-4696

▲삼전복지관, 청소년 봉사학교 운영

서울 삼전종합사회복지관은 겨울방학을 맞아 '제2회 청소년 자원봉사 학교'를 운영한다. 모집대상은 송파구 인근 중·고등학생들로, 1월 12~17일, 26~31일 등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신청마감은 1월 31일. (02)421-6077

우리 결혼해요

밀교신문 손범숙 기자가 1월 17일 오후 1시30분 부산 알리안츠 생명빌딩(옛 제일생명) 지하 1층 제일웨딩홀에서 강호상 군과 백년 가약의 화촉을 밝힌다. (051)631-1004

사무실 옮겨요

▲평불협 성북동으로 이전

-10여 년 동안 대북지원 등 일선에서 통일운동을 해온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이하 평불협)는 지난 12월 26일 사무국을 성북동 새사옥으로 이전했다. 통일법당은 2월 12일 개원할 예정이다. (02)741-9348

함께 떠나요

▲터사랑, 태백산 눈꽃축제

답사여행모임 '터사랑'은 1월 11일 태백산 눈꽃 축제 현장으로 떠난다. 새하얀 눈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즐거움은 모두 동심의 세계로 안내한다. 또 '한국의 지붕마을'로 불리는 설원의 고장 태백산에서 눈조각 만들기, 눈썰매타기 등 다양한 겨울 체험을 할 수 있다. 6만7천원. (02)725-1284



◇태백산 눈꽃 전경.

▲광주불교산악회, 시산제 산행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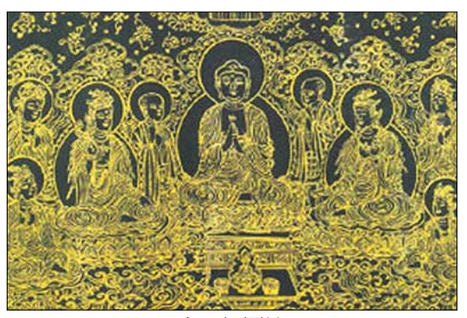
광주불교산악회는 이달 11일 오전 7시에 대구 영남불교대학·관음사 산악회와 공동으로 시산제 산행법회를 봉행한다. 장소는 광주 무각사. 회비 1만5천원.(063)384-1008

호림박물관 문화재 특별전

고려·조선 목판 인쇄본 볼 수 있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호림박물관이 2002년에 구입한 문화재를 공개하는 특별전이 2월29일까지 열린다.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을 골라 토기와 청자, 분청사기, 흑유 도자기, 전적과 회화 등 100여 점을 선보인다. 토기는 통일신라부터 고려시대 것이 대부분이다. 꽃 무늬를 박은 통일신라의 토기인화문합(土器印花文盒), 청자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당당한 멋을 지닌 고려의 토기과형매병(土器瓜形梅甁) 등이 나온다.

청자는 고려청자가 절정을 이루는 12세기 것을 주로 내놓는데, 연꽃과 버드나무, 물새 등 물가 풍경이 담긴 청자퇴화연류수금문칠각향로(靑瓷堆花蓮柳水禽文七角香爐)가 특히 아름답고 호사스럽다. 활달한 멋의 분청사기인화문양이부약연(粉靑沙器印花文兩耳附藥硯), 분청사기조화



◇고려 사경본.

모란문편병(粉靑沙器彫花牧丹文扁甁)도 눈여겨볼 걸작이다.

이밖에 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의 하나인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 권 33, 조선 전기 불경인 천지수륙재의찬요(天地水陸齋儀纂要), 사대부 문집인 사숙재집(私淑齋集) 등 고려와 조선의 목판 인쇄본 등을 볼 수 있다. (02)858~2500

김주일 기자

김교각 스님 등신불 국내서 본다

3월 서울·부산·대구에서 전시 추진

신라의 왕자출신으로 당나라에 건너가 당대 제일의 고승이 된 김교각(金喬覺, 696~794) 스님의 등신불을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지장왕보살 친견 행사위원회(집행위원장 김병걸)는 중국 안후이(安徽)성 구화산지장보전에 모셔져 있는 교각 스님의 등신불과 구화산 불교유물들을 3월 서울과 부산, 대구 등 3개 도시에서 전시키로 중국 구화산 풍경관리위원회와 약정서를 맺었다고 지난 12월 30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중국인들로부터 지장왕보살이라 추앙받고 있는 교각 스님의 등신불을 1300여년만에 한국에서 친견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한중 불교문화 교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구화산측은 세랍 99세에 열반에 든 교각 스님의 법구가 3년이 지나도록 썩지않고 생시 모습 그대로 보존됨에 따라 다비하지 않고 탑속에 봉안, 육신보전이란 전각을 지어 지금까지 모시고 있다. 또 현재 99개의 사찰이 있는 구화산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구리지장 보살대동상(높이 99m)이 건립중이다. (02)761-6241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김교각 스님의 불상.

극장가



▶ 라스트 사무라이(The Last Samurai)/ 액션, 드라마/144분
개봉예정일: 1월 9일
감독: 에드워드 즈윅
주연: 톰 크루즈
시놉시스: 1870년 알콜 중독자인 전직 남북전쟁 참전군인 우드로우 알그렌 대위(톰 크루즈 분)는 메이지 천황의 군대를 훈련시키기 위해 일본에 온다. 천황은 알그렌 대위를 통해 신식군대를 발전시키고 남아있는 사무라이를 완전히 제거하려 한다. 전투 도중 사무라이들에게 생포된 대위는 사무라이의 정신과 명예를 배우게 되면서 갈등에 빠진다.



▶ 아웃 포 킬(Out For A Kill)/ 액션/96분
개봉예정일: 1월 9일
감독: 마이클 오브로위츠
주연: 스티븐 시걸
시놉시스: 한 때 악명 높았던 골동품 절도범 로버트 번즈(스티븐 시걸)는 옛 생활을 청산하고 고고학 교수로서 새 삶을 시작한다. 고고학자로 명성을 쌓아가며 행복하게 생활하던 그는 어느 날 우연히 중국 본토 발굴 현장 골동품 속에서 마약 뭉치를 발견한다. 이로 인해 로버트는 중국 정부와 국제마약전담반에게 쫓기게 된다.



▶ 런어웨이(Runaway Jury)/ 스릴러/127분
개봉예정일: 1월 16일
감독: 게리 플레더
주연: 존 쿠삭, 진 핵크만, 더스틴 호프만, 레이첼 웨이즈, 브루스 데이비슨
시놉시스: 총기난사 사건으로 남편을 잃은 미망인이 무기회사를 상대로 승산 없는 소송을 제기한다. 변호사 웬델 로(더스틴 호프만)는 무기회사를 변호하는 랜킨 피츠(진 핵크만)를 상대로 재판을 벌이게 된다.



▶ 빙우/ 로맨스/110분
개봉예정일: 1월 16일
감독: 김은숙
주연: 이성재, 송승헌, 김하늘
시놉시스: '신'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의 역경과 사랑 이야기. 알래스카, 아시아크 등반에 나섰던 중현(이성재 분)과 우성(송승헌 분)은 조난당한다. 게다가 중현은 다리에 부상을 입고 해외등반을 처음 해본 우성은 두려움에 빠진다. 추운 얼음동굴 속에서 잠들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기억을 더듬는다.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 Btn 불교TV <ch 32>

05:45 고승열전
09:05 차 한잔의 선율
11:10 행복스튜디오
15:05 음악의 마을
17:10 무명을 밝히고
21:30 BBS 초대석
24:00 살며 생각하며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7일 15:25 성운대사 불경강좌
8일 12:00 향토음식기행
9일 08:30 하재봉의 영화산책
10일 09:10 조선 불교 탄압사
11일 15:00 열린 마당
12일 09:20 외국인 스님의 영어법문
13일 12:50 자비의 천수천안

하이라이트

■불교방송: 차 한잔의 선율(1월 8일 09:05~10:00)- 진명스님의 진행으로 맑은 산사의 향취를 클래식 소품에 실어 전하는 차 한잔의 선율. 매주 목요일 시간에는 한양대 송진범 교수가 안내하는 클래식 음악의 발자취, '클래식 갤러리'가 방송된다.

■불교텔레비전: 하재봉의 영화산책(1월9일 08:30~09:10)- 새해 특집으로 2003년 한 해 동안 스크린을 장식한 불교영화 베스트를 엄선한다. 지난 '한국영화 베스트 5' 시간에 이어 '매트릭스', '무간도2', '환생', '미스틱리버', '돌스' 등 5편의 외국영화를 소개한다.

클릭! 불교문화상품

백련향엽



백련의 최대 서식지인 전남 무안군 10만여 평의 '회산방죽'에서 자생하는 백련잎으로 만들었다. 백련잎의 부드러운 연향을 그대로 살려 개발한 향으로, 향을 사르면 하얗게 핀 백련이 마음의 안정을 찾아주는 데 부족함이 없다. 무안군과 우향 R&D가 공동으로 만든 제품이다. 1만5천원. (02)732-1520

조상님은 '정성'에 감동하신다

설날 차례상 차리기

서울 마포에 사는 가정주부 김씨는 설을 앞두고 고민이 생겼다. 불교식 차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차려야 하는지, 또 유교식 차례와는 얼마나 다른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 이처럼 불자라면 누구나 불교식 차례를 지내고 싶지만 왠지 어렵고 번거롭지 않을까라는 고민에 빠지게 된다. 게다가 올바른 불교식 차례를 위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곳도 주변에서 쉽게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불교식 차례는 유교식보다 단출하면서도 알차고 의미 있는 상차림이 가능하다. 불교식 차례상 차림을 살펴보자.

■ 무엇을 어떻게 차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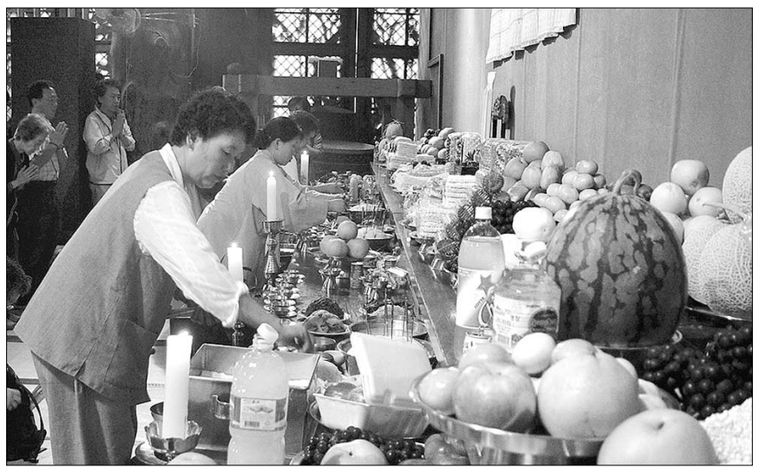
'차례'는 본래 조상을 모시는 제사에 술이 아닌 '차'를 올리는 것이 정석이다. 불가에서도 부처님오신날에 차를 올리고, 또 고승들의 탄신일이나 열반일에 지내는 제사를 다례라고 일컫는데서 차를 올려 재를 지내는 유래를 찾아 볼 수 있다. 따라서 불교식 차례상에 빠뜨려서는 안 될 첫 번째가 바로 차이다. 차례상에는 녹차를 준비하면 된다.

불교식 차례상의 또 다른 특징은 고기류를 피한다는 것. 차, 대신 과일, 떡, 나물 등을 중심으로 검소하게 차린다. 이밖에도 평소 고인이 좋아하던 음식을 올려도 좋다.

차례상은 첫줄에 과일과 과자, 둘째 줄은 나물류와 식혜, 셋째 줄은 채소와 탕류, 넷째 줄에는 전, 송편(떡), 차를, 다섯째 줄은 밥(메), 국(갱) 등으로 차리면 된다. 차례상 좌우에는 국화 등 현란하지 않는 꽃으로 단정하게 장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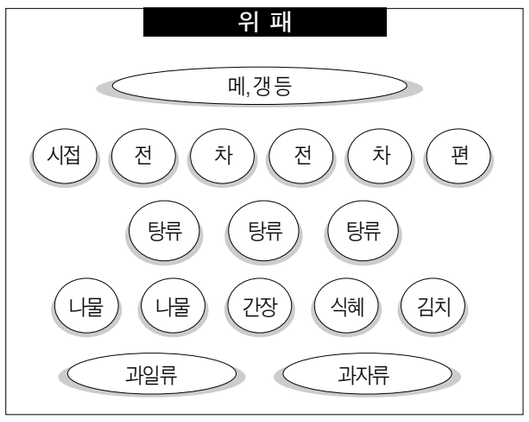
유교식과는 달리 병풍이나 위패, 사진 등은 상황에 따라 제외해도 무방하지만 위패를 쓸 때는 '선엄부 곡산후인 연공제윤영가(先嚴父 谷山後人 延公濟胤靈駕)'나 간단히 '선엄부○○○영가(先嚴父○○○靈駕)' 혹은 '선자모○○○영가(先慈母○○○靈駕)', '고조할아버지 영가' '할아버지 영가' 등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정도면 훌륭한 불교식 차례상이 완성됐다. 그렇다면 이에 알맞은 예법은 무엇일까?

한상희 기자



◇ 조계사에서 불교식으로 차례를 지내는 모습.

고기는 피하고 술 대신 녹차 준비
병풍·위패·사진 안 갖춰도 괜찮아



차례 지내는 순서

영가에 법문 들려주고 차와 음식 올린 후 발원 · 회향으로 끝내

불교식 차례는 크게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과정, 영가를 모시고 부처님의 법문을 들려주는 과정, 영가에게 차와 음식을 공양하는 과정, 발원과 함께 회향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자세한 순서는 아래와 같다.

① 입정: 차례를 시작하기 전 조상을 추모하는 마음을 지닌다.
② 십념(十念): 부처님 명호를 열 번 염한다.
③ 봉향찬(奉香讚) : 향을 사르며 부처님 공덕을 찬탄한다.
④ 정례(頂禮) : 조상에게 절을 한다.
⑤ 독경: 반야심경을 염송한다.
⑥ 헌다(獻茶): 영반의 뚜껑을 열고 숟가락을 꽂고 젓가락을 진수에 올려 놓는다. 제주가 먼저 잔을 올리고 재배하면 차례대로 잔을 올리고 재배한다.
⑦ 권공(勸供) : 조상에게 진지를 올린다.
⑧ 가지(加持) : 국을 물리고 숭늉을 올린 다음 밥을 세 번 떠서 숭늉에 덜어 놓는다. 진수에 놓여있던 젓가락의 끝을 가지런히 맞추어 다른 진수에 옮겨 놓은 뒤 제주 혼자 다시 분향하고 잔을 올리면 모두 재배한다.
⑨ 축원: 조상에게 후손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기를 기원한다.
⑩ 염불: 수저를 거두고 영반 뚜껑을 닫은 다음 자리에서 일어나 삼배한다.
⑪ 봉송(奉送): 신위에 하직인사를 올린 다음 위패를 태운다.

새해 아침에 만난 우바이

불이회 윤용숙 명예회장



새롭게 시작된 2004년과 함께 창립 30주년을 맞는 불이회(不二會)의 윤용숙 명예회장(68 · 사진). 1974년 불이회 창립을 시작으로 여성문제연구회 회장, 한 · 일 친선협회 이사, 향산 장학회 회장, (사)한국여성단체협의회 이사 등을 역임해오며 여성분야와 불교계 복지 및 후원에 기여해 왔다.

"6명이 모여 전국의 미술 박물관을 중심으로 견학하고 공부하는 모임이 불이회의 시초입니다. 공교롭게도 당시 함께 활동하던 사람들의 종교가 모두 불교임을 알게 됐지요. '보통 인연이 아니다' 싶어 소중한 인연을 의미 있게 회향해보고자 불이회를 만들게 됐어요."

이렇게 시작된 불이회는 불교계에 매년 지속적으로 보탬이 되자는데 뜻을 두고 '불이상'을 제정했다. 불이상은 한국 불교의 발전을 도모할 가능성 있는 연구 및 실천분야의 불자들을 선정해 해마다 시상한다. 특히 실천하는 삶을 사는 이들을 장려, 후원하고자 하는 불이상은 불교계에 안팎으로 신선한 자극이 됐다는 평이다.

나눔정신 사업 30년

불교발전 힘쓴 이들에 불이상 수여
"내가 어디쯤 서 있나 살펴보세요"

창립 때부터 오랫동안 불이회를 이끌어온 윤 명예회장이 생각하는 불이회의 정신은 무엇일까.

"불이상을 제정할 때 '상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불교계에서 필요로 하는 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일이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처럼 불이회는 나누는 정신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나눔정신 사업'을 펼쳐간다고 할 수 있지요. 불이회원들은 이런 이웃과 사회와의 나눔을 통해 진정한 지도자의 정신을 배웁니다."

불이회로 시작된 '나눔정신 사업'은 윤 회장이 몸담고 있는 여성문제연구회, 보덕학회 등의 단체에도 영향을 미쳤다. 여성문제연구회는 윤 명예회장이 5대 회장으로 취임한 1994년부터 환경 캠페인을 비롯한 각종 자원봉사 활동이 늘어났다. 윤 명예회장이 감사를 맡고 있는 보덕학회도 동국역경원 팔만대장경 한글화 역경사업, 원효사상연구서 발간 지원, 불교단체의 청소년 수련대회 및 보조사업 등을 통해 나눔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만큼 다양한 단체에서 맹활약해온 윤 명예회장. 하지만 그 역시 여성의 사회활동이 쉽지 않았던 60, 70년대, 사회적 편견을 깨기 위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왔다. 여성 전문인의 활동 터전을 닦아온 선배로서 윤 명예회장은 후배 여성불자들에게 격려의 인사를 잊지 않았다.

"현재 내가 어디쯤 서있나 살펴보세요. 또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해보시구요. 불자로서 현재 내 위치와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이를 통해 어떻게 회향할 수 있을지 성찰해보세요. 그것이 시작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월 40만원으로 확대

정부, 여성 인력 확보위해 복지 개선

새해부터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여성관련 사회복지가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2월 30일 '2004년도 경제운용 방향'을 통해 고령화 현상에 따른 노동력 감소 등 사회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여성과 고령인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육아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육아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방안은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 인증제 도입이다. 이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통해 아이를 사설기관에 맡기는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육아관련 지원금도 인상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사업주에게 주는 육아휴직 장려금 월 20만원과 함께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 월10만~15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출산 후에도 여성들이 육아를 이유로 사회활동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밖에도 여성들의 취업장벽을 낮춰주기 위해 공기업의 여성 고용 비율을 높이고, 취업을 원하는 주부들을 위해 교육비와 창업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충남, 2004 여성복지 지원사업 공모

충청남도는 오는 2월 28일까지 '2004년도 여성 발전복지 관련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이번 사업은 기획과 일반부문으로 나뉘어 공모한다. 기획공모부문은 △건강한 가정문화 구현 사업 △저소득 한 부모가정의 자활자립 지원 사업 △여성의 정치 · 사회참여 확대 사업 △여성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사업 △양성 평등의식 향상 사업 △기타 여성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이다.

또 일반공모부문은 △건강한 가정육성 사업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 사업 △이웃사랑 실천 사업 △환경보호 사업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이 포함된다.

사업비는 기획공모부문은 건당 500만원, 일반공모부문은 건당 300만원 범위 내에서 각각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충청남도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된 기관 및 단체, 대학연구소 등이 해당된다. 문의 충청남도 여성정책관실(042)251-2521

목초 함초

화제의 발바닥 건강법 : 발바닥에 붙여 노폐물을 배출시켜주는 - 목초수액시트 고객사은행사중입니다.
손발이 차거나 저리거나 시린분, 팔, 다리가 쑤시는분, 많은 분들이 애용하는
수액시트 특별가!



손발이 차거나 시린분
아픔에 시달리는분 등

몸속 해독 - 함초

바닷가 갯벌에서 자라는 신비의 식물! 함초는 순수한 염(해조류: 미역, 다시마)보다 많이 함유할뿐만 아니라 각종 미네랄을 함유한 함초! 꾸준히 사용시 숙변,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주며, 현대인들에게 부족하기 쉬운 각종 미네랄 섭취에 도움을 주는 함초는 자연이준 귀중한 선물입니다. (자연, 냉풍, 냉동동결건조제품입니다.)

함초 생산품

함초 분말(자연건조)	200g	56,000원	자매품
함초환(자연건조)	200g	50,000원	밸런스 화이버 35,000원
함초 캡슐(냉풍건조)	150g	66,000원	
함초다이어트	150g	80,000원	

기타: 함초액즙(일반, 다이어트), 함초 9곡물 팩, 함초 김, 함초 소금 등

판매원 : 가자라이프 02)5454-010
농협 : 063-02-124288 이수일 즉시 배달

당신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유체이탈과 영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를수 있음)

- 조상신과 중엄신을 제도할 수 있습니다.
- 조상의 무덤속까지 볼 수 있게 합니다. (예 : 물 또는 나무뿌리가 침범했는지 여부 등)
- 영가의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 영가와 대화할 수 있게 합니다.
- 5년후 10년후의 미래를 볼 수 있게 합니다. 전생을 볼 수 있게 합니다.
- 천도시 영가가 세수하고 새옷을 갈아 입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노잣돈을 챙기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부처님의 말씀에 영가가 참회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합니다.
- 대상 : 스님, 법사

좋은소식(영험도량)

지상의 그 어떤 악한 중엄신도 단방에 보내는 도량입니다

- 영가의 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모든 현상을 확실하게 잡아줍니다. (모든 빙의령)
- 무병, 신병으로 고생하는 분, 마귀에 눌리고 환청으로 잠못 이루는 분
- 밤마다 가위눌리고 악몽에 시달리는 분, 각종 정신장애로 고통받는 분
- 주위에서 볼때 도저히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보기힘든 행동을 한다든지, 방안에서 혼자 중얼거린다든지 등등... 조상의 음덕으로 사업성공을 발원하는 분, 하는일마다 무엇이 가로막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분

자비정사 영험도량
02)3453-3421

당 뇨
다운 밸런스

- 당뇨,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그것은 다운 밸런스에는 사람의 체질을 약알칼리성 체질로 바꾸어 주는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체질을 바꾸기 전에는 당뇨병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인슐린 양이 부족하여 높게 상승된 혈당치가 다운 밸런스의 당대사를 개선시켜주는 강력한 작용으로 현저하게 떨어지며 물질 영양대사 기능을 활성화시켜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개선 예방할 뿐만 아니라 당뇨로 인해 결핍된 영양소를 체내에 균형있게 공급하여 무너진 영양바란스를 조정해 줍니다.

▶ 다운 밸런스의 당뇨에 대한 효과
20일~30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다운 밸런스 90mg cap 90 cap × 3병
1개월분 130,000원



결과에 자신있습니다.
자연식 동우회 회장
개발약사(한약사) 박동완

당뇨병 외 기타질환에 대한 다운 밸런스의 효과

- 위궤양, 비만증, 무좀, 체력증강
- 감기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개선
- 피로를 없애고 뇌를 맑게 해줌
- 피부를 아름답게 부드럽게 해줌
- 갱년기 장애 등
- 자율신경실조증
- 정력증강, 술, 담배해독
- 암, 관절염, 고혈압

C.W. 초원케미칼라이프 Co.
(구)반도제약특수사업부
주문 및 상담 (02) 598-9832

당신도 침술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과정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침술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단기과정!! 속성비결!!

사암침술 강좌

3개월이면 침술인에게 필요한 실력을 3배이상 책임지고 높여드립니다.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구요결,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처방요령, 침술즉효요법, 정골방법, 종합실습
▶ 개강 : 2004. 1. 5 (주 2회 - 매주 월, 화요일. 주 · 야간반)
▶ 강사 : 침술즉효요법, 침술학 교과서 저자 직강(교재 무료)

명리학 강좌

가장 어렵다는 용신법을 쉽고 간단하게 배울수 있으며 3개월만 배우시면 당신도 프로가 될 수있습니다
▶ 내용 : 사주작성, 취용법, 대세운법, 사주간명법, 적성판단, 직업판단, 택일, 궁합, 작명법(실습위주)
▶ 개강 : 2004. 1. 7(주 2회 - 매주 수,목요일. 주 · 야간반)
▶ 강사 : 명리학 교과서, 매화역수 저자 직강(교재 무료)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매년과 매월은 물론 시간대별로 길흉화복의 적중률이 매우 정확한 명리학입니다
▶ 개강 일정 : 2004. 1. 9 〔09:00~12:00〕
주1회 - 금요일 (주 · 야간반) 1개월 완성
▶ 강사 : 매화역수, 명리학교과서 저자 직강(교재무료)

사 암 침 술 학 회
장소 : 화암빌딩 402호(종로3가 지하철 12번 출구)
문의 : 011-307-2975. 02)2267-9136

효당스님 탄신 100주년 차문화 예술제

차는 자신을 찾아 떠나는 먼 여행길



◇지난 12월 25일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효당 스님의 탄신 100주년 전년제인 '한국 차도 문화 예술제'가 열렸다. 사진은 스승과 제자가 함께 차를 마시며 심신을 수련한다는 뜻의 '공수선차' 시연모습.

종지 받든 '반야로 차도문화원' 주최
예술로 승화시킨 선차 수행 선보여
100주년 앞둔 다양한 행사 계획

현대 차계의 중흥조로 일컬어지는 효당 스님의 탄신 100주년을 한해 앞두고, 지난 12월 25일 진주에서 효당 스님의 차도 정신을 기리는 문화예술제가 열렸다. 이날, 경남문화예술회관에는 현대 한국 차도의 발전에 큰 족적을 남긴 어른, 효당 스님의 탄신을 기뻐하는 차인들의 발걸음으로 분주했다.

99년 전, '지혜(般若)의 이슬(露)'로 이 땅에 맺혔던 효당 최범술 스님의 종지를 올곧게 이어가고 있는 '반야로 차도문화원(원장 채원화)' 주최로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한국 차도 문화 예술제'에서는 차 마시는 일상이 예술의 경지로 승화돼 무대에서 빛을 발했다.

행사에 앞서 채원화 원장은 인사말에서 "현대 차도를 부흥시킨 효당 스님의 차도를 새로운 예술 장르로 격상시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내년으로 다가온 스님의 탄신 100주년에 앞서 차인들과 함께 스님의 뜻을 기리고 싶었다"고 이날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막이 오르고 효당 스님이 남긴 차도 정신을 부흥시키기 위한 반야로 차도문화원 차인들의 몸짓이 시작됐다. 효당가 차살림의 기본 강령이라 할 수 있는 '차도무문(茶道無門)'의 정신이 이날 선보인 공수선차, 공빈선차, 말차시연, 헌공다례, 차춤, 독수선차 등에서 오롯이 되살아났다. 차생활을 문 없는 문을 통과하여 들어서는 일이자 자신을 찾아 떠나는 먼 여행길로 비유한 효당 스님의 차도는 손님을 맞아 차를 마시는 행위, 홀로 차 마시는 행위 등 일체의 차생활을 통한 내면의 수련 즉, 선차수행(禪茶修行)으로 귀결시켰다.

이날 무대에 올려진 공연 또한 채 원장과 문도들이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차 의식을 국악과 어우러진 공연 장르로 발전시킨 것으로, 선차수행의 전 과정을 보여주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차인들의 호응 속에 '한국 차도 문화 예술제'를 마친 채 원장은 "효당 스님의 탄신일인 7월 13일을 전후해서 효당 스님 문집 발간, 학술제, 효당가 차법 시연, 스님 유품 전시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효당가 차살림살이를 널리 알릴 것"이라고 내년 100주년을 앞둔 기대를 밝혔다.

■ 공수선차(共修禪茶)

채원화 선생 등 문도 30여명이 선보인 '공수선차'는 고요한 차실에서 화롯불에 찻물끓는 소리를 들으며 스승과 문도들이 법도에 맞게 잎차를 달여 마시며 함께 신심을 수련하는 선차로 차선일체의 세계를 선보였다.

■ 공빈선차(共賓禪茶)

정성껏 차를 달여 객을 대접하며 함께 차를 마시며 수련하는 선차를 선보인 공빈선차는 차를 마시며 주객(主客)의 경계를 허물었다.

■ 말차시연

스승과 문도들이 함께 찻사발에 가루차를 내어 마시는 선차수련으로 대숲을 지나는 흰구름을 무대배경에 어우러진 '별과 시'라는 가야금 연주가 차인들을 매료시켰다.

■ 헌공다례

차를 달여 올리며 밝아오는 새해의 희망을 기원하는 행차의식인 헌공다례는 어두운 무대에 밝힌 촛불과 일렬로 헌다하는 문도들의 무거운 발걸음이 무대를 압도했다.

■ 독수선차(獨修禪茶)

이날 무대의 하이라이트. 차실에 홀로 앉아 차를 달여 마시며 깊은 차선삼매에 들어 유천희해(遊天戱海)하는 선차수행으로 차를 통해 내면합일의 경지를 드러낸 무대로 호응을 얻었다.

진주=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 효당 스님은?

77년 차도회 발족 · 독특한 제차법 전수
항일, 민족교육에 공 세운 불교 지도자

한국 근세 차도문화의 중흥조가 초의 스님이라면 한국 현대 차도의 중흥조가 바로 효당 스님이다.

그냥 좋아서 마시면 그만인 차생활을 도의 경지로 끌어올리는 차수행으로 승화시킨 스님은 1904년 경남 사천에서 태어나 13세에 다솔사로 출가했다.

한국 최초의 체계적인 차도 개론서인 <한국의 차도> 저술했으며 77년 한국에서 최초로 차인들의 동호인 모임인 한국차도회를 발족시켜 한국차인회 결성의 모태를 마련했다. 특히, 스님만의 독특한 정제증차인 색과 향, 맛이 뛰어난 반야로 제차법을 전수시켰다.

'차 마시는 행위를 통해 미망에서 깨어나 사람노릇을 제대로 해야한다'고 강조한 효당 스님은 60여 년간 다솔사에 주석하며 원효 스님의 사상과 교학 복원과 연구에 전념했으며 만해 스님과 함께 만당(卍黨)을 결성, 항일운동의 선봉에 서기도 했다.

차도무문(茶道無門)과 차도용심(茶道用心)에 바탕하는 선차수행을 확립한 효당 스님은 79년 76세로 입적할 때까지 대승불교적 실천으로 일관하며 차선삼매의 경지로 후학을 이끌었다.

차문화 교육현장

원광디지털대학교 차문화경영학과

전통에 기반을 둔 전문가 양성

올해 처음 개설된 원광디지털대학교(총장 성제환) 차문화경영학과는 모든 수업이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는 '사이버 대학'이다. 차 문화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4년제 대학으론 국내 최초다.

이 곳에서는 우리 차의 뿌리와 역사, 차 마시는 예절, 차의 유통과 경영 등을 교양과정으로 배운 뒤 이를 바탕으로 전통 한복, 음식은 물론 판소리, 선명상까지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전통문화 전문가를 양성하게 된다.



국내 최초 4년제 차 학과
교육센터 운영 효과 배가

성제환 총장은 "우리 차문화는 유구한 역사와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다"며 "차의 자연과학과 인문학적 기본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행사 기획 및 교육과 문화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차문화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차학과를 개설했다"고 말한다.

우리의 전통에 기반을 둔 문화행사 기획 전문가와 차 산업 경영가를 키워내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다.

원광디지털대는 인터넷으로만 수업을 받아 자칫 무미건조해질 수 있는 대학생활을 흥미롭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로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의 학습활동과 전문실습,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교육센터는 현재 서울과 부천, 광주, 익산에 운영중이며 오는 3월 광명에도 문을 열 예정이다. 또한 차문화경영학과 학생들은 전국 80여 곳의 다례원에서 다도교육을 받을 수 있다. 차문화경영학과를 졸업하면 전통차예절강사 사범증과 선명상지도사 자격증, 생활예절강사 자격증을 비롯해 평생교육원의 교수 자격증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성 총장은 "교육센터와 다례원 등을 통해 교수와 학생들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교과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도 반영할 예정이다"며 "다도교육과 차 문화 육성에 뜻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원광디지털대는 수능 성적이나 고등학교 내신 성적과 관계없이 고등학교 졸업자,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면 지원이 가능하다. 2004학년도 신입생 선발을 위한 원서접수를 특별전형은 이달 10일까지, 일반 전형은 30일 까지 인터넷 홈페이지(www.wdu.ac.kr)와 전화(1588-2854)로 받고 있다. 스님을 비롯한 성직자에게는 30%의 장학금 혜택이 주어진다.

여수령 기자

interview 성제환 총장



소비자 중심의 경영자 육성할 터

"우리 선조들의 삶과 사상,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것이 바로 다도입니다. 우리의 전통 차문화를 복원하고 체계화시켜 세계적인 문화로 키워나갈 인재를 양성할 것입니다."

차문화경영학과를 개설한 원광디지털대학 성제환(50) 총장은 "앞으로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차 문화 콘텐츠를 구축하고 이를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에 공급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차문화 관련 세미나와 연구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원광대 한의대와 공동으로 차의 의학적 효능을 규명하는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다.

"일류 대학은 강의의 우수성으로 평가된다"는 성 총장은 "앞으로 차문화경영학과를 일류로 키우겠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녹음테이프로 공부하는
太極四柱가 나왔다
(사주배우기가 너무 쉬워졌다)

중국 命理學을 완전 압도하는 새로운 太極四柱가 나왔다.
太極四柱는 이론이 간단명료해서 누구나 쉽게 배우고 속성으로 완성하며 자신있게 개업할수 있다.
中國四柱인 命理學은 10년을 공부해도 끝이없고 올바른 판단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太極四柱는 배우기가 매우 쉽고 자상하며 간단명료해서 구체적이고 논리가 정연함으로서 차분하고 능소 능대한 강의는 들을수록 감명과 실감이 생생하다.
누구나 이해하고 터득하도록 실례를 들어 흥미 진진하게 설명하므로서 질문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녹음테이프를 하루 한시간씩 독학으로 2개월이면 완성하고 인간만사를 정확하게 판단한다.
20여년간 강의하고 연구개발한 太極四柱는 오판과 실수가 없다.
中國命理學과 는 하늘과 땅 차이이다.
(안내서 무료 배부)

●주문방법 : 아래 계좌로 송금하시고 전화하면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테이프(14개)와 교재 代金 45만원
▶농협 : 100080-56-022361 (손선영)
※ 스님 및 포교사 특별할인 (30만원)

學術團體 韓國陰陽學會中央會
(053) 324-2468 / 326-4585
釜山支部 : (055) 384 - 2303 大邱支部 : (053) 641 - 2334
龜尾支部 : (054) 465 - 2642 慶南支部 : 016 - 274 - 3170
慶北支部 : (054) 553 - 5145

명리학 사상 가장 확실한 교과서인
"최신팔자명리학비결서" 소개

사주학 사상 그 누구도 사주학의 요체가 되는 **<용신을 확실하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놓지 못했던것을 본서에서는 수년간 연구 검증된 계산법으로 그 방법을 제시해 놓았기 때문에 누구나 다쉽게 사주학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본서의 이론을 습득하면 어떠한 사주이던 자신있게 상담에 임할수가 있습니다. 또한, 본서는 사주학을 운명추론학에서 심리학으로 까지 발전시켜놓은 이론이기도 합니다.

◆ 본서의 주요내용 소개 ◆
- 복잡하고 애매한 명리이론들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립시켜 놓았다는 점.
- 검증된 간단한 계산법으로 어떠한 사주이든 쉽게 <용신>을 찾을 수 있는 비결 공개(억부, 음양, 구조용신).
- 심리구조분석 및 8개궁위분석 비결 / 일간진입원리 응용비결 공개.
- 각종인연 분석에 관한 확실한 분석비결 공개(육친, 재물, 지위, 결혼인연 등).
- 사주원국에 대. 세운을 대입 해석 하는 비결 공개.



◐ 저 자 : 오산 정대균
◐ 책규격 : A-4별정지 620쪽
◐ 가 격 : 220,000원
◐ 본서는 본 연구소에서만 판매하며 입금 후 전화주시면 택배로 발송함
◐ 하나 : 751-810033-42207
국민 : 765202-04-019996
농협 : 170202-56-037616
● 예금주 : 정대균

www.sazoopalza.com
오산 팔자 심리학 연구소
☎ 02)831-0055(대표)
FAX 02) 831-0058 / H · P 011-208-0051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 (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謹賀新年

대한불교법상종 총무원장 주석사찰
원적산 대성사

주 지 학 산
신도회장 문용덕
총 무 홍한묵
화주보살 김옥덕
신도일동

■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외평리 산 66
TEL 031)882-9846

대한불교 조계종
운문사 · 운문승가대학

회주 명 성
대중일동
www.unmunsa.or.kr

■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1789
전화 : 054) 372-8800 팩스 : 054) 371-0359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내 한마음이 밝으면 다 밝게 살 수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과 눈을 마주하면서 서로 토론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말을 하면 여러분이 먹을 것이요, 여러분이 질문을 해도 내가 먹고 없는 것입니다. 함이 없이 하는 도리가 바로 이 도린가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 이러한 도리를 공부하는데 대해서 갈등이 있거나 방황하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건 대승이니 소승이니 하면서, 여기는 체계가 잡혔느니 잡히지 않았느니 하고 생각들을 하고 갈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리라고도 생각합니다. 아주 없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허나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우는 것은 생활이 참선이요, 생활이 바로 진리요, 자기 마음을 탐구하는 데 대해서는 앉았는 것도 섰는 것도, 눕는 것도 모두가 참선이 되고 좌선 · 와선 · 입선이 따로 없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도리를 지금 배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가 잡히지 않은 듯하지만 일체 만법의 체계가 잡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여러분이 지금 행하고 나가는 거, 질서를 지키고 도의를 알고 의리를 알고 사랑을 알고, 이러한 전체 모든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참선이며, 진리를 그대로 탐구하고 나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승이니 소승이니 하고 잘못됐느니 잘됐느니 체계가 섰느니 안 섰느니 하고 그거 논의하다가, 여러분이 죽으러 가는데 지금 관에 들어가야 할 텐데 어떻게 이것이 체계가 잡혔느니 안 잡혔느니, 대승이니 소승이니 하고 그런 거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죽은 세상 50%를 탐구해야 사는 세상 50%를 같이 귀합을 시켜서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세세생생에 끄달림이 없이 윤회에 끄달리지 않게 될 텐데 말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참된 모습을 탐구하는 데에 지침이 될 거를 생각하면서, 지혜를 얻을 것을 약속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이것 저것 따지다 보면 어떻게 죽은 세상에 가겠습니까? 자기 마음이 죽지 않은 이상에는 죽은 세상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망상이라는 것도 놓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도 놓고
꾸준히 물러서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그러므로 우리가 '주인공' 하는 것을 예전에 육조(六祖)스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성품이 스스로 청정함을 내 어찌 알았으리까?" 그 마음을 말하는 거죠. "마음이 스스로 갖추어가지고 있음을 어찌 알았으리까?"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마음을 어찌 알았으리까?" 즉 물러서지 않는다 하는 것은 구족함을 말하는 거죠. "스스로 내 마음이 내고 들이는 것을" 일체 만법을 말입니다. "내고 들임을 어찌 알았으리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주 천지가 인간의 마음에 직결돼 있어서 돌아가는 뜻을, 대천세계 · 중천세계 · 소천세계가 한꺼번에 돌아가는 이치를 다 종합한 뜻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스스로서 직결된 거를 알고, 직결된 거를 알았으면 스스로서 자유롭게 굴릴 수 있다는 얘기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팔 법륜 마크가 그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사유사무(四有四無), 사무사유라고 해도 되고 말입니다. 바로 일체가 인간의 마음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달으면 스스로서 그렇게 청정함을 알고, 스스로서 갖추어 있는 거를 알고, 스스로서 그렇게 구족함을 알고, 스스로서 참,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내는 그 자유자재함을 자기가 알고, 스스로서 그렇게 하는 거지 누가 그것을 갖다주고 뺏어가고 이러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공부 하는 데 대해서 그것이 다 포함된 것을 주인공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한마음이라는 부처, 부처가 없는 게 부처다 했죠. 한마음이라는 뜻은, 이것은 어떠한 대(對)가 없는 게 한마음이예요. 어떠한 그 뭐가 불지 않는 것을 한마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 그 한마음의 도리는 돌아요(원을 그려 보이시며), 한마음으로 돌아가니까 육체도 모두가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상대로 인해서. 내가 아니라면 상대가 살 수 없고 상대가 아니라면 내가 살 수 없듯이, 모두가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돌아가니까 그 돌아가는 찰나 생활이 한꺼번에 계합이 된 그 뜻을 주인공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 그 주인공은, 즉 말하자면 전체가 한데 합쳐진,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없으니까 전체가 합쳐진 그것을 용광로라고도 하고 자가발전소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되고 못되는 거, 나중에 잘된다 못된다 이거는 개의치 말고 용광로에 넣기만 하는 작업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용광로에 넣기만 하는 작업을 한다면 재생돼서 나오는 쇠는 자동적으로 스스로 나오니까, 내가 이렇게 놓는다고 해서 잘될까, 못될까 이런 건 걱정하지 말아야 이게 진짜 정통으로 놔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주인공에게 모든 것을 다 일임해서 놓고 난 뒤에 재차 '아이구, 이렇게 놓는다고 저 일이 저게 될까?' 이러한 생각을 한다면 그건 용광로에 정통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재생돼서 나오는 거는 생각지 말고 거기 넣는 작업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넣는 작업만 한다면 바로 부설거사가 자기 앞의 일을 용도에 따라서 한 거나 같겠죠. 한 여자가 말을 못 하고 있다가 19세가 된 후 부설거사를 만나보고 입이 떨어졌다죠. "나는 입이 떨어졌으니까 당신을 놓고는 못 살아. 당신이 나하고 결혼을 안 한다면 나는 당신이 돌아서자마자 죽어버리겠다." 하니까 부설거사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내 앞의 일을, 사람 죽는 걸 건지지 못하고 처리를 못한다면 부처님께 누(累)가 될 뿐만 아니라, 부처님이 가르치는 그 뜻을 어기는 일이니까 그것을 살리고 보자. 앞의 일 치우지 못하고 저 먼 데 치우려고 한다고 해서 치워지는 건 아니지 않나!'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그대로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씨, 지혜!

그 다음에 두 스님이 찾아와서 그렇게 아래로 내려다보고, 아집을 가지고 그렇게 막말을 해도 태연하고 인의롭게 마음 상치 않게 대접을 해주고 한 그 뜻, 지혜, 자비!

그 다음 셋째, 그 자비로써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병에다가 물을 담아서 주욱 답아놓고서 "하나하나 깨트려 보게!" 했던 거, 깨트려 보니까 두 스님은 물과 병이 전부 다 그냥 떨어져서 깨졌고, 부설거사가 친 거는 병만 깨져서 떨어지고 물은 응고돼서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 있더라는 얘기죠. 그러니 그것을 보고 잘못됐다고 할 때에 그 두 스님은 참 "오만과 자만, 아집을 버리지 못하고 이론에만 끄달려서, 큰스님한테 돌아다니면서 공부했다는 그 아집만 가졌으니 용서하십시오." 하고서 다시 일어나서 몸을 조아리고 절을 했으니, 보잘것없는 나무꾼같이 생긴 그 부설거사한테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몸뚱이는 저 병 껍데기와 같고 그 대롱대롱 매달린 응고된 물은 바로 우리의 성품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 성품은 변하지 않고 끄달림이 없고 여여하다고 했죠.

그래서 그 두 분 스님은 부설거사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을 하고 제자가 됐듯이, 그 마음 가짐가짐이 어느 누구든지 깔보지 않고, 하다못해 생각이 없든지 있든지, 목석이든지 목석이 아니든지, 돌이든 꽃나무든 죽어가는 나무든, 병신이든 병신이 아니든,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누구를 막론해 놓고 웃으면서 대해줄 수 있는 그 아량과 지혜가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와 '내가 못 배웠을 때 내 모습이요, 내가 수억겁 광년을 거쳐올 때 저런 모습을 하고 거쳐왔지 않나, 바로 나인 것이다.' 이렇게 사랑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졌을 때 바로 그 모든 것에서 몰락 벗어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높은 산꼭대기, 제일 높은 데를 올라가는데 무엇을 자꾸 짊어지고 갈 바가 뭐 있습니까? 자꾸 놓고 가야지 사람 하나 몸뚱이 올라가는 것도 무거운데 어떻게 자꾸 생기는 대로 짊어지고 가겠습니까? 그러니 올라갈 때는 다 놓고 올라가라 이겁니다. 조금만 뭐이 보이는 게 있고 들리는 게 있고 이러면 그냥 자만하고, 또 나쁜 게 보이고 좋은 게 보이고, 미운 게 보이고 또 이쁜 게 보이고 이걸 일일이 욕심내고, 그 아집을 가지고 나라는 조건에서 영 한 발짝도 떼놓지 못한다면 거기, 자기가 갈 수 있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 짐도 무거우니까, 이 몸도 공(空)해서 이것도 놓고 지금 터벅터벅 가는 바 없이 가고 있는데 자꾸 짊어질 게 뭐 있느냐는 얘깁니다.

다 놓고 가다 보면은 맨 상봉(上峰)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비로소 둘러보니까 모두 그 위에서 내려다 보이더라 이겁니다. 전체를 볼 때하고 조그만 개별적인 거 볼 때하고는 전혀 다르게 보이더라 이거예요. 전체가 보이는 걸 보니까 '아이구, 저기서 일어나는 것이 여기로 인해서 일어나고 저기로 인해서 여기서 일어나고 이렇게 되니깐, 이쪽을 누르면 저쪽이 눌러지고 이쪽이 이렇게 자꾸 일어나니까 어떤 거를 손을 댈 게 없더라.' 이렇게 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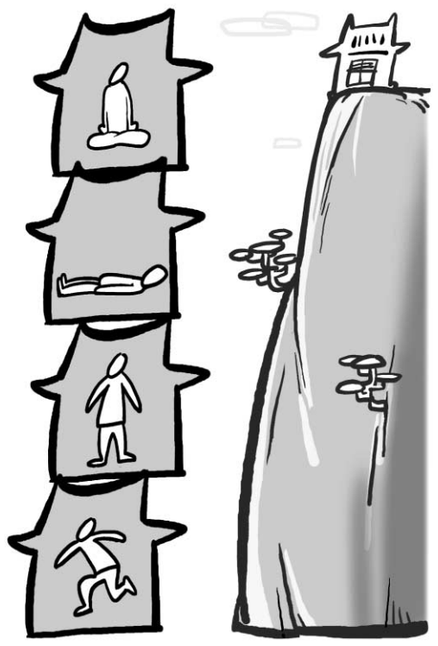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잘될까 못될까 걱정하지 말고
모든 것을 일임해서 놓아야
이게 진짜 정통으로 놔지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고 잘하고 그것이 없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남녀노소가 따로 없고. 무(無)의 세계, 유(有)의 세계를 다 합쳐서 보니까 그렇더라는 얘기죠. 또 동 서가 들이 아니고 남자 여자가 들이 아니고, 대승 소승이 들이 아니요, 어려운 사람 부자 사람 이것이 들이 아니요, 권세 없는 사람과 권세 있는 사람과 들이 아니요, 항상 뒤바뀌지더라 이거예요. 돌아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려올 때는 다 주워모아서 담아도 담긴 사이가 없더라. 담긴 사이가 없으니 내려와서는 내놔도 내놓은 사이가 없이 내놔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이 이 도리를 배우는 데는 천금 만금을 주고도 배우기 어려우니 지금 인연에 따라서 이렇게 배우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스스로 익히고, 자기 것을 만들어서 스스로서 자기가 응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과 지혜와 자비를 가지고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으시라는 얘기죠.

우리가 아무리 남의 책을 보고 남의 말을 듣고 지식적으로 머리에 넣어서 그거를 때에 따라서 얘길 하고 쓴다 해도 그거는 헛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을 본다 하더라도 백지를 볼 줄 알아야 글을 볼 수가 있고 글을 볼 수 있어야 만법의 근원이 지혜롭게 그 한 글자에서도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 여북하면 '백'은 전체를 말하고 '지'는 지혜를 말한다고 하겠습니까. 글은 우리가 지금 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다 좋다 하는 거를 모른다면 어떻게 부처를 이루겠습니까?

하여튼 망상이라는 것도 놓고, 우정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마음도 놓고 꾸준히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대로 여여하게 갖추어가지고 있으니까,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사생결단을 하고 '이놈의 게 왜 안되나?' 모질음을 쓰고 '이게 이렇게 놓으면 된다는데 왜 안되나?' 이러면 이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네가 가다가 "아이고, 다리가 저렇게 많은데 어떻게 저렇게 가나?" 하니까, 딱 서서 못 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못 갑니다. 그러니 누구한테 탈을 합니까? 그렇게 성심하게 일러드려도 놓지 못하고 놨다 하더라도 또 생각을 할 때는 '아이고, 이거 또….' 하고 방방방방 뛰고, 그렇게 될 때 또 놓으라고 하니까 '아이구,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놨는데도 안된다.' 이거죠. 안된다는 생각까지도 놔야 될 텐데 그걸 놓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 여러분 중에서 어떤 사람은 "아이, 그거 뭐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하늘이 무너져서 짜부러져 죽는다 하더라도 그냥 아이, 뭐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죽으면 죽는 대로 살죠." 이러는데 그 사람은 아주 살게 돼서 괜찮고 아, 이건 살려고 바둥바둥하고 '왜 놓는데도, 그렇게 말기는데도 안되느냐. 주인공 살려주시오.' 이러면 오히려 안된단 말이죠. 그거는 어리석은 행이 아니냐 이겁니다. 해달라면 벌써 들이 되는 거예요. 해달라긴 누구더러 해달랍니까? 내 마음이 안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누구더러 해달라 하는 겁니까? 그래 아까 얘기하듯 내 마음이 스스로 청정한 줄 어찌 알았으리까? 내 마음이 스스로 그렇게 일체 만법을 갖추어가지고 있다는 걸 어찌 알았으리까? 내가 있기 때문에 구족한 걸 어찌 알았으리까? 내가 있기 때문에 일체 만법을 들이고 냄을 어찌 알았으리까? 능히 말입니다. 이것이 스스로서 자기 것이 돼서 스스로 당당하고 여여하게 이렇게 펴내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부처님이 가르치시기를 말입니다. 이렇게 목마른데 어느 누구가 물을 '먹지 마라.' 하는 사람 있습디까? 내가 목마르면 먹을 수 있게끔 하고 마음을 내서 육체를 움죽거리게 하고, 발을 떼어놓게 하고…, 그렇게 갖추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갖추어져 있는데, 깨우쳤다 깨우치지 못했다 하기 이전에, 목말라서 물 마시는데 누구가 마시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구족합니까, 이게. 여여하고 말입니다. 갖추어 가지고 있고.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내는 것을 스스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왜, 어려워서 나는 못 한다 이런 말을 합니까? 해보지도 않고 느껴보지도 않고. 그러고 욕심이 앞서서, 나라는 조건이 앞서서, 애착이 앞서서 말입니다.

요새는 값싼 사랑들을 하기 때문에 울고 짜고 모두 그러는데 값싼 사랑을 해서 값싼 눈물을 흘리지 말라 이겁니다. 한 눈물을 흘릴 때도 한 방울의 눈물이 온 바다를 이룰 수 있고, 온 바다를 한 눈물 방울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어서 여러분이 살 수 있게끔 한다면 자유자재권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우주 천지에서 여러분한테 열쇠를 맡길 것입니다. 그건 누가 주는 거냐? 그런 게 있죠. 그거에 대해서 이따 얘기하고, 여러분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질문자1: 물질에 대한 욕심이나 탐욕심 이런 것들이 제 자신을 위한 게 아니고, 가령 불법이 이렇게 중생 구제를 위해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3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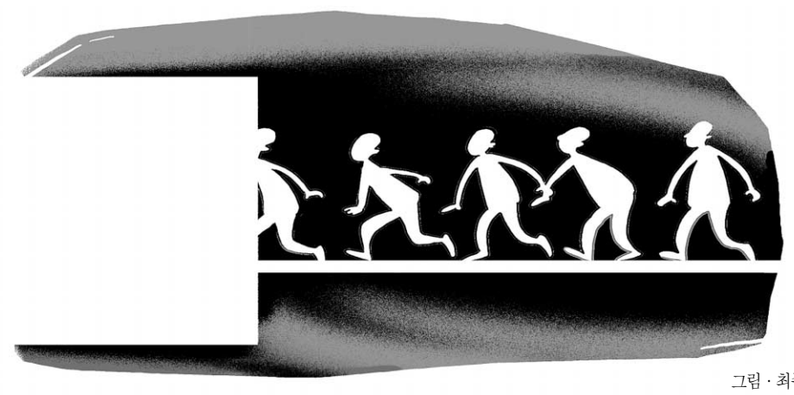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29면에서 계속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해보고자 하는 욕심이었다면 그것도 버려야 됩니까?

▲스님: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먹는 거는 물을 먹으면서도 함이 없이 먹었습니다. 먹은 사이가 없이 먹었고 말을 했어도 하는 사이가 없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 거와 같이 남에게 이런 물건을 (손수건을 들어 보이시며) 하나 줬더라도 내가 줬다는 생각 없이 그냥, 그냥 주고 갈 뿐이고 걸어갈 뿐입니다. 살 뿐입니다. 그렇게요. 그냥 주면 줬지 자기가 줬다는 생각은 없어야 하겠죠? 왜냐? 자기도 공(空)했으니까.

내가 어저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내를 만나서 뽀뽀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탁 들어오더니 "아빠!" 그러거든. 그러니깐 아내를 비켜놓곤 어린애를 번쩍 안아서 "그래, 아빠다." 하고선 "어디 가서 놀다 왔니?" 하고선 말을 하는데 저 안에서 말입니다. "아범아!" 그러고 또 부르거든요. 어린애를 탁 내려놓고 또 어머니한테로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을 만났었는데 그때마다 똑같진 않았죠? 하나는 남편이 됐었고, 하나는 아버지가 됐었고, 하나는 아들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 될 때에 나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공(空)했다는 얘깁니다. 모두 일체 사는 게 공했어요. 참나 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한 그릇이에요, 공한 그릇. 그러니 여러분이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내는 것을 다 당신 내면의 주인공에 일임하라. 그 주인공이라 하는 것은 어떠한 개별적인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닌 한마음의 도리로서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했다 네가 했다 하지 마시고 그대로 여여하게 하시면서 놓아라 안 놓아라 하는 이런 것도 놓으십시오. 그 생각을 전체 놓으시고 그대로 하세요. 자주자주 나오시면서 여기 여러분이 하는 이야기도 거름삼아 들으시고요.

▲질문자2: 저는 『한마음』이라는 책을 읽어보고 큰스님의 그 높으신 법문을 듣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왔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지난 5월 14일날 아들을 낳았습니다. 낳았을 때는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한 달이 지난 뒤 애가 굉장히 놀라고 많이 심기가 불편해 가지고 사경을 헤매는 정도였습니다. 병원이라는 병원은 다 다녀봤습니다. 병명이 뇌성마비입니다. 그런데 뇌성마비도 좋습니다. 제 인(因)으로 인해서 자식이 받은 죄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저의 마음이 항상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스님: 내가 항상 이런 말을 하죠. 금은 금대로 놓고, 또 쇠는 쇠대로 놓고, 은은 은대로 놓는다고요. 사과는 사과대로 놓고 이렇게 끼리끼리들 모두 모아놓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인(因)으로 인해서 현재의 과(果)로 엮어진 겁니다. 하여 직결돼 있는 근본이 모두 사람의 마음에 직결돼 있는 것을 알고 그 직결돼 있는 주인공을 믿고 거기다가 모든 것을 맡겨놔라. 이 병이 거기서 나온 거니까, 인과응보로 나온 거니까, 인과응보로 나온 데다가 다시 놓아라. 바로 네게서 그렇게 나온 거니까, 너한테서 나온 거니까 네가 고쳐라 하는 것을 믿고 거기에 놔라 이겁니다. 너만이 고칠 수가 있다. 주인공에서 나온 거니까 주인공에서 고쳐라 이거죠.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듯이. 자기가 오다가 엎어졌으면 자기가 일어나서 오겠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주고 뺏어가는 게 아닙니다. 당신네들이 지어놓은 거니까 당신네들이 풀어야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거기서 나온 거니까 거기다 되놓는다면 바로 화(化)합니다. 물도 가스가 되듯이 화해버려요. 그러면 그 마음, 인과응보를 졌던 그 업이 그냥 송두리째 무너져버립니다.

그래 다시 보살로서 재생이 되니까 그때야, 억울하고 누명 쓰고 또 업보가 많고 자기가 저지른 많은 일들의 인과응보가 다 스러지게 되고, 그러면 이 몸뚱이 속에, 대뇌 속에, 이런 모든 생명들이 그때서야 활개를 펴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잘 공급을 해주고 잘 회전을 하기 때문에 병 증세가 낫는다 이런 겁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실천입니다. 실천궁행하는 데 우리가 참, 노력을 해서 체험하고, 체험하면서 우리는 믿게 되고 진실하게 되고 '아, 이런 거로구나.' 그럼 일체 만법, 적으나 크든지 용도에 따라서 내가 다 이렇게 여기서 나오는 거로구나. 내가 있기 때문에 태초요, 내가 나왔기 때문에 태초야. 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화두예요. 여러분이 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화두지 여러분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이런 공부 하는 데 어떠한 아쉬움이 있고 어떠한 못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나 못났을 때, 나 못 배웠을 때, 나 가난했을 때, 나 병신이었을 때, 내가 미생물이었을 때 바로 내 모습으로 보시라 이겁니다. 그런다면 그 병 증세가 다 없어지고도 남음이 있어요. 모든 거를 주인공이, 모두 결집된 주인공만이 바로 내 자식을 고칠 수 있다 이겁니다.

저 뉴욕의 어딘가 그 이름도 잊어버렸습니다마는 산호세 갔을 때도 그렇고, 댁에처럼 뇌성마비로다가 그런 건이 생겨가지고 수술을 한다고 야단이 났었어요. 그런데 애가 뭐 정신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엄마 아빠가 너무나 정성이 지극하고, 외삼촌도 또 거기서 사는데 그렇게 정성이 지극했어요. 지난번에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지금은 아주 출중한 어린애가 됐어요. 그건 누가 그렇게 했느냐? 그런 마음을 내주는 것도 스님이지마는 그 마음이 서로 계합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 방통 안에서도 내 한마음이 밝으면 여러 사람들이 다 밝게 앉았어요. 밝게 살 수 있어요. 한 가정에 한 사람만 이런 도리를 깨우치고 나간다면은 그 가정을 다 이끌어가지고 갈 수 있어요, 지혜가 있다면. 다 밝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불 하나만 켜면 항상 밝으니까 남도 밝게 살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화목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잘 이끌어진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론만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천궁행해라 이겁니다.

질문할 분 없습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하던 거마저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50%가 결집돼서 현상세계에서 사는데 모든 게 악화되고 병고액난이나 가난이나 그것이 성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우리가 우주의 법계와 더불어 같이 이렇게 상응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우리 마음들이, 우리 여기에 다니는 분들이 소승이니 대승이니, 체계가 없느니 있느니 이러한 혼란에 빠져서 자꾸 놓지 못하고 그렇게 망상에 끄달리지 마시고 전부 이 마음 주인공에 모든 것을, 그러니까 용광로에 넣는 작업만 하신다면, 또 작업을 하시되 안 되는 것도 한 찰나고 되는 것도 한 찰나입니다. 그러니까 되는 것은 감사하게 말겨놓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도 찰나인데 되게끔 하는 것도 거기밖에 더 있나?' 하고, 병을 앓더라도 '거기서밖에는 병을 낫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놓을 수 있고, 가난이 와도 '거기서밖에는 부유하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해나갈 수만 있다면 앞으로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유권을 가지고 여러분은 자유자재할 수 있으며, 우리는 부처 중생이 따로 없이 자기 몸 안에 있는 중생들부터 다 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다 생기죠.

그러니 우리 한마음 도리, 불러터지고 아무 특별한 것도 없다 하지만은 남이 이러든 저러든 내버려둡시다. 그저, 알고도 놓고 모르고도 놓고, 이렇게 사십시오. 한 찰나의 뜬구름처럼, 우리는 한 조각의 구름과 같은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병이 깨지면 그 응고된 물은 항상 흐르고 녹았다 흘렀다 하고 그렇게 여여한 것입니다. 그렇게 안하면 여러분이 또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항상 지수화풍에 고맙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는 고맙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 내 스승 아님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은 질문할 분이 안 계신다면 요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알든 모르든 그걸 제껴놓고, 모든 것을 놓으라고 그러시는데 내가 질문할 게 뭐 있나 이런 것이 아니라 알면 아는 것도 떡그릇인 줄 번연히 알면서 떡그릇에 얽드러진다, 돌다리도 한 번 두드려봐가면서 간다, 납득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해본다,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 함이 없이 우



그림 · 최주현

일체만법 들이고 내는 것을 다
내면의 주인공에 일임하세요

이것 저것 따지다 보면 어떻게 '죽은 세상'에 가겠습니까?

자기 마음이 죽지 않은 이상에는 죽은 세상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 법문은 대행스님 법어집 『한마음』의 내용 중에서 24호를 발췌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설법을 잘할 수 있습니다

단시일내에 대법사가 될 수 있는 길

부처님의 오종설법, 비유법, 대기설법
〈실기훈련 · 설법자료제공〉

성공적인 법회운영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자료의 재구성능력이 확보되야 합니다.

과목
● 발성훈련, 표정연기, 설득, 상담기법
● 음성, 태도, 修辭, 원고작성법, 회의진행법 등

연 수 안 내
▶기 간 : 2개월 과정 ※ 수시접수
▶강 의 : 수요반 - 매주 (수) 오후 1시 ~ 3시
목요반 - 매주 (목) 오후 7시 ~ 9시
▶지도교수 : 金哲會 박사
▶장 소 : 본 연수원
※ 출장 또는 개인지도 가능합니다 ※

◆ 문의 및 신청 ◆
☎ 02)747-1567/02)737-1567
H·P 011)248-1567

韓國說法研修院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F)

승복 법복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고급 모직 : 특징 - 울 50% 폴리에스텔 50%
적삼, 바지 150,000~180,000
동방, 바지 180,000~210,000
두루막 150,000~180,000
2. 무 명 (먹물 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두루막 180,000
3. 무명, 면 : 면100%(먹물 염색)
적삼, 바지 140,000 동방, 바지 170,000
두루막 140,000
4. 솜 없는 누비(먹물 염색)
적삼, 바지 170,000 동방, 바지 200,000
두루막 170,000
5. 면 목화솜 누비(먹물 염색)
적삼, 바지 230,000 동방, 바지 270,000
두루막 210,000
6. 골 덴 : 면100% 적삼, 바지 180,000
7. 장삼 고급모직 220,000~250,000
대가사 150,000 반가사 70,000
법복 모직 60,000~80,000

◆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요 ◆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 지하철 중앙로역 3번출구앞(동아백화점 방향 입구)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6-11 (지역판매점 모집)

지장보살원력 입은
달마도 보급에 나선 지명스님
달마도의 신비스러운 원력 함께 나누는 삶 서원



지명스님

새벽 맑은 공기가 창을 넘어오는 시간이다. 달마도에 취해 명상에 빠진 지명스님은 날이면 날마다 붓을 들고 그리고 또 그린다.
엣된 여승을 바랑을 짊어지고 목탁을 두들기며 서울 시내 지하철역마다 내렸다. 다시 타고 다음역으로 향하기를 수없이 반복하며 달마도를 1년에 전 지하철을 4바퀴를 돌며 불교를 전하고 그들의 찌든 마음을 열어주는 포교를 해왔다.
즐가 후 줄곳 지장보살님을 모시고 발원에 발원을 거듭하며 증진하던 중 지장보살님의 화현하심을 영접하고 달마도를 펼쳐 보여주시며 "이 달마도를 마음에 담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려 보급하면 이 달마도가 있는 곳마다 영험스러운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남기고 홀연히 사라졌다.
"그동안 많은 인연들이 저의 달마도를 소장하게 되었지요." 서울시내에만 무료로 일만여점의 달마도를 보급해 그들이 달마도의 신령스러운 기운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지난 경제위기 때에는 인양의 000아파트를 지어 놓고 분양을 못해 부도직전에 이른 수원의 어느 건설회사는 분양사무실에 스님이 직접 그린 달마도를 걸어 놓고 분양을 시작했는데 전세대가 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를 마쳤다고 한다. 지금은 구로구에 법당을 마련하고 계속 불사중이며 홍익대에서 체계적인 그림공부를 하면서 날마다 달마도를 그리며 지장보살님께 "이 땅의 병들과 괴로워하는 모든 중생들이 모두 부처님의 법력으로 치유되고 마음의 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생들에게 달마선사의 원력으로 어렵고 괴고운 고(苦)의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날마다, 날마다 서원하고 있다.

▼달마 6폭병풍



문의 전화 02)857-4576, 017)430-5008
보 현 사 지명스님 함장

山蔘으로 효력을 못보셨다고요?
蔓蔘(만삼)을 권합니다.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약!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신산골의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겐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 후 몸조리에 사용할 정도로 귀한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독성이 전혀없고 성질이 평하여 체질과 관계없이 男女老少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건강식품이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 후에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蔓蔘이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장뇌산삼(長腦山蔘)을 복용하고도 별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蔘)을 드시고 탁월한 영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기관지가 좋아졌다.
◆ 사지무력증이 나았다.
◆ 아프던 무릎이 안 아프다.
◆ 손발 저린것이 없어졌다.
◆ 인파선이 나았다.
◆ 변비가 나았다.
◆ 기력이 좋아졌다.
◆ 만성위염이 나았다.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천식이 떨어졌다.
◆ 몸에 부기가 빠졌다.
◆ 자궁 물혹이 없어졌다.
◆ 혈색이 좋아졌다.

※ 스님들께는 시주불사하는 마음으로 염가에 드리고져 합니다.
(생물 : 시중가 10Kg당 40만원을 20만원에 드리겠사오며,
단, 10Kg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만삼달인물(만삼생즛10kg, 황기, 잔대, 삼지구엽초, 생강, 대추, 감초)
■ 1Box × 60포 : 20만원 ■ 2Box × 120포 : 35만원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촌리 323번지
● 연락처 : (033) 563 -8292, 562-2165
● 성 명 : 심 정택 H·P 011-9242-8292
● 농협계좌번호 : 315024-52-012392 (예금주 : 심정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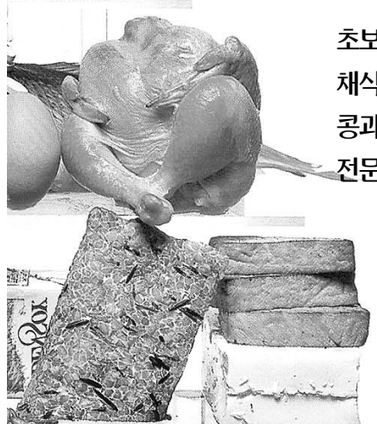
“건강 녹색을 먹자”



싱싱한 채소로 활기찬 삶을…

‘웰빙(well-being)’에 대한 욕구와 관심이 후끈 달아오른 요즘, ‘채식’은 웰빙족들의 필수 키워드로 자리잡았다. 이들은 채식주의자라는 이름으로 유기농 채소 구입에 상당한 비용을 할애하고, 주말이면 채식 전문 식당에서 고가의 외식을 즐기곤 한다. 그러나 막상 이들에게 채식주의의 기본과 그 실천법을 물어보면 ‘육류대신 채소만 먹는 것’ 등의 막연한 답을 얻기가 일쑤다. 이들이 진정한 채식주의자로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채식에도 단계가 있다?

보통 ‘채식주의자’라고 하면 육류를 먹지 않는 것만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채식주의자에도 여러 부류가 있다. 가장 초보단계는 ‘세미 베지테리언(semi-vegitarain)’ 단계. 이 단계에서는 육류는 금하지만 닭고기는 허용한다. 그리고 생선, 달걀, 유제품까지 모두 섭취한다. 이 단계가 익숙해지면 닭고기까지 금하는 ‘페스코(pesco)’ 단계로 넘어간다.

그 다음 과정으로는 육류 섭취 제한을 기본으로 하고 달걀과 생선, 유제품 섭취 여부에 따라 구분짓는 단계가 있다. ‘락토 오보(Lacto-ovo)’는 유제품은 먹되 달걀은 먹지 않는 단계이며, ‘락토(Lacto)’는 유제품과 달걀은 먹지만 생선은 먹지 않는 단계다. 이들 과정을 거치면 동물성은 하나도 먹지 않고 벌꿀과 유제품조차 입에 대지 않는 완전 채식주의 단계, 즉 ‘비건(vegan)’에 이르게 된다. 이들은 모피나 가죽 제품도 사용하지 않고 애완동물에게도 채식 사료를 선택하는 사람들이다. 최근에는 비건에서 나아가, 수명을 다하고 땅에 떨어진 과일만을 먹는 급진적 채식주의자 ‘프루테리언(Frutarian)’까지 등장할 정도로 채식주의자들의 부류는 다양해졌다.

초보부터 완전 채식의 ‘비건’까지 다양
채식에도 필수 아미노산 9가지 함유
콩과 견과류로 부족한 영양분 보충
전문식당, 요리사이트 등 접할 기회 많아

■ 채식을 시작하고 싶다면

△고기 끊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채식만으로는 체내에 필요한 영양소를 원활히 공급할 수 없다는 생각은 일종의 상식이 돼 버렸다. 그러나 그것은 검증되지 않은 설에 불과하다. 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어 반드시 음식물을 통해 섭취해야 한다는 ‘필수아미노산 9가지’의 예를 들어보자. 사람들은 이들을 육류 등을 통해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필수아미노산 9가지는 콩뿐만 아니라 딸기 하나, 김치 1조각 등 모든 곡채식에도 함유돼 있다. 다만 그 양에서 차이가 있을 뿐인데, 한국인들의 식습관은 대부분 쌀과 콩음식이 곁들어지기 때문에 더 완벽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무기질 섭취도 마찬가지다. 쇠고기의 경우 100g을 먹어야 4.8mg의 철분을 섭취할 수 있는데 반해, 참깨는 10g만 먹어도 1.9mg의 철분을 보충할 수 있다. 그래서 1996년 미국 농무부에서는 “사람에게는 동물성 식품이 필요하지 않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영양 많은 채식 식단을 충분히 활용하라.

평소 식단에서 고기만 빼고 먹는 채식을 한다면 영양실조에 걸리기 쉽다. 그래서 채식에 무리없이 적응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적절한 식단을 짜야 한다.

한국생명채식연합(www.vege.or.kr)에서는 효과적인 영양배분을 위해 식단을 꾸미는 몇 가지 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① 단백질은 콩류, 현미잡곡에서

콩은 가장 우수하고 이상적인 식품으로, 쌀과 콩류를 함께 먹으면 단백질 상호작용이 있어 가장 완전한 단백질 식품이 된다. 또한 배아를 깎아내지 않은 원곡형태의 현미잡곡에는 단백질과 각종 미네랄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단백질 보충에 좋다.

② 지방은 견과류와 종실류에서

땅콩, 호두, 아몬드, 캐슈넛, 파스타치오, 밤 등의 견과류는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으로 비만 걱정을 덜어줄 뿐 아니라, 그 속의 불포화지방산의 기능으로 콜레스테롤 수치저하를 돕기도 한다.

또한 참깨, 들깨, 호박씨, 살구씨 등의 종실류에서 칼슘을 보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가루를 낸 상태로 밥에 뿌리거나 갖은 양념 등에 첨가한다면 맛뿐만 아니라 영양가에서도 만점 식단을 꾸릴 수 있다.

③ 채식 상품 및 식당 이용하기

채식을 처음 시작해 고기 맛을 끊기 어려운 사람은 고기 대용으로 나와 있는 밀고기, 콩고기, 채식햄 등의 채식 상품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시골생활건강식당(02-511-2402) 등의 채식 전문식당을 이용하거나 베지푸드의 99가지 채식요리(www.vegfood.co.kr) 등의 사이트를 참고하는 것도 좋다.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최윤근 교수의 아유르베다 읽기 ❶

아유르베다란?

자고로 세계 의학은 삼분되어 왔다. 히포크라테스를 기점으로 한, 세계 인구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서양의학과, 중국을 거점으로 한국과 일본의 민간 전통의학으로 대표되는 한의학, 인도 · 스리랑카 · 파키스탄 · 방글라데시 · 미얀마 등지에서 행해지고 있는 아유르베다가 그것이다.

인도의 전통 민속 의학인 아유르베다는 5천년의 역사를 가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의학이다. 서양의학의 시발지인 그리스나 중국의 한의학이 모두 이 아유르베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스크리트 어인 아유르베다(Ayuveda)의 어원은 ‘생명’을 뜻하는 ‘아유르(Ayur)’와 ‘지식’ 또는 ‘지혜’를 의미하는 ‘베다(Veda)’가 합쳐져서 된 말이다. 한마디로 생명의 예술이자 과학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유르베다다. 아유르베다에서는 비정상적이고 병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것에도 똑같이 관심을 가지고 치료해 나간다. 즉, 인간이 질병에 걸렸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평소 건강을 유지하며 활기차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등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삶을 유지해 나가는 데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몸 관리에 대한 세밀한 방법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먹고 마셔야 하는가에 대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도 민속 의학
운동 · 명상 · 식사 통한 질병예방 목적
내과 포함한 8가지 영역으로 구분

인도 신화에 의하면 아유르베다는 우주의 창시자인 브라마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한다. 그가 남긴 의학 지식을 그의 제자들이 대를 이어 전수했는데, 네 번째 경전인 <아사르바 경전>에 보면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 기술하면서 각 질병의 원인과 그에 대한 치료, 식이 요법 등 아유르베다식 치료법이 비교적 상세히 실려 있다. 기원 전 6세기경에는 유명한 외과 의사인 수슈루타가 <수슈루타 삼히타>라는 아유르베다 외과서를 남겼는데 그때 이미 그는 뇌 수술과 코 성형수술을 실시했음이 문헌을 통해 드러나 있다. 그후 1~2세기경에는 내과 의사인 차라카가 <차라카 삼히타>라는 내과 고전경을 남겨 아유르베다를 본격적인 의학서로 자리잡게 만들었다.

아유르베다 의학은 8가지의 전문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신경과를 포함한 내과, 외과, 안과와 이비인후과를 포함한 쇄골 상부 관할과, 정신과, 소아과, 독물학, 노화 방지를 포함한 노인학, 강정학(Sexology & aphrodisiacs)으로 되어 있다. 아유르베다에서 추구하는 근본 목적은 간단한 운동, 명상, 식사 조절과 약초 섭취,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건강을 증진시키고 자연 상태에서 질병의 예방적 기능을 갖추게 하자는 데 있다. 한마디로 자신의 행동과 예지로써 질병을 예방하고, 자연과 인체와의 관계에 균형을 유지해 그 속에 내재해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질병 없이 오래도록 건강한 삶을 유지하자는 건강법이다. 이것이 10억 이상의 인구를 가진 인도에서 5천 년을 거치면서 주요 의학 시스템으로 자리잡게 만든 비결이다.



최윤근 교수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 United Prebysterian Medical Center 인턴, 미국 미시건대 및 뉴욕주립대 레지던트를 거쳐 미국 버지니아 Mayr view Hospital 통증 · 치료 담당 전문의를 지냈다. 인도 코친 차라카스 아유르베다 병원에서 아유르베다를 공부해 아유르베다 의학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으며, 포천 중문의대 대체의학대학원에서 후진을 양성하고 있기도 하다. 매주 일요일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를 벌이며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의 복지에도 힘쓰고 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법구경 강의 80송

불교방송에서는 동국대 교수, 법산스님의 설법집《법구경 강의 80송》을 테이프로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각박한 현실 속 현대인들의 마음에 한구절의 시처럼 쉽게 다가오는 법구경을,
법산스님은 알기쉬운 생활방편을 곁들여 불교를 접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잔잔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잠 못 이루는 사람에게 밤은 길어라.
피곤한 사람에게 길은 멀어라.
어리석은 사람에게 생,사 길거니
그는 바른 법을 모르기 때문일세.
- 법구경 우암품

구입문의 불교방송 포교자료팀
전 화 (02)706-3502~5
가 격 70,000원(C70×20EA)

BBS 불교방송
서울FM101.9MHz · 부산FM89.9MHz · 광주FM89.7MHz · 대구FM94.5MHz · 청주FM96.7MHz · 춘천FM100.1MHz

인도그림기행

31 그림·글 이호신

시방세계로 펼쳐진 法悅



케사리야 스투파의 장엄 (67×24cm).

깨어나는 만불, 저무는 대평원

(케사리야 스투파의 장엄)

만다라세계 품은 '케사리야 스투파'
정상에서 바라본 불국토 장엄의 극치

어느 길목, 휴식을 위해 차에서 내린 일행들이 약속이나 한 듯 몰려드는 곳에 한 노인이 마른 담배잎을 썰고 있다.

녹슨 작두 칼날에 잘게 썰린 잎담배는 흰 물감과 같은 액체를 섞는데 손바닥에 올려서는 매우 비빈다. 이웃의 애연가는 이것을 받아 제 손 안에 넣고 다시 비비더니 입속으로 탁 털어 넣는다. 피우지 않고 씹는담배라니 참으로 신기하다. 담배값으로 즉석에서 몇 루피를 건네니 가게에서 팔지 않는 까닭에 우리처럼 세금이 있을리 만무이고.

이 광경 뒤로 대나무로 엮은 가게 하나. 안을 들여다보자 금이 간 거울과 나무의자 하나, 그리고 몇 가지 세면도구가 늘어져 있으니 소위 이발소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빠지지 않는 신상(神像)의 모습. 벽을 장식한 원색의 사진은 여기 또한 신앙생활의 현장임을 알아차리게 한다.

그러나 이 신(神)의 나라에서 깨달음의 성인, 붓다의 자취를 찾아가는 일행은 눈요기도 잠시뿐 아연 긴장감이 돈다. 이상원 사장(실크로드 여행사)이 다음 일정을 향해 대기한 짚차로 모두 분승하여 갈아타라는 지시에 예닐곱명씩 폐차에 이른 낡은 지프에 엉켜 타고서는 모두 어리둥절 해야하니.

넉 대의 지프가 줄을 지어 흙먼지를 풀풀 날리며 들녘과 마을 길을 지나니 사람들이 모두 일어선다. 한적한 농촌 서정이 뭉클하여 헤진 가죽 커튼(가리개)을 젖혀 보지만 워낙 흙먼지가 심해 다만 구멍난 곳에 눈을 비비고 두어 시간을 달려간다. 지금껏 수십 번의 성지 순례에 처음으로 찾는, 벼르고 벼른 불교유적이라는 이 사장의 기대와 흥분은 황량한 들녘에 우뚝 솟은 적갈색 스투파에 와서 차가 멎었다.

바이샬리에서 48km 떨어진 '케사리야(Kesariya)스투파'.

붓다의 열반지인 쿠시나가르로 가는 길에 세워진 스투파는 지금까지 보아온 스투파 중 최대의 것으로 높이(15m)와 넓이(30m)가 매우 장대한 장관인데 발굴과 복원공사로 한창 분주한 모습이다.

"붓다께서 카필라성을 출가하여 첫 스승을 만난 수행처가 아마 이곳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또는 붓다께서 열반지로 가기 위해 반세기만에 이곳에 다시 들린 곳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만…."

이 사장의 스투파 건립에 대한 의미부여가 결코 지나치지 않은 것이, 장대한 규모와 발굴에서 기원전 유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사실이 이를 부언해 준다.

스투파는 뛰어난 건축가의 설계인양 길따라 층층을 오르게 했고 사방 둘레에 감실을 두어 수십 여기의 불상을 봉안했다. 현재까지 24개의 불상을 발굴했다는데 진품은 모두 박물관으로 가고 부서진 불상과 모조품이 감실에 봉안돼 있다. 사방천지 만다라의 세계로 펼쳐지는 부처의 세계, 고른 세상의 빛을 맞이하고 다시 불법을 내뿜는 법열(法悅)이 만개하던 시절이여.

이곳은 큰 지진(1934년)으로 스투파의 윗부분이 점차 내려앉았으며 영국인 컨닝햄의 첫 발굴(1862년)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 후 국가가 참여하기는 1958년에 이르러서였고, 당시엔 방(감실)마다 불상이 있었다고 한다. 기원전의 유물로는 아쇼카대왕(BC250년경)때의 것으로 짐작되는 것도 있으나 당시는 무불상시대인 만큼 후대에 점진적으로 설계가 보완된 후에 불상이 안치된 것으로 추측된다.

지상으로부터 쌓아올린 벽돌은 중간에 허리띠를 두르듯 변화를 주었는데 마치 배흘림기둥처럼 곡선의 볼륨이 두드러지게 쌓았고 층마다 배수구인 구멍을 낸 것이 스투파 건축의 특성으로 살펴졌다.

아, 그러나 무엇보다 스투파 정상에 올랐을 때 사방천지에 일망무제로 대평원이 이곳 스투파를 향해 물결치고 있음이여!

마치 지금껏 이곳이 성지임을 지켜주기라도 하였단 말인가. 끝없는 대평원의 수묵(樹木)은 스스로 원근(遠近)이 되고 지상(地上)의 수묵(水墨)이 되어 풀리고 있었다. 그 풍광은 또 은빛 호수를 드리우고 나뭇짐을 진 여인들이 점경으로 드러나는가 하면 아스라이 물소떼들이 길을 내며 어둠을 몰아가고 있다.

서녘의 해가 마침내 황금빛에서 다홍빛으로 잦아질 무렵 일행은 서둘러 지프에 올랐다. 되돌아 가야할 집이 없는 나그네들에게 갈 길은 아득한데 돌아보니 대평원의 일몰은 장엄의 극치다. 이 광경을 만끽하기 위해 모두들 차에서 내려 해가 지상에 빠지도록 기다리며 응시하는 오늘이 또한 복되다.

저무는 대평원에서 다시 깨어나는 검은 스투파의 자태. 알 수 없는 기운이 대지를 감싸고 나그네의 마음깃을 스친다. 늘 느끼고 감동하는 일이지만 사람은 어느 때 어디서 무엇을 보며 느끼느냐에 따라 세상이 온전히 다른 것임을.

이 황량한 대지, 쓸쓸한 밤길을 붓다께서 혹 걸어가셨을까. 아니면 또 어떠리. 차가 인가를 스쳐가자 모두들 모닥불과 저녁을 위한 삶의 연기를 피워 올리고 있다. 그 어둠속에 깜박이는 눈빛들. 지친 일상에 졸고 있는 마을 그림자가 어둠속으로 명멸한다.

그런데 이게 웬일, 짚차 조수가 중간에 차를 세우더니 가는 길에 어린 아이를 마저 태우고 가잔다. 내가 탄 지프엔 이미 틈이 없고 모두 여성이라 할 수 없이 뒷자리의 내가 그 아이를 받아 겨우 안았다.

덜컹거리는 비포장도로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먼지.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자리에서 아이가 떨어질세라 두 손으로 아이의 배에 깍지를 끼고 달려가는 긴장의 연속. 어둠속에 갈수록 힘에 부쳐 두려운 생각이 떠나질 않는데 한편 따스하게 배어오는 체온이라니….

내가 인도기행 중 가장 큰 행운이 있었다면 한 시간여 이 인도 아이를 내 품에 안아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사실, 그 뜨거운 체온을 나는 인연에 감사하고 싶다.

lhs1957@lycos.co.kr



케사리야 스투파에서 (23×24cm).

협찬 : 안성 도피안사 · 실크로드여행사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연등용 전선 케이블" 찬덕 연등이 시공하면 기초부터 다릅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지금 전국에선 "연등전선케이블"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하여 드립니다.



* 시공된 연등용 전선 케이블 *

팔모접등 팔모조립등 공단등 (비단등 실크등)



종 등 만월등



※ 만월등, 종등에 사찰이름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찬덕 연등제작사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FAX 031) 794-6288

찬덕홈페이지 : www.chanduk.com e-mail : chanduk21@hanmail.net